



자연을 벗삼아 문화를 즐기다 '특별한 테마여행'

농촌으로 떠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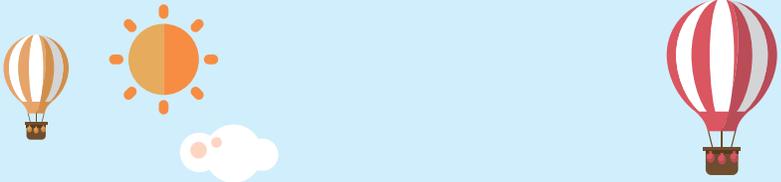
심 여행

TRAVEL FOR REAL  
REST IN THE RURAL  
AREA OF KOREA

40

대한민국 농촌여행지

[www.welchon.com](http://www.welchon.com)



# 농촌으로 떠나는 쉽 여행 40

TRAVEL FOR REAL  
REST IN THE RURAL AREA OF KOREA



## 자연을 벗 삼아 문화를 즐기다 농촌으로 떠나는 쉽 여행 40

시원한 바람이 살랑이면 들만에 나가 잠자리를 잡고  
따가운 햇볕이 얼굴을 때리면 물놀이를 즐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다 허기가 질 때면 직접 수확한 농작물로 음식을 만듭니다.  
시간이 멈춘 듯 보이는 고즈넉한 풍경 위로 색다른 경험이 추억의 창고에 그득히 쌓입니다.  
한국의 농촌에서 만끽할 수 있는 소중한 행복들.  
이 모든 '쉽'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대한민국으로 농촌여행을 떠나세요.  
한국의 농촌이 풍성한 이야기 보따리를 준비하고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그저 보이는 풍경에 폭 안겨 쉬었다 가라고...



## 한강의 기적을 이룬 비옥한 땅, 경기도

전쟁의 아픔을 딛고 글로벌 국가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지력을 상징하는 한강.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유유히 흐르며 한국인의 젖줄이 되어준 한강을 끼고 비옥한 평야가 발달해 선사시대부터 많은 사람이 정착했던 땅입니다.

##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청정지역, 강원도

한반도의 척추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서울과 경기도로 이어지는 위치에 있는 강원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청정지역 강원도에서는 대관령, 미시령, 진부령, 한계령 등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마다 절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자연을 벗 삼아 느린 삶을 실천하는 충청남도 & 충청북도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한 충청도는 예로부터 예를 숭상하며 전통의 가치를 지켜온 지역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발전보다 선조가 남긴 보물을 보존하고 계승하며 더 큰 보물을 후세에 전하고 있는 곳이지요. 느긋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인 농촌마을에서 느림의 미학을 느껴보세요.

## 한국의 멋과 맛이 시작된 풍류의 고장, 전라남도 & 전라북도

강과 하천이 흐르는 광활한 평야를 품은 전라도는 한국농업의 상징인 곳입니다. 그물기에 예로부터 먹거리가 풍성하여 맛과 멋을 두루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문화관광 중심지, 경상남도 & 경상북도

경상도는 한반도에 불교를 꽃 피웠던 신라문화, 신비함을 간직한 가야문화, 풍류와 예절을 지킨 유교문화 등 한민족 문화의 본산지입니다. 천년고도(千年古都) 경주시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문화자원 외에도 수려한 자연경관, 335km에 달하는 해안선, 정청한 동해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대한민국의 보물섬, 제주특별자치도

섬 전체가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도는 화산섬 특유의 환경과 옛 탐라국의 역사가 깃든 민속문화까지 두루 즐길 수 있는 보물섬입니다.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과 386개에 달하는 기생화산 오름을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감상해보세요.



### 경기도

이천\_돼지박물관  
양평\_모피지마을  
양평\_보릿고개마을  
양평\_수미마을  
파주\_산머루농원



### 강원도

인제\_백담마을  
인제\_하추리산촌마을  
횡성\_산채마을  
횡성\_예민양봉원  
평창\_의사(치)비람마을  
평창\_어름치마을  
화천\_토고미마을  
양양\_해담마을



### 충청북도

단양\_방곡도깨비마을  
단양\_한드미마을



### 전라북도

순창\_고추장이는 마을  
남원\_달오름마을  
임실\_두마리목장  
익산\_성당포구마을  
완주\_인덕마을  
완주\_오복마을  
진안\_애농영농조합



### 경상북도

고령\_개실마을  
봉화\_달실마을  
경주\_세심마을  
영역\_인랑전통테마마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_이흘긋 의자마을



### 충청남도

청양\_알프스마을  
아산\_외암민속마을  
예산\_사과와인  
당진\_신평양조장



### 전라남도

담양\_무월마을  
보성\_보향다원  
담양\_삼지내마을  
순천\_함애실마을



### 경상남도

남해\_두모마을  
남해\_해바리마을  
창원\_빛돌배기마을  
사천\_비봉내마을  
거창\_숲옛마을

EXPERIENCE 체험여행



ORIENT 전통여행



NATURE 자연여행



WELL-BEING 웰빙여행



# CONTENTS

## THEME 01 EXPERIENCE

### 자연에서 추억을 캐는 체험여행 14

경기도 Gyeonggi-do	08	여름에는 메기잡고 겨울에는 빙어잡고 일년 내내 축제 / 양평 수미마을
경기도 Gyeonggi-do	14	귀여운 새끼 돼지를 품에 안고 꿀꿀꿀! / 이천 돼지박물관
경기도 Gyeonggi-do	20	사계절 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 양평 모꼬지마을
강원도 Gangwon-do	26	대관령 자락에 펼쳐진 강원도 평창의 체험여행 천국 / 평창 의야지바람마을
강원도 Gangwon-do	32	맛있게! 느긋하게! 건강하게! / 횡성 산채마을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38	산과 들과 계곡, 천연동굴이 어우러진 곳 / 단양 한드미마을
전라북도 Jeollabuk-do	44	흥부전의 의미가 체험속에 녹아있는 / 남원 달오름마을
전라북도 Jeollabuk-do	50	농촌체험도 하고 건강·힐링도 챙기고 / 완주 안덕마을
전라북도 Jeollabuk-do	56	힐링과 농촌체험의 1번지 / 완주 오복마을
전라북도 Jeollabuk-do	62	산양 먹이주고 치즈도 만들고 / 임실 두마리목장
전라북도 Jeollabuk-do	68	파릇파릇 새싹나라로의 초대 / 진안 애농영농조합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74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농촌체험휴양마을 / 남해 두모마을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80	다양한 대나무체험이 즐거운 마을 / 사천 비봉내마을
제주특별자치도 Jeju-do	86	9개의 섬, 9가지의 즐거움 휴식같은 농촌 체험 테마공원 / 제주 아홉곳 의자마을

## THEME 02 NATURE

유래 · 상쾌 · 통쾌의 조화로운 자연여행 09

경기도 Gyeonggi-do	94	옛 고향의 정취가 살아있는 건강한 마을 / 양평 보릿고개마을
강원도 Gangwon-do	100	백담사의 기운을 품은 내설악 산골마을 / 인제 백담마을
강원도 Gangwon-do	106	해를 담은 마을에서 추억도 담아볼까 / 양양 해담마을
강원도 Gangwon-do	112	설악산과 내린천의 품에 안긴 청정마을 / 인제 하추리산촌마을
강원도 Gangwon-do	118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넉넉한 마을 / 화천 토고미마을
강원도 Gangwon-do	124	천연기념물 여름치가 사는 곳에 펼쳐진 체평 천국 / 평창 여름치마을
강원도 Gangwon-do	130	생태계를 살리는 꿀벌야, 고마워! / 횡성 에덴양봉원
전라남도 Jeollanam-do	136	봄이면 매화향이 넘실대고 여름이면 매실이 주렁주렁 / 순천 향매실마을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142	사계절이 즐겁다! 사계절이 행복하다! / 청양 알프스마을

## THEME 03 ORIENT

아이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전통여행 09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150	장작 가마로 도자기를 굽는 백두대간 오지마을 / 단양 방곡도깨비마을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156	6km 돌담길 따라 떠나는 충남 아산의 시간여행 / 아산 외암민속마을
전라남도 Jeollanam-do	162	시간도 멈춘 듯한 돌담 골목길로 들어가다 / 담양 삼지내마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68	다양한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마을 / 경주 세심마을
전라북도 Jeollabuk-do	174	나는 고추장 담그러 간대! / 순창 고추장익는마을
전라북도 Jeollabuk-do	180	금강 물길을 달리는 두 바퀴 자전거 여행 / 익산 성당포구마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86	고가에서 즐기는 각양각색 농촌체험 / 고령 개실마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92	500년 전통을 간직한 권벌 종가의 집성촌 / 봉화 달실마을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98	유교적 전통을 간직한 선비마을 / 영덕 인랑전통테마마을

## THEME 04 WELL-BEING

최고의 먹거리를 만끽하는 웰빙여행 08

경기도 Gyeonggi-do	206	산머루 향에 취하며 보고 만들고 먹는 즐거운 체험여행 / 파주 산머루농원
전라남도 Jeollanam-do	212	고향의 추억이 새록새록 / 담양 무월마을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218	명품 과실주로 꼽히는 예산 사과와인의 향기에 취하다 / 예산 사과와인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224	술 익는 마을에서 웰빙여행을 / 당진 신평양조장
전라남도 Jeollanam-do	230	차입으로 만든 다양한 차 이름도 알고 차도 만들고 / 보성 보향다원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236	외국인이 농촌체험을 배우는 우프 호스트마을 식교육 전문 농장 / 창원 빛돌배기마을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242	햇불로 낙지를 잡는 해바리체험과 유아 첫 생산지 / 남해 해바리마을
경상남도 Gyeongsangnam-do	248	전통고택과 함께 하는 맛있는 체험 / 거창 숯매마을

## THEME 01 EXPERIENCE

자연에서 추억을 깨는  
체험여행



## THEME 02 NATURE

유쾌 · 상쾌 · 통쾌의 조화로운  
자연여행



## Check Point

마을별 체험은 대부분의 마을이 단체(30인 이상)가 신청시 가능하며,  
계절에 따라 체험일정과 체험 종류, 체험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체험전 반드시 사전예약은 필수!

- 본 여행가이드북에 제시된 체험비용은 30인이상 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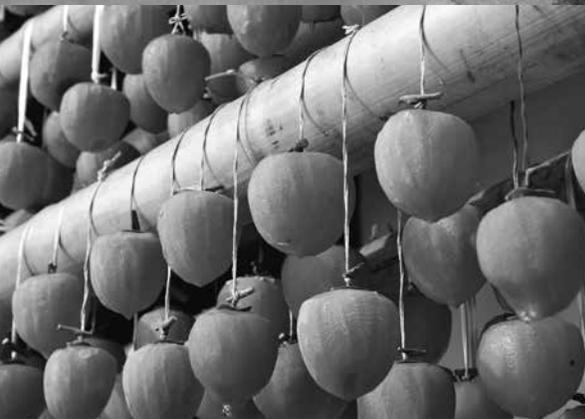



---

THEME 03

**ORIENT**

아이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전통여행




---

THEME 04

**WELL-BEING**

최고의 먹거리를 만끽하는  
웰빙여행



● 수미마을

● 경기도

## 여름에는 메기 잡고 겨울에는 빙어 잡고 일년 내내 축제

### 양평 수미마을

양평의 수미마을은 일년 내내 축제다. 주말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진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부모님도, 색다른 데이트를 기대하는 커플들도, 한국의 농촌마을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들도 마을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곱다니길 55							
체험	맨손으로 메기잡기, 수목양용 트랙터타기, 몽땅구이 먹거리, 빙어낚시와 썰매타기 등							
문의	031-775-5205 <a href="http://soomyland.com">http://soomyland.com</a>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수미마을은 10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다양한 축제로 유명한 마을이다. 지금까지 각종 중앙일간지와 TV프로그램에 100회 이상 소개되었다. 양평군에서 지정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이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이기도 하다.

소비중심의 대규모 축제 대신에 마을주민과 정을 나누는 작지만 알찬 문화체험을 진행하면서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수미마을은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양평 지역만들기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 농촌마을대상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았다.

## 마을 미리보기

수미마을 징검다리



## 수미마을에서는 365일이 축제!

수미마을의 봄은 온통 딸기향으로 가득하다. 2월부터 5월 사이에는 마을에서 '양평딸기도시락축제'를 연다. 싱그러운 봄 햇살을 받아 잘 익은 딸기를 따서 한 입 베어물면 새콤달콤한 딸기향이 입안에 가득하다. 배가 부를 만큼 딸기를 따먹고, 집에 가져갈 딸기를 담아 나오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싱글벙글이다. 생딸기를 갈아 딸기쥬스도 만들고, 딸기시럽이 들어간 쌀강정도 만든다. 수미마을에 여름이 오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신나서 모여든다. 수미마을에서 여름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양평메기수염축제'에 참여하면 자연과 하나된 물놀이가 가능하다.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커다란 메기를 잡기도 하고, 부드러운 황토 속에서 미꾸라지를 잡기도 한다. 물놀이를 하다 지치면 거대한 뗏목을 탄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오면 수미마을에는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난다. 이름도 근사한 '양평몽땅구이축제'다. 말 그대로 축제장에서 수확한 메기와 장어, 고구마와 알밤, 추억의 쪄드기와 떡에서부터 오리, 돼지, 한우까지 모든 것들을 구워먹을 수 있다. 내 손으로 직접 수확한 농작물을 직접 구워먹으면 맛도 두 배, 재미도 두배가 된다. 이 맛이 고향의 맛이다. 겨울이면 온 마을이 흰 옷으로 갈아입는다. 흰 눈에 파묻힌 수미마을은 조용하게 '췌! 겨울비밀 축제'를 준비한다. 쫄쫄 얼어붙은 저수지는 천연의 빙어낚시터다. 아이들은 한켠에서 얼음썰매를 지치고, 스케이트를 탄다.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지칠 때까지 눈썰매를 탈 수도 있다. 손도 녹일 겸 달고나를 구워 먹다보면 하루가 달콤하다.

- ① 양평딸기도시락축제
- ② 양평몽땅구이축제
- ③ 양평메기수염축제
- ④ 췌! 겨울비밀 축제





꽃이 만발한 남한 강변의  
들꽃 수목원과 은행나무로 유명한  
용문사도 양평의 인기있는 여행지다.

## 산 좋고 물 좋은 양평 즐기기

11



수미마을의 1박 2일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시골의 밤풍경에 녹아드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 산도 좋고 물도 좋은 양평에 온 김에 양평의 명소 두물머리에도 둘러보자. 수령이 400년이 넘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물안개를 바라보면 누구라도 시인이 될 수 있겠다.

남한강변에 위치한 들꽃 수목원에서도 자연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사찰인 용문사에 가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500살의 은행나무를 만난다.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땅에 꽂았더니 뿌리를 내려 은행나무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이외에도 옛꽃이 가득한 세미원에서 산책을 한다거나 아이들과 함께 곤충박물관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 양평 수미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12

THEME 01 EXPERIENCE  
경기 | 체험여행

## 두물머리

[tour.yp21.net](http://tour.yp21.net)

Tel. 031-770-2068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1리

사진 동호인들이 손꼽는 출사지로 아침의 물안개가 환상적이다. 중앙선 양수역에서 가깝다.

## 용문사

[www.yongmunsa.biz](http://www.yongmunsa.biz)

Tel. 031-773-3797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용문사는 천연기념물 제 30호인 은행나무가 두 팔을 벌리고 맞아주는 천연 고찰이다.

## 세미원

[www.semiwon.or.kr](http://www.semiwon.or.kr)

Tel. 031-775-1834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93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에서 물의 요정 수련을 바라보며 산책로를 걸어보자.

## 들꽃수목원

[www.nemunimo.co.kr](http://www.nemunimo.co.kr)

Tel. 031-772-1800

들꽃 수목원에서는 강변의 정취와 꽃들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마을  
체험하기



맨손으로 메기잡기

수미마을에 여름이 오면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체험은 메기잡기다. 미끌거리는 메기를 맨손으로 잡는 재미뿐만 아니라 장작불에 구워먹는 재미도 일품이다.



몽땅구이 먹거리

개울가에 발걸고 들어가 직접 잡은 메기와 장어, 호미로 캔 팔뚝만한 고구마, 토실한 알밤을 잔뜩 구워먹자. 수미마을의 풍성한 가을을 배불리 만끽할 수 있다.



수륙양용 트랙터타기

트랙터 뒤에 타고 갈대밭을 헤치며 달리면 탄성이 절로난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다가 어느 순간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며 신나게 마을을 탐험한다.



빙어낚시와 썰매타기

겨울이면 공공 얼어붙은 저수지를 깨고 빙어를 낚는다. 빙어를 튀겨 먹고 무쳐 먹는재미가 있다. 얼음썰매와 눈썰매를 타며 겨울을 즐겨보자.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수미마을 > 점심 > 용문사 > 곤충박물관 > 두물머리

수미마을의 체험프로그램은 보통 10시 쯤 시작한다. 오전에 메기잡이와 뗏목타기를 하고 마을 안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 갈대숲을 헤치는 수륙양용 트랙터를 타보자. 용문사에서 느티나무를 보며 감탄하고, 곤충박물관에 둘러 나비와 누에를 만나보자. 노을이 질 때쯤 두물머리에서 하루를 마무리 하면 좋겠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수미마을

둘째 날 : 용문사 > 들꽃수목원 > 두물머리 > 소나기마을

첫날은 수미마을에서 보낸다. 다음날에는 근처의 용문사를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들꽃수목원을 둘러보고 나오면 근처에 유명한 냉면집들이 많다. 점심을 먹고 두물머리로 향한다. 두물머리에서 근사한 사진을 남기고, 소나기마을로 가보자. 중학교 교과서에 등재된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멀티미디어로 접하며 문학의 향기에 취해보자.

TRAVEL TIP

대중교통

1. 서울역 출발 : 회기역에서 경의중앙선-용문역 하차 (약 1시간 40분 소요).
2. 청량리 출발 : 기차로 타면 약 40분 소요.
3. 용문역 출발 : 버스 200번 타고 수미들 정류장 하차. 버스 2-1번, 2-8번 타고 봉상삼거리 정류장 하차 (약 40분이 소요). 수미마을체험장까지 택시를 타면 20분 정도 소요 (택시비 약 1만 원).

숙박

- 들마루 : 정현옥 031-773-0332 / 홈페이지: <http://dlmaru.com>
- 외딴집 : 031-773-0362 / 홈페이지: [www.odj.co.kr](http://www.odj.co.kr)
- 수미황토펠션 : 한성희 010-8622-9003 / 홈페이지: <http://sumihps.com>
- 고소한캠핑야밤 : 010-3082-9996
- 리버햇살펜션 : 010-3733-9181, <http://river.wooripension.com/>

- 문벨라지호텔 : 031-774-9670, <http://www.belra.co.kr/>
- 더힐하우스 : 031-771-0001, <http://www.thehillhouse.co.kr/>

먹거리

체험장 입구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수미식당이 있다. 마을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을 소담한 상처함을 차려낸다. 축제프로그램에 점심 부패가 포함되지만 별도로 주문할 수도 있다. 메기축제에는 메기매운탕이나 메기구이, 김장축제에는 김치보쌈정식, 빙어축제 기간에는 만두국을 준비한다. (문의 : 031-775-5205)

통역가이드 정보

외국인이 체험 신청하면 영어가 가능한 체험지도사를 해당 프로그램에 배치.



경기도

## 귀여운 새끼 돼지를 품에 안고 꿀꿀꿀!

### 이천 돼지박물관

이천의 돼지박물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돼지박물관이다. 이곳에서는 돼지의 모든 것을 모아둔 박물관뿐만 아니라 돼지를 기르는 농장을 함께 운영한다. 돼지의 특징에 대해 알려주고, 로컬푸드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에 목적을 둔 에듀팜이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기도 이천시 읍면 임오산로 372번길 129-7							
체험	돼지랑 놀기, 소시지를 만들기, 돼지박물관 관람, 돼지 운동회 관람 등							
문의	031-641-7540 <a href="http://www.pigpark.co.kr">http://www.pigpark.co.kr</a>							

2011년 설립된 경기도 이천의 돼지박물관은 '돼지'를 테마로 삼아 돼지 운동회와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판매와 사육, 가공품의 생산과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교육농장이다. 돼지 소를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하여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해 다양한 농축산물을 판매한다.

돼지들의 공연을 보며 가까이서 관찰하고 그들의 특성을 배우는 돼지 운동회, 돼지고기로 수제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바른 먹거리에 대해 배우는 소시지 만들기, 새끼돼지를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돼지라는 동물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안아주기 체험, 세계 각국의 그림과 공예품 1300여점이 전시된 돼지 박물관 관람 등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돼지박물관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연계된 '교육농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돼지박물관에 연간 5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 이유다.

정원산책



## 돼지 보러오면 돼지!

돼지 농장의 아기 돼지들은 매일 공연을 열어 관람객을 환영한다.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돼지들을 골라 사랑으로 훈련을 시킨다. 훈련을 받은 돼지들은 공을 물어오고, 가방에 들어가고, 볼링을 치고, 장애물을 넘는다.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공연에 참여하는 코너가 있어 즐거운 40분을 보낼 수 있다. 농장 마당에서는 돼지들에게 밥도 주고 아기돼지를 쓰다듬어 줄 수 있다.

돼지박물관에서는 소시지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진행한다. 귀엽고 예쁜 돼지들을 보고 고기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고기먹기 취지에서 바른 먹거리 교육을 시작했다. 돼지박물관 옆으로는 개울물이 흐르는 작은 정원이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느끼며 살아 숨 쉬는 생태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돼지박물관의 이종영 대표는 돼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싶어서 지난 20년 동안 세계 18개국을 돌며 돼지와 관련된 작품을 수집했다. 돼지박물관은 단순히 돼지와 관련된 작품들을 전시하는 대신 돼지의 생태와 바른 먹거리, 양돈업계의 현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준다. 돼지박물관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행복한 곳에서 자라난 행복한 돼지가 더욱 맛있는 음식이 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① 이천 돼지박물관 입구
- ② 돼지 운동회의 공연
- ③ 돼지 안아주기 체험
- ④ 박물관 내의 돼지 모형들





설봉공원

## 봄이면 노랑계, 가을이면 빨강계 물드는 이천



임금님께 진상하던 쌀로 유명한 이천에는 돼지박물관 외에도 아기자기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곳곳에 숨어있다. 가을이면 단풍이 화려하게 물드는 설봉공원은 이천 9경 중 하나로 꼽힌다. 호수에서 이어진 설봉국제조각공원에는 세계 38개국 유명작가들의 조각작품 90점이 전시되어 풍성한 멋을 더한다. 잔디마당이 넓은 이곳에서 매년 4~5월이면 이천도자기축제가, 10월이면 쌀문화축제가 열린다.

설봉공원에서 도자쇼핑몰을 지나 이천세라피아로 올라가보자. 소리나 무에 매달린 도자기 풍경이 반겨준다. 이천세라피아 내에는 도자와 우리 분야의 재능있는 작가들이 상주하며 창작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천에는 온천도 유명해서 사계절 내내 스파와 실내수영장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아울렛이 있어 쇼핑객들이 많이 찾는다.

주변  
둘러보기

## 이천 돼지박물관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18

THEME IN EXPERIENCE  
경기 | 체험여행

### 설봉호수

<http://tour.icheon.go.kr>

Tel. 031-645-3671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468

아름다운 호수 주변으로 세계 유명작가들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산책로로 제격이다.

### 조각공원과 세라피아

[www.kocef.org](http://www.kocef.org)

Tel. 031-645-0693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263

도자를 주제로 만들어진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아기자기한 복합문화공간이다.

### 이천 산수유마을

[www.2104산수유.com](http://www.2104산수유.com)

Tel. 031-632-4304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원적로

775번지 17

매년 4월이면 산수유꽃 축제가 열린다. 봄이면 노랗게, 가을이면 빨갛게 물드는 마을풍경이 예술이다.



### 이천롯데프리미엄아울렛

<http://store.lotteshopping.com>

Tel. 031-777-2500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프리미엄아울렛로 177-74

이천의 특산물인 도자기를 상징화한 백자동과 청자동을 거닐며 쇼핑을 즐긴다.



마을  
체험하기

## 돼지랑 놀자

돼지들은 햇볕아래 맛난 사료를 먹고 아이들은 돼지를 안고 함께 논다. 아기 돼지를 품에 안는 놀이문화는 따뜻하고 행복한 경험이다.



## 소시지를 만들자

소시지를 직접 만들어보면서 바른 먹거리를 바르게 먹는 방법을 배워보자. 아이들의 먹거리를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



## 돼지박물관 관람

돼지가 얼마나 깨끗한 동물인지, 돼지 지금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돼지박물관을 둘러보며 돼지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배워보자.



## 돼지와 함께 운동회!

칭찬은 돼지도 춤추게 한다. 칭찬으로 훈련받은 돼지들은 박수를 받으면 힘이나서 불링도 치고, 장애물 넘기 등 갖가지 재주를 보인다.

추천  
여행코스

## 당일 코스

## 돼지박물관 &gt; 점심 &gt; 설봉호수 &gt; 이천세라피아 &gt; 이천프리미엄아울렛

오전에 돼지박물관에서 돼지운동회와 소시지만들기 체험을 하고 이천 시내로 나와 이천쌀밥을 맛보자. 설봉호수와 조각공원을 지나 이천세라피아까지 산책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천 프리미엄아울렛에서 아이쇼핑을 즐겨보자.

1박 2일  
코스첫째 날 : 돼지박물관 > 점심 > 설봉호수 > 조각공원 > 이천세라피아 > 저녁 > 이천미란다호텔  
둘째 날 : 스파플러스 워터파크 > 점심 > 산수유마을

이천 미란다호텔에는 꼬마버스 타요 객실이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인기가 높다. 둘째날에는 스파플러스 워터파크에서 신나게 온천을 즐긴다. 산수유마을에 들러 고즈넉한 마을의 정취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자.

19

## TRAVEL TIP

## 대중교통

1. 동서울터미널: 장호원행 고속시외버스(6시30분부터 20~30분 간격)승차-장호원터미널 하차(약 1시간 소요) 후 택시 이용 (10~15분 소요, 약 1만원)
2. 동서울터미널: 임죽행 고속시외버스(6시30분부터 20~30분 간격)승차-임죽터미널 하차(소요시간 약 1시간 10분) 후 택시 이용
3.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장호원행 고속시외버스(7시부터 30~40분 간격 운행)승차-장호원터미널 하차(약 1시간 10분 소요) 후 택시이용

## 숙박

- 돼지박물관의 돼지펜션 : 031-641-7540
- 2S 모텔 : 031-642-7536
- 호텔미란다이천 : 031-639-5000 / www.mirandahotel.com
- 이천테르메덴 : 031-645-2000 / www.termeden.com
- 스카이호텔 : 031-633-5141
- 명동호텔 : 031-634-3800

- 이지모텔 : 031-631-2072 / www.ezhotel.co.kr
- 이천 관광농원 : 031-643-0011 / www.ok2000.co.kr

## 먹거리

- 돼지박물관 : 텐트에서 바비큐가 가능한 '닝만캠핑(텐트와 그릴, 삼겹살과 썬채소, 햇반 제공)' / 참가비용이 8만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예약 필수. 돼지박물관 내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도 가능)
- 이천쌀한정식 도락 : 031-638-3020
- 이천쌀밥죽차추어탕 : 031-636-8358
- 점봉산산채마을 : 031-638-0811

## 통역가이드 정보

외국인은 미리 전화로 통역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어가 가능한 문화관광 해설사와 동행이 가능  
(문의 : 이천시관광안내소 031-634-6770), 램에 배치.



모꼬지마을 ●

●  
경기도

## 사계절 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양평 모꼬지마을

모꼬지라는 말은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일컫는다. 양평의 모꼬지 마을에서는 농촌의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여럿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언제나 행복한 모꼬지를 즐길 수 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청용길 13-6							
체험	딸기따기, 가래떡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은행잎 소원배, 감장담그기, 땅콩캐기, 빙어낚시, 썰매타기 등							
문의	010-5384-4276 <a href="http://johyunri.cafe24.com">http://johyunri.cafe24.com</a>							

양평 조현리의 모꼬지마을에 도착하면 가슴이 설렌다. 전원 마을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언덕 아래 남향 집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마을 아래 금빛으로 출렁이는 논밭이 펼쳐진다. 근처의 혁신학교가 유명해지면서 농촌에 살던 사람들과 새로 온 사람들이 어울려 빚어내는 재미있는 마을 풍경이다. 마을 곳곳에는 새로 짓고 있는 집들이 많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은 마을이라는 방증이 아닐까.

모꼬지마을에는 다년간 농촌 체험을 진행하면서 다져진 풍부한 경험 이 있다. 봄에는 딸기따기,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수확축제, 겨울에는 썰매타기 등 계절별로 신나는 체험이 기다린다. 넓은 잔디가 깔린 체험장은 저녁이면 캠핑장으로 변신한다. 사계절 언제나 캠프하기 좋은 곳이다. 체험장 앞에는 용문산에서 흘러내려온 중원천이 있다. 물이 야트막하고 잔잔해서 여름휴가를 즐기기에 딱 제격이다.

## 마을 미리보기

물놀이하는 아이들



##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모꼬지마을

모꼬지마을은 사계절 내내 모꼬지를 연다. 산이 연두색 옷을 갈아입는 봄이 오면 천지에 달콤한 딸기향이 가득하다. 실컷 딸기를 따먹고, 은근한 불에 딸기를 졸여 딸기잼도 만든다.

여름이면 마을은 더욱 활기를 띤다. 중원천에서는 모꼬지 마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체험하러 온 아이들이 뒤섞여 물놀이를 한다. 작은 송사리도 잡고, 뗏목도 탄다. 종이에 소원을 적고 은행잎 돛을 달아 종이배를 띄운다. 자연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쑥쑥 키운다.

가을이면 땅콩도 캐고 감자도 캔다. 먹거리를 수확하고, 나누어 먹는 기쁨을 느낀다. 여럿이 함께 해야 더 재미있는 김장체험도 인기다. 배추를 절이고, 무를 채썰고, 양념을 버무려 배추김치를 담가보면 겨우 내 입에 착 붙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 점심으로 돼지 수육에 걸쳐리를 비벼먹는 맛도 좋다.

겨울에는 공공 얼어붙은 중원천에서 썰매도 타고, 빙어낚시도 한다. 즉석에서 뽑은 가래떡과 고소한 인절미도 맛있고, 온몸이 울리는 뽕소리를 즐기며 베어무는 뽕튀기도 맛있다. 모꼬지마을은 일 년 내내 즐거운 잔치가 계속된다.

- 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넓은 잔디밭
- ② 가을이 곱게 물든 체험장
- ③ 소망의 종이배 띄우기
- ④ 중원천에서 신나는 물놀이





## 살아있는 자연을 보듬는 양평나들이



아기자기한 안내판



체험관의 정경

양평은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농촌의 전원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살아있는 자연과 함께 호흡해 보자. 모꼬지마을 근처에는 용문산 관광단지가 있어 용문산의 수려함과 용문사의 고즈넉함을 둘러볼 수 있다. 모꼬지마을에서 가까운 양평의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에서는 우리나라의 희귀한 민물고기를 관찰하거나 자연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낚시 체험도 할 수 있다. 귀여운 토끼와 강아지, 병아리를 쓰다듬고 안아주며 먹이를 줄 수 있는 포니월드도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다. 봄이면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양평 산수유마을을 거닐어도 좋고, 맑은 날이면 중미산천문대에 올라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도 좋겠다.

체험장에서 바라보는 물놀이터



# 양평 모꼬지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양평 산수유마을

<http://sansu.invil.org>

Tel. 031-772-2257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길 1

양평의 개군 내리마을에는 봄이면 산수유꽃이 노랗게 물든다. 100년 이상 된 산수유나무 7천여 그루가 마을을 노랗게 물들이는 풍경이 사랑스럽다. 매년 4월 초순 산수유축제도 열린다.

## 민물고기생태학습관

<http://fish.gg.go.kr/>

Tel. 031-8008-6523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상광길 23-2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

어름치, 쉬리 등 희귀한 민물고기의 생태를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다. 물고기 동판 여탁, 낚시 체험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상학습실에서 물고기와 관련된 자연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다.

## 포니월드

[www.포니월드.kr](http://www.포니월드.kr)

Tel. 031-774-4512

경기 양평군 용문면 은고갯길 112

토기도 만지고, 돼지도 안아주고, 당나귀와 양에게 먹이를 주며 동물들과 교감하는 농장이다. 살아있는 동물들의 체온을 느끼며 정을 나누는 일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즐겁다.

## 중미산 천문대

<http://www.astrocafe.co.kr>

Tel. 031-771-0306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중미산로 1268  
중미산천문대

중미산 천문대에서는 당일치기, 혹은 1박 2일 캠프로 별 관찰을 할 수 있다.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찾고, 별뿔별을 헤아리는 낭만적인 경험을 해보자.



마을  
체험하기



트랙터 타기

색다른 탈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신이 난다. 엉덩이가 덜씩거리는 트랙터를 타면 저절로 환호성이 튀어 나온다.

김장 담그기

무를 채 썰고, 배추 속을 버무려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그동안 김치는 매워서 못먹던 아이들이 김치를 잘 먹기 시작한다.



뽕튀기

언제 터질까 조마조마하며 귀를 막고 기다리다가 뽕! 하는 소리와 함께 뽕튀기가 나오면 구경하던 사람들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쌀기 따기

이른 봄부터 늦봄까지 쌀기를 따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신선한 쌀기를 마음껏 따서 실컷 먹자. 쌀기잼을 만들어 즉석에서 빵에 발라먹기도 한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모꼬지마을 > 점심 >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 양평 산수유마을

떡 튀김 같은 체험을 기본적으로 즐길 수 있다. 모꼬지 마을의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자연밥상으로 점심을 든든히 먹은 다음에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에 들러 물고기를 관찰한다. 산수유 마을에 들러 봄엔 노랗고, 가을에는 빨갱게 물든 마을 풍경을 즐겨본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모꼬지마을 > 점심 > 중미산 천문대

둘째 날 :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 점심 > 포니월드

모꼬지마을에서 마을의 계절별 프로그램으로 물놀이도 즐기고, 왕달팽이도 관찰하고 나면 중미산 천문대로 이동하자. 밤하늘에 종종 떠있는 별과 달을 관찰하면서 하루를 뿌듯하게 마무리한다. 둘째 날에는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에서 귀중한 물고기들을 관찰하고, 포니월드에서 귀여운 동물들을 돌보며 자연과 교감해보자.

TRAVEL TIP

대중교통

지하철 경의중앙선을 타고 용문역에서 하차한다. 용문역 앞의 용문축합정류소에서 7-5번 버스를 타고 조현리 마을회관 정류장에서 하차. 약 25분 소요. 용문역에서 택시를 타면 약 15분 소요, 요금은 약 7000원.

숙박

모꼬지 마을의 체험장은 밤이면 캠핑장으로 변신한다.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캠핑장이다. 텐트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준비해야 한다. 모꼬지 마을 내의 체험관에서는 최대 50인까지 단체 숙박이 가능하다.

- 모꼬지마을 체험관 : 010-5384-4276
- 모꼬지마을 캠핑장 : 010-5384-4276

- 느티나무 펜션 : 031-774-7106 / www.nulinaru.kr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중원산로 246-5

- 중미산 자연휴양림 : 031-771-7166 /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북리 산201-2

먹거리

모꼬지마을은 근처에서 용문산 관광단지로 올라가는 길에 식당이 모여있다.

- 춘정골 : 031-773-5292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원리 513-7
- 용문산농장쌍밥마을 : 031-771-8389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176
- 민들레식당 : 031-775-0301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289
- 용문산 손두부 : 031-771-1104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369-61

통역기대도 정보

모꼬지마을은 자체 내에서 영어로 체험진행이 가능하다. 체험 신청을 할 때 미리 요청하면 체험 당일 영문 일정표를 제공한다.



의야지바람마을 ●

●  
강원도

## 대관령 자락에 펼쳐진 강원도 평창의 체험여행 천국

### 평창 의야지바람마을

백두대간 고원지역에서 평창군 황계면과 대관령면은 으뜸으로 꼽힌다. 해발 고도 832m의 대관령을 병풍처럼 두른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름다운 지역에 '의로운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의야지바람마을이 있다. 숨 가쁘게 지나가는 바람도 잠시 쉬어 풍경을 감상하기에 바람마을로 더 알려진 곳이다. 목가적인 환경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의야지 바람마을을 소개한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137							
체험	양목장 체험, 치즈 만들기, 아이스크림 만들기, 비누 만들기, 양초공예 체험 등							
문의	의악지바람마을 : 033-336-9812~3, www.windvil.com 평창군 문화관광과 : 033-330-2742							

구름도 산줄기를 넘으며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바람도 머물며 여행을 즐기는 곳에 의악지바람마을이 있다. 혹자는 평균 해발고도 800m에 위치해 바람이 많이 불어 붙여진 이름이란다. 우선 바람마을의 장점은 양떼가 뛰노는 3만 평의 드넓은 타전이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양들의 천국인 공간에 찬바람이 불고 눈이 쌓이면 천국은 아이들의 차지다. 스노우 래프팅, 붓슬레이 썰매, 튜브 썰매, 설원을 달리는 사륜바이크 등이 바빠 움직일수록 넓은 공간에는 행복이 가득 찬다. 이처럼 바람마을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많이 찾는 겨울 체험 여행지로 더 유명하지만, 연중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다채로워 사시사철 이곳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바람마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검은색 양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얗게 눈이 내리면 눈에 더 잘 띄는 이놈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오직 바람마을에서만 접할 수 있다. 방목하며 자라는 동물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가까이 갈 수 있고, 먹이통을 보면 달려드는 녀석들의 몸짓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 마을 미리보기

양 먹이주는 외국인 관광객



## 대관령 자연의 품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기에 한적한 시골풍경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이다. 다만, 겨울철 농한기에 눈이 쌓이면 그 자리에서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즐기게 된다. 그렇다고 겨울의 낭만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다. 양 먹이 주기를 비롯해 치즈, 아이스크림, 딸기잼, 초콜릿, 치즈 피자, 비누, 양초 공예 등 다양한 만들기 체험은 일 년 내내 이어지기 때문이다.

잠시 목동이 되어 양과 함께한 후에는 바람마음이 마련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천연 재료를 사용해 먹거리와 각종 공예 등을 직접 만드는 시간은 그 자체로도 즐겁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이라도 할 요량이라면 만드는 시간의 행복은 배가 된다. 체험교사의 안내에 따라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이면 어느새 예쁜 모습으로 완성된 작품이 눈앞에 드러난다.

- ① 대관령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연인
- ② 메밀꽃밭에서 당나귀를 타는 아이
- ③ 양에게 먹이를 주는 아이





월정사 전나무숲길

## 계절마다 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평창

대관령눈꽃축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



오대산, 황병산, 계방산, 발왕산, 백적산, 흥정산, 금당산, 청태산, 백덕산, 정개산, 청옥산 등 평창군이 거느린 크고 작은 산은 이름을 헤아리기 힘들 정도이다. 그렇게 많은 산이 즐거이 이룬 곳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즐겨 찾는 여행지가 자리 잡고 있다. 가을이면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봉평면에는 이효석 문화마을 중심으로 축제가 벌어지고, 겨울이면 눈꽃축제로 횡계면 일대가 들쭉인다.

진부면에서도 같은 시기에 송어축제가 펼쳐져 겨울 여행의 흥을 더한다. 이렇듯 계절마다 다양한 색채로 옷을 갈아입는 평창은 발길이 머무는 곳 어디나 최적의 여행지가 된다. 오대산 월정사의 전나무숲길, 계방산 자락 방아다리약수터를 아름다운 산책길, 조금 더 발품을 팔아 봉평면 허브나라로 이동해도 좋다. 볼 것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니 여행자는 아쉬움을 따라 거듭해서 평창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다.

# 평창 의야지바람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30

THEME IN EXPERIENCE  
강원 | 체험여행

### 평창대관령눈꽃축제

[www.snowfestival.net](http://www.snowfestival.net)

Tel. 033-335-3995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

평창군의 겨울에 흥겨움을 더하는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에는 눈과 얼음을 주제로 한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 양떼목장

[www.yangtte.co.kr](http://www.yangtte.co.kr)

Tel. 033-335-1966

평창군 대관령마루길 483-32

대관령 넓은 초지에 양을 방목하고, 눈 쌓인 겨울은 물론 꽃 피고 녹음이 우거지는 시기에도 각기 다른 절경을 뽐낸다.

### 월정사

[www.woljeongsa.org](http://www.woljeongsa.org)

Tel. 033-339-6800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창건된 곳. 사찰의 입구인 일주문에서 월정사까지 오르는 약 1km에 이르는 전나무 숲길이 분위기를 이룬다.



### 평창효석문화제

[www.hyoseok.com](http://www.hyoseok.com)

Tel. 033-335-2323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 소설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배경지 봉평면에는 메밀꽃이 피는 가을이면 다채로운 축제가 개최된다.

마을  
체험하기



양목장 체험

대관령이라는 지명만으로도 양떼가 뛰노는 목가적인 풍경이 떠오른다. 양은 포근한 전원 풍경의 상징처럼 다가온다. 양떼를 가까이서 보는 것은 물론 국내 유일의 검은양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20명 이상 신청하면 양털 깎기 체험도 진행.



사륜 오토바이(ATV) 체험

특별한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의 발길로 흥겨움이 넘치고, 시선에 들어오는 풍경마다 절경 아닌 곳이 없다. 이렇듯 빼어난 환경 속에서 4륜 오토바이에 오르는 체험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치즈 만들기

대관령에서 나고 자란 젖소의 우유를 원료로 직접 치즈를 만들어보자. 우유를 끓이고 간수를 넣은 후 알록달록한 꽃잎으로 치장하면 끝이다. 과정은 단순하지만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한 치즈가 입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상상만으로도 즐겁다.



아이스크림 만들기

아이와 함께 가족이 가장 선호하는 체험이 바로 아이스크림 만들기이다. 아이스크림 만드는 과정 역시 어렵지 않아 어린 아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방부제 없이 몸에 좋은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영양도 만점이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양떼목장 > 점심 > 의자비바람마을 > 월정사 > 방아다리약수

양떼목장 언덕 정상에 오르면 몇 겹의 병풍이 처진 듯 보이는 산줄기가 눈에 들어온다. 멀리 해수면 위를 달려와 힘겹게 대관령을 넘는 바람도 잠시 쉬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평창에 펼쳐진 절경을 가슴에 담고 의자비바람마을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해보자. 전나무숲길이 아름다운 월정사와 방아다리약수터에서 여행의 마침표를 찍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양떼목장 > 점심 > 의자비바람마을 > 월정사 > 저녁  
둘째 날 : 알펜시아리조트 > 점심 > 이효석문화마을 > 허브나리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은 겨울스포츠를 즐기기에 최적의 여행지이다. 우선 양떼목장과 의자비바람 마을에서 평창에서 접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으로 추억을 쌓고, 마을 가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자. 혹시라도 여행하는 시기가 가을이면 이효석문화제, 겨울이면 눈꽃축제와 송어축제를 빼놓지 마시길.

TRAVEL TIP

대중교통

서울에서 출발 : 남부터미널과 동서부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 - 황계시외버스공용정류장 하차(약 2시간 30분 소요). 황계면에 도착해서는 택시 이용(약 15분 정도 이동).

숙박

- 알펜시아리조트 : 033-339-0000 / www.alpensia.com
- 용평리조트 : 033-335-5757 / www.yongpyong.co.kr
- 대관령 풀안에 펜션 : 033-335-0830,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방자길 372
- 대관령엠티펜션 : 033-336-3622,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425-12
- 컨스가든 : 010-9012-2583,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리 산131-1
- 숲속의 별들 펜션 : 033-336-0804,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78-24

먹거리

- 황태회관 : 033-335-5795,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9
- 황태덕장 : 033-335-5942,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21
- 납작식당 : 033-335-5477,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13
- 고향이야기 : 033-335-5430,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9

통역가이드 정보

외국인 관광객은 평창군 문화관광과(033-330-2742)에 미리 통역 요청하면 영어가 가능한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산채마을

● 강원도

맛있게! 느긋하게! 건강하게!

횡성 산채마을

아담한 산촌마을이 정답게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을의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드문드문 집들이 자리한다. 산채마을이라는 이름 그대로 마을의 주민들은 산나물을 채취하고, 나물을 가공하는 일을 주업으로 한다. 마을의 천연자원인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냇물을 끼고 산나물을 주제로 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로 386							
체험	곤드레나물밥짓기, 메기잡기, 계절별 수확체험, 머그컵 만들기, 소망등 날리기 등							
문의	033-345-9196 <a href="http://www.sanche.co.kr">http://www.sanche.co.kr</a>							

산채마을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해 더욱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누린다. 산채마을에 가면 숲 속으로 들어가 숲의 생태를 배우고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다. 마을에는 희귀약초 전시장도 있고, 산채 가공시설도 갖췄다. 도시인들은 그저 열린 마음으로 오면 된다.

주렁주렁 열린 오이와 호박과 가지를 따고, 배추와 무를 뽑고, 감자와 고구마와 땅콩을 캔다. 엄마는 장작을 때어 곤드레나물밥을 짓고, 아빠는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다.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특별한 밥상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 끼가 된다.

산채마을에 겨울이 오면 흰 눈이 덮인 마을은 한 폭의 진경산수화로 변화한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 근처의 눈밭에서는 토끼와 노루가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눈이 소복소복 쌓인 날이면 산토끼를 찾아나서는 트레킹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진행한다. 마을에는 당나귀도 같이 산다. 당나귀를 쓰다듬고 먹이를 주면, 인심 좋은 당나귀가 히힃, 하고 화답한다.

당나귀에게 먹이를 주는 아이들



## 손수 지어먹는 한 끼의 기쁨, 곤드레나물밥

봄부터 가을까지 마을길 여기저기를 산책하고 있다면 각종 산나물의 향기가 가득하다. 향긋한 더덕을 캐면 구워 먹기도 하고, 양념해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한다. 조심조심 호미질로 감자를 캐면 고소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 구운 감자를 먹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씹스럽다고 외면했을 곰취나물은 이곳에서 인기 있는 별미로 재탄생한다. 나물을 무쳐 먹기도 하고, 김밥처럼 싸먹기도 하고, 칼국수에 넣어 먹기도 한다.

- ① 장작불에 밥짓는 가마솥
- ② 감자캐기
- ③ 갓 지어낸 곤드레나물밥
- ④ 각종 나물을 넣은 비빔밥



산채마을을 먹거리 체험의 최고봉은 가마솥에 짓는 곤드레나물밥이다. 준비된 곤드레나물을 쌀이 담긴 가마솥에 넣고 밥을 지으면 특유의 향과 밥냄새가 섞여 식욕을 자극한다. 이외에도 산채마을에는 나무화분 만들기, 나무피리 만들기, 머그잔 만들기, 소망등 띄우기 같은 자연친화적인 체험들이 많다.

산채마을은 다양한 먹거리 체험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수고하신 농부아저씨들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키워내는 땅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유도한다. 산채마을에서 체험을 마치고 나면 몸과 마음이 모두 다 건강해 진다.





## 예술혼이 살아나는 강원도 여행의 참맛



산책길이 있는 숲체원

깊은 산의 정취와 푸른 바다의 낭만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강원도의 매력이다. 산채마을과 가까운 곳에 숲을 산책할 수 있는 숲체원과 청태산 자연휴양림이 있다. 계절에 따라 색다른 느낌의 숲을 거닐어보자. 무이예술관에는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실뿐만 아니라 작품을 그려내는 작가의 아틀리에가 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도 예술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이효석 문학관에는 문학의 향기가 살아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넓은 메밀밭과 탁트인 개울가를 바라보면 작가의 예술혼에 좀 더 다가가는 느낌이 든다. 이왕이면 대관령까지 달려볼까.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시원한 바람에 몸을 맡기면 '이 맛에 여행을 하는구나' 싶다. 평화로운 풍경도 일품이지만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기분도 비할 바 없이 좋다.



# 황성 산채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36

THEME IN EXPERIENCE  
강원 | 체험여행

## 숲체원

[www.soopchewon.or.kr](http://www.soopchewon.or.kr)

Tel. 033-340-6300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숲의 중요성과 가치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과 하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제로 운영한다. 편안한 등산로를 걸으며 쉽게 자연과 교감하고 산을 둘러볼 수 있다.

## 무이예술관

<http://www.moeee.co.kr>

Tel. 033-335-67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사리평길 233

무이예술관은 작가들의 아틀리에이자, 숨겨진 보석 같은 문화공간이다. 아외의 조각공원에서부터 실내의 전 시실을 돌아보면 자연의 넉넉함과 예술의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 이효석문학관

<http://www.hyoseok.org>

Tel. 033-330-2700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효석문학길 73-25

한국현대문학의 백미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 이효석을 기리는 기념관이다. 작가의 고향을 찾아가 아름다운 메밀꽃이 피어나는 봉평의 정경을 가슴에 담아오자.



## 대관령 양떼목장

[www.yangtte.co.kr](http://www.yangtte.co.kr)

Tel. 033-335-1966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대관령양떼목장

알프스의 넓은 초원이 부럽지 않은 양떼목장은 맑고 푸른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대관령 능선의 넓은 초지에서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풍경이 마치 그림 같다.

마을  
체험하기



팜파티

산채마을에서 수확한 배추와 고추, 상추로 쌈을 준비하고, 바베큐를 시작한다. 마을에서 수확한 단호박과 감자와 옥수수도 한바탕 구워먹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든다.



친환경 밥상차리기

고추를 따서 고추전을 부치고, 곰취나 물로 김밥을 말고, 감자를 캐서 고로케를 만든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만들어 먹는 친환경 밥상이 제일 맛있음을 깨닫는 시간이다.



곤드레밥짓기

장작을 피워 가마솥에 밥을 하는 경험은 흔치 않다. 게다가 곤드레나물을 잔뜩 넣어 고소한 밥냄새가 식욕을 자극한다. 평소에 나물을 먹지 않는 사람도 밥그릇을 푹뚫 비운다.



소망등 날리기

조물럭 거리며 소망등을 만들고, 이루어 줘 달고 싶은 소망을 꼭게 적어서 하늘로 날려 보낸다. 밤하늘의 별처럼 소망등이 빛을 발하며 날아간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분이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황성 산채마을 > 점심 > 무이예술관 > 대관령 양떼목장

산채마을에서 숲속 향기와 나물을 채취하는 즐거운 체험을 해보자. 가마솥에 갖춰진 곤드레나물밥으로 점심을 먹는다. 무이예술관을 거닐며 야외 정원의 조각들을 감상하고, 작가의 아틀리에도 구경해보자.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양들과 함께 거닐며 평화로운 풍경을 만끽하다보면 강원도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된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숲채원 > 점심 > 황성 산채마을

둘째 날 : 무이예술관 > 이효석 문학관 > 점심 > 대관령 양떼목장

숲채원에서 진행하는 숲과 친해지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좋겠다. 이어지는 황성 산채마을의 먹거리 체험은 풍성하고 행복한 기억을 선사한다. 무이예술관과 이효석 문학관을 둘러 예술가들을 만나고,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양들과 교감해 보자.

TRAVEL TIP

대중교통

서울의 동서울합터미널, 상봉터미널, 마장터미널에서 원주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 이용.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둔내행 버스가 50분 간격으로 운행. 소요시간 50분, 교통비는 성인3500원. 둔내행버스를 타면서 산채마을에 전화하면 픽업이 가능 (산채마을 픽업요청 033-345-9196). 성수기에는 성우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둔내의 덕수철물 앞에서 하차하면 픽업이 가능. (성우리조트 셔틀문의 033-340-3000)

숙박

산채마을에서 여러동의 펜션 운영. 전통한옥인 사랑채에서부터 중소형 단독별채, 단체가 묵을 수 있는 대형 본관객차 인원수에 맞춰 숙박이 가능.

- 산채마을 펜션 : 033-345-9196
- 보광휘닉스파크 : 1577-0069 / www.phoenixpark.co.kr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리 174
- 웰리힐리파크 : 1544-8833 / http://www.wellhillpark.com

강원도 황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성우리도미리

- 숲채원 캠핑장 : 033-340-6421 / 강원도 황성군 둔내면 청태사로 77
- 청태산 자연휴양림 캠핑장 : 033-343-9707 / 강원도 황성군 둔내면 삼교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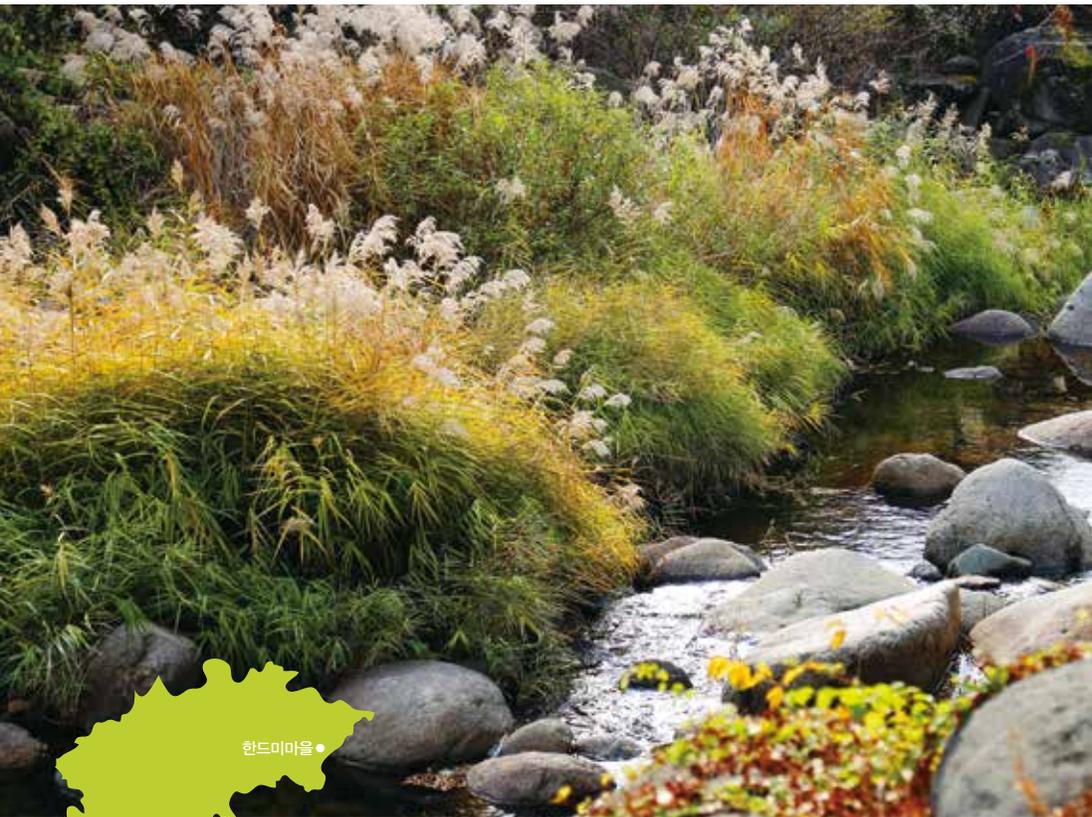
먹거리

산채마을의 먹거리 체험으로도 배가 부르겠지만, 황성에 왔으니 한우도 한 번 먹어보자. 황성읍내의 황성종합운동장 근처에는 한우국 밥집들이 많고, 황성오거리 근처에는 한우구이집이 많다.

- 운동장해장국 : 033-345-1770 / 강원도 황성군 황성을 삼일로 79
- 황성한우국밥 : 033-345-4959 / 강원도 황성군 황성을 문화체육로 46 보훈회관
- 황성한우프리카 : 033-344-9293 / 강원도 황성군 황성을 황성로 390
- 황성한우타운 : 033-345-3324 / 강원도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116-5

통역가이드 정보

산채마을에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예약할 때 미리 통역서비스를 신청하면, 산채마을에서 황성 관광홍보과에 연락해 통역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드미마을 •

●  
충청북도

## 산과 들과 계곡, 천연동굴이 어우러진 곳

단양 한드미마을

한드미마을에 가까이 갈수록 눈이 즐겁다. 수려한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진 아래로 구비구비 냇물이 흐른다. 소백산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 산천어와 벗하는 깨끗한 개울을 끼고 마을이 자리했다. 한드미마을은 대자연의 품속에서 여유롭고 넉넉한 인심으로 사람들을 맞이한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한드미길 37(어의곡2리 298-1)							
체험	전통방식 삼국구이, 천연동굴탐험, 나무목걸이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등							
문의	043-422-2831 <a href="http://www.handemy.org">http://www.handemy.org</a>							

한드미마을은 산과 들과 계곡뿐만 아니라 천연동굴까지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다. 마을을 감싸안은 봉긋한 산은 사시사철 아름답고, 소백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계곡물에는 청정수역에서만 서식한다는 산천어가 산다. 박쥐가 살고 있는 동굴은 한드미마을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이다.

인심 좋고 넉넉한 한드미마을은 농촌유학을 오는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곳이기도 하다. 10년째 운영되는 한드미마을의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도심 대신 농촌의 넉넉한 품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픈 여러 지역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많이 찾는다. 도시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농촌체험을 하고 싶은 외국인들도 한드미마을로 온다. 한적하고 조용한 한드미마을에서 훈훈한 인정을 느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겠다.

## 마을 미리보기

한드미마을 심터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느티나무



## 한드미마을의 자연이 바로 체험놀이터

한드미마을에서는 농사체험, 산촌체험, 생태체험 같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진행되는 캠프와 1박 2일짜리 수학여행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인기 프로그램이다.

한드미마을의 자연은 다양한 즐길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봄이면 냉이도 캐고, 모내기도 한다. 여름이면 직접 나무를 엮어 뗏목을 만들어 타보기도 한다. 가을이면 꽃감을 말리고, 고구마를 캐며 수확의 기쁨을 누린다. 고구마와 감자를 캐고 나면 전통방식의 삼굿구이 체험을 통해 맛있게 구워먹는다. 겨울이면 꽁꽁 얼어붙은 빙판 위에서 썰매를 지지다가 수제비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허수아비를 만들고, 경운기를 타보는 신기한 경험도 해보고, 박쥐가 살고 있는 한드미 마을의 천연 동굴을 탐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든다.

한드미마을에는 각각의 집마다 독특한 명패가 붙어 있다. '영춘네집', '단양집' 같은 평범한 이름에서부터 '맥가이버쌈집'이라던가 '마녀쌈집' 같은 독특한 이름까지 다양한 명패를 보며 마을을 산책하다보면 마을이 친근하게 다가온다. 산촌문화관과 방갈로, 쉬터는 친환경 재료로 지어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 주민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어 다음에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든다.

- ① 겨울이면 빙판에서 썰매타기
- ② 직접 뗏목을 나르는 아이들
- ③ 전통방식의 삼굿구이 체험





양백산 전망대에서 즐기는 패러글라이딩

## 어디를 둘러보아도 탄성을 자아내는 단양



한드미마을의 방갈로

단양을 여행한다면 바로 단양8경을 손꼽기 마련이다. 요즘이야 어디를 가든 좋은 경치를 일컬어 8경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단양만큼 8경의 진가가 발휘되는 곳이 없다. 단양에 와보면 실감이 난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아름답기 때문이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단양은 레저와 관광의 천국이기도 하다. 단양에 왔으니 도담삼봉을 먼저 만나보자. 강물위로 솟아난 세 개의 봉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단양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도담삼봉에서 약 20분 정도 오르면 아시아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석문도 볼 수 있다. 빗물이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진 고수동굴에서는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동굴 내부를 관람할 수 있다. 낮에는 한드미 마을에서 즐거운 체험을 하고, 저녁에는 양백산 전망대에 올라 단양의 야경을 감상해 보자. 낮에 만나는 단양의 모습이 수려하다면 밤에 만나는 단양의 얼굴은 화려하다. 전망대에 올라 내려다보는 단양의 모습에 반했다면, 패러글라이딩에도 도전해 보자. 더할 나위 없는 단양 여행의 추억이 될 것이다.

# 단양 한드미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42

THEME IN EXPERIENCE  
충북 | 체험여행

## 도담삼봉

Tel. 043-420-3544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봉로 644-13

단양팔경 중에서도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이 바로 도담삼봉이다. 유유히 흐르는 남한강의 물결 위로 세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났다. 삼도정이라 불리는 정자의 모습이 멋스럽다.

## 고수동굴

<http://www.kosu.or.kr/>

Tel. 043-422-3072

충북 단양군 단양읍 고수동굴길 8  
고수동굴관리사무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고수동굴은 화려한 내부를 자랑한다. 다양한 모양의鐘유석과 鐘유폭포, 수많은 석순과 유석경관이 발달해 웅장한 지하 궁전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 패러글라이딩

단양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내려다보는 경치가 즐기기도 유명하다. 검색을 하면 수많은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나오므로 짜릿한 경험을 원한다면 미리 예약하고 이용해 보자.

## 양백산 전망대

충북 단양군 단양읍 기촌리

양백산 전망대에 오르면 단양 시내의 모습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해질녘에 올라 단양의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마을  
체험하기



외국인 우프활동

마을 안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농촌의 일손을 도우며 여행하는 우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우프 활동을 하러 온 외국인들이 항상 두 세 명 정도 마을에 상주할 정도.



전통방식 삼국구이

커다란 구덩이 안에 불을 피우고 짐과 흙을 덮은 다음, 고구마, 달걀 등을 넣고 높은 열기로 쪄내는 삼국구이 체험이 독특하고 재미있다.



동굴탐험

마을의 계곡을 따라 20m 정도 올라가면 한드미 동굴이 보인다. 석회암 동굴로 한국의 자생박쥐도 살고 있다. 동굴을 탐험하며 톨소여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계절캠핑과 농촌유학

여름이면 맑은 물에서 뗏목을 타고 물놀이를 하고 겨울이면 쾡쾡 얼어붙은 빙판 위에서 썰매를 탄다. 나무목걸이 만들기, 미니수직기, 오색수제비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도담삼봉 > 점심 > 한드미마을 > 고수동굴 > 양백산 전망대

도담삼봉과 석문까지 여유있게 둘러보고 점심을 먹자. 마늘 요리가 유명한 단양이니 마늘술밥을 먹거나 한드미마을에 미리 점심 예약을 하고 가자. 한드미마을에 둘러 마을을 산책하고 계절체험을 하고 나면 시간이 훌쩍 지난다. 고수동굴에 들러 자연의 신비를 감상하고, 해질 무렵 양백산 전망대에 올라보자.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도담삼봉 > 점심 > 한드미마을  
둘째 날 : 고수동굴 > 점심 > 양백산 전망대 > 패러글라이딩

단양에 도착해 도담삼봉과 석문을 감상하고 점심을 먹자. 한드미마을에는 다양한 체험이 있어 하루가 금방 간다. 한드미마을 내의 펜션을 이용한다면 고즈넉한 시골 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잠을 청할 수 있겠다. 둘째날에는 고수동굴에서 지하 궁전의 신비로움을 감상하고 양백산 전망대에 올라 패러글라이딩을 해보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TRAVEL TIP

대중교통

서울의 동서충합터미널에서 출발, 단양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승차 (6:5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18:00까지 운행).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운임은 1만 3천원. 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 약 20분 소요, 택시비 약 1만원.

숙박

- 야생화펜션 : 043-422-2831 / 한드미 마을 내에 위치한 펜션이다.
- 한드미 캠핑장 : 043-422-2831 / 한드미 마을에서 여름시즌에만 운영한다.
- 자연향 펜션 : 010-4065-3334 / www.naturemint.net/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한드미길 30-20
- 대령리조트 단양 : 1588-4888 / www.daemyungresort.com/dy/  
단양읍 상봉로 187-17 단양대령리조트
- 그리다모텔 : 043-421-4120 / www.그리다모텔.kr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번호 129

먹거리

한드미마을 내에서 식당을 운영. 마을에서 생산되는 식재료와 천연 조미료를 이용해 음식을 차린다. 단체식단으로는 약선뷔페를 차려낸다. 단양 시내에서는 마늘술밥이나 마늘불고기, 마늘석갈비를 파는 식당들이 많다. 장다리식당이나 마늘석갈비마국수가 유명.

- 장다리식당 : 043-423-3960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봉로 370
- 마늘석갈비마국수 : 043-423-7575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단양로 510 강변삼터

통역가이드 정보

한드미마을의 실무자들은 영어에 능숙하여 영어로 체험진행이 가능하다. 외국인 우프체험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영어로 소통하며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한드미마을의 장점이다.



달오름마을 •



전라북도

## 흥부전의 의미가 체험속에 녹아있는

남원 달오름마을

지리산자락에 들어선 달의 기운이 유난히 강한 마을이 달오름마을이다. 인근에서 유래했다는 흥부전과 달오름을 테마로 한 농촌전통체험마을이다. 흥부전에 나오는 박에 밥을 담아서 각종 채소와 비벼먹는 흥부잔치밥이 이색적인 입맛을 선보인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인월서길 42							
체험	아름한과만들기, 아콘캐기, 흥부잔치밥, 풍등날리기							
문의	063-635-2231, <a href="http://dalorum.go2vii.org">http://dalorum.go2vii.org</a>							

달오름마을은 인월면 인월리의 구인월마을과 월평마을 2개의 마을이 농촌체험마을로 탈바꿈하면서 새롭게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이 동쪽을 향하고 있어 달이 뜨면 정면으로 달빛을 받아 달이 떠오르는 모습이 절경이며 달의 기운이 가득한 마을이다. 달오름마을이란 이름을 얻게 되는데는 이성계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온다.

고려말 영남을 거쳐 북진을 하던 왜장 아지발도와 이성계 장군이 황산에서 어두운 그믐밤에 대치를 하게 되었다. 이성계 장군이 달을 뜨게 해달라고 빌었더니 그믐밤에 보름달이 솟아올라 천지가 환해져서 화살로 적장을 죽이고 왜군을 모두 무찔러 승리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전쟁이 유명한 황산대첩이다. 이때부터 달을 끌어올린 마을이라 하여 인월(引月)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 마을 미리보기

보물로 지정된 실상사 3층석탑



## 이성계의 황산대첩 발자취가 남아있는 달오름마을

마을 입구에는 야외무대와 전통놀이체험장이 들어서 있다. 그네, 널뛰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야콘한과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향토식품가공체험장(농특산물판매장)이 마주보고 있다. 조금 걸어 올라가면 농산물가공체험장, 향토음식체험관 등이 들어서 있다.

이성계의 황산대첩 발자취를 찾아가자면 피바위를 만나야 한다. 달오름마을 입구의 용계교에서 아래로 흐르는 람천변을 따라 1분정도 걸어가면 하천변에 피바위가 보인다. 피바위는 이성계장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왜장 이지발도의 피가 물들어서 핏빛을 하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피바위가 있는 람천 건너편의 운봉면 화수리에는 황산대첩비가 남아있어 역사적 사실을 잘 말해준다.

마을 위쪽에는 흥부골자연휴양림이 있어 삼림욕을 즐기는 훌륭한 쉼터가 되고 있다.

- ① 가공체험장에서 야콘한과만들기
- ② 익은 조롱박 따서 말리기
- ③ 전통놀이 체험장에서 그네타기





## 홍부전의 산실에서 즐기는 달테마 체험



홍부잔치밥은 박에 각종 나물로  
밥 비벼먹기



땅속의 과일 구황작물 아콘

홍부전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타기체험을 하고 홍부잔치밥을 맛볼 수 있다. 홍부잔치밥은 밥그릇대신 박에 밥이 담겨 나온다. 밥 위에다 각종 채소와 나물을 올리고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주면 색다른 맛의 비빔밥이 되는 것이다.

달에게 소원빌고 달떡만들기, 박공예 등 홍부전과 박과 관련된 체험이 많다. 마을의 특산품으로는 아콘이 유명하다. 아콘캐기체험과 아콘이 들어간 아콘한과 만들기체험도 인기다. 아콘은 땅속의 과일이라 불릴만큼 건강에 좋은 구황식물이다. 아콘에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과 이눌린 성분이 풍부해 당뇨병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아콘은 다른 식품에 비해 다이어트 효과도 뛰어나다. 100그램당 57칼로리로 열량이 낮은 반면 포만감이 높아 배부름을 오래 유지시켜준다.

홍부골자연휴양림에서 삼림욕을 즐기는 가족



# 남원 달오름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광한루원

<http://www.gwanghallu.or.kr/>  
Tel. 063-625-4861  
남원시 요천로 1447

광한루는 연못을 앞에 둔 누정으로 마루 주위의 난간을 둘러쌌다.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담긴 오작교가 광한루 앞쪽에 자리. 이용룡이 광한루 구경길에 올랐다가 성춘향에게 반해 백년가약을 맺은 월매집도 볼만하다. 춘향의 절개를 기리는 춘향사당, 춘향관이 있어 춘향전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다.

## 뱀사골계곡

Tel. 063-625-8911  
남원시 산내면 와운길 10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뱀사골이란 지명은 송림사라는 사찰에 얽힌 이야기,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죽은 곳이라는데서 유래. 지리산의 고산준봉인 반야봉과 명선봉 사이의 울창한 원시림지대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시원하다.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이 특히 눈길을 끄는 지리산의 명소 중 한곳이다.

## 실상사

[www.silsangsa.or.kr](http://www.silsangsa.or.kr)  
Tel. 063-636-3031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구산선문 최초의 가람'으로 한국 선종의 발상지. 통일신라 828년(흥덕왕 3) 홍척이 구산선문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데서 비롯. 국보 백장암 3층석탑이 눈길을 끈다. 보물인 수철화상능가보월탑, 백장암 청동은입사향로, 철제어래좌상 등 11점의 보물도 만나보자.



## 흥부골자연휴양림

<http://흥부골자연휴양림.kr>  
Tel. 063-630-4032  
남원시 인월면 구인월길 125

жатна무군락지에 조성된 휴양림이라 삼림욕효과가 뛰어나다. 바래봉자락의 덕두봉계곡에 수령 5~60년생 잣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한 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펜션을 비롯해 원두막 방갈로, 오토캠핑장, 물놀이장 등을 갖추고 있다.



마을  
체험하기

## 아콘캐기 체험

땅속의 과일이라 불리는 아콘을 캐서 먹으면 한걸 건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1차로 트랙터가 지나가며 흙은 한차례 파헤쳐 놓으면 손쉽게 아콘을 캐 수 있다.



## 풍등날리기체험

한지를 이용해 풍등을 만든다. 완성된 풍등 위에 자신의 소원을 적는다. 풍등 아래쪽에 불을 붙이면 기압이 상승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



## 아콘한과만들기 체험

조그만 쌀 조각을 2차례 기름에 튀겨 부풀린다. 채에 받쳐 골고루 아콘 꿀을 발라준다. 쌀가루를 입혀주는 기계에 털어주면 맛있는 아콘한과가 완성.



## 달떡만들기 체험

쌀을 갈아서 찐 떡뭍치를 밀대로 밀어 납작하게 편다. 안에 팔안고를 넣고 겹쳐서 불인 후 플라스틱컵으로 눌러 반달모양으로 떼어내면 달떡이 완성.

추천  
여행코스

## 당일 코스

## 달오름마을 &gt; 점심 &gt; 흥부골자연휴양림 &gt; 실상사

오전에 달오름마을에서 체험을 한 후 점심을 먹는다. 체험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직접 맛보는 것도 좋다. 점심은 흥부전차밥을 먹어보자. 마을 위쪽에 자리한 흥부골자연휴양림을 둘러본 후 지리산 대표사찰인 실상사에도 가보자.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실상사 &gt; 점심 &gt; 흥부골자연휴양림 &gt; 달오름마을 &gt; 저녁 &gt; 풍등날리기체험

## 둘째 날 : 뱀사골계곡 &gt; 외운마을 지리산천년송 &gt; 점심 &gt; 광한루원

실상사를 돌아본 후 점심을 먹고 흥부골자연휴양림에서 삼림욕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 달오름마을에서 아콘캐기체험을 한 후 저녁으로 흥부전차밥을 먹고 풍등날리기체험을 한다. 이튿날은 뱀사골계곡과 계곡 위쪽에 자리한 외운마을의 지리산천년송을 찾아간다. 점심을 먹은 후 소설 춘향전의 무대인 광한루원에 둘러보자.

## TRAVEL TIP

## 대중교통

동서울터미널에서 인월행 버스이용, 인월시외터미널 하차.  
07:00~24:00 1일 8회 운행, 3시간 20분 소요, 인월시외터미널에서 남원행 버스 승차 후 옹계마을 입구에 하차. 걸어서 5분 소요, 택시 이용시 5분 소요, 요금은 3천원선.

## 숙박

- 달오름마을의 민박집을 이용한다. 063-635-2231
- 지리산토비스콘도 063-636-3663
- 흥부골자연휴양림 063-630-4032
- 캔싱턴리조트남원 063-636-7007

## 먹거리

인월면과 남원시내에 추어탕을 잘하는 식당이 있다. 뱀사골계곡 입구에 산채정식을 맛깔스럽게 내놓는 식당이 많다.

- 흥부골남원추어탕 063-636-5686 남원시 인월면 천왕봉로 62-8
- 새집추어탕 063-625-2443 남원시 천거길 9
- 일출산채식당 063-626-3688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799
- 뱀사골지리산식당 063-625-8800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로 271

## 통역기대도 정보

달오름마을이나 남원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가 없어 여행사 등을 통해 미리 통역을 구해야한다.



● 안덕마을

●  
전라북도

## 농촌체험도 하고 건강·힐링도 챙기고

### 완주 안덕마을

유명한 곳으로의 여행은 차도 막히지 사람도 많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좀 더 편안한 여행은 할 수 없을까?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줄 수 있는 참 휴식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온전히 쉬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건강과 힐링을 체험하는 마을을 표방한 전북 완주의 안덕마을로 떠나 보자.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장파길 72							
체험	힐링 어드벤처, 숲 산책, 한증막 및 썩뜸, 전통문화, 자연생태 등							
문의	063-227-1000 www.poweranduk.com							

음식도 힐링, 여행도 힐링, 요즘은 힐링이 대세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것을 힐링이라고 하는데, 여행도 이제 보고 먹고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편안함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때 묻지 않은 자연이 펼쳐지는 모악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는 안덕마을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건강힐링 체험마을을 표방한 곳이다. 마을 입구의 주차장에서 바라보면 오토캠핑장과 한옥, 황토방, 한증막, 힐링 어드벤처 시설 등이 눈에 들어오는데, 산과 산 사이에 포근하게 들어서 있어서 안덕이라는 마을 이름 그대로 편안함을 준다.

본래 이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증막 한 채만 있던 조용한 곳이었다. 2009년에 인근의 장파, 미치, 신기, 원안덕 등 네 개의 마을이 힘을 합쳐 마을 공동체 회사 안덕파워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개발을 시작해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특히 깨끗한 자연환경과 한증막, 민속한의원을 연계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힐링 체험마을을 내세워 현재는 다양한 체험학습도 병행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모악산 자락을 걷는 안덕마을 산책길



## 찜질도 하고 어드벤처도 즐기고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증막이다. 사실 이 한증막을 중심으로 마을이 이루어졌으니 안덕마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내부로 들어서니 도시의 찜질방처럼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준다. 넓은 휴게 공간이 있는데, 그 안쪽에 2개의 한증막이 있다. 사람들은 한증막에서 땀을 빼고 휴게 공간에서 편안히 쉬곤 한다.

한증막 옆에는 옛날 금광을 캐던 금광굴이 있는데, 굴 안으로 들어가면 금세 몸이 서늘해진다. 땀을 식히며 쉬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썩뜸실도 있다. 썩뜸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30~40분 정도 편안한 마음으로 썩뜸을 받고 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 썩뜸 체험은 오전 10시, 오후 2시와 5시에 진행하며, 요금은 1인당 5천원이다.

한증막은 24시간 운영되므로 숙박지로도 충분한데, 함께 운영하는 웰빙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면 된다. 친환경 농산물로 차려낸 뷔페식 건강밥상과 닭백숙과 오리백숙, 닭볶음탕 등의 요리를 낸다. 마을 할머니들의 손맛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안덕마을의 또 하나 독특한 시설은 힐링 어드벤처이다. 줄타기와 외나무 걷기, 공중 사다리 등 다양한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 어른들도 매달려 신나게 모험을 즐기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중 줄을 타고 허공을 날아가는 줄타기가 가장 큰 인기. 타잔이라도 된 듯 누구나 비명을 지르곤 한다.

- ① 황토 한증막은 24시간 운영된다.
- ② 인근 모악산 등산로
- ③ 스틸 넘치는 힐링 어드벤처





## 건강과 힐링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떡메치기로 스트레스도 풀고!

마을은 모악산 마실길 길목이다. 마침 마실길 걷기대회가 열렸는데, 참가자들은 향기 주머니 만들기도 하였다. 걸려 있는 소원들을 보니 건강, 행복, 사랑이라는 문구가 눈에 많이 띈다. 그런 바람을 적는 순간 이미 힐링이 되지 않았을까?

마을에는 황토방 네 동과 기와집,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어 건강과 힐링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하루쯤은 이곳에 머물자. 이중 기와집인 요초당은 옛날 서원 건물을 고스란히 옮겨온 전통 한옥으로 내부에는 최신 음향시설과 빔 프로젝트를 구비하여 세미나실로도 사용할 수 있어 단체가 이용하기에도 좋다.

단체로 방문할 경우에는 다도와 전통혼례 등 전통문화는 물론, 도자기와 목공 배우기, 천연염색과 두부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감자와 고구마 캐기, 오디 수확, 김장 체험 등 농촌마을 체험은 수확한 것을 가져갈 수 있어 인기가.



민속한의원

이밖에도 안덕마을에는 지네처럼 혈자리가 이어졌다고 해서 이름 붙은 지네 명당과 용이 솟아올랐다는 용안대, 소가 울고 넘어간다는 고갯길로 한국전쟁 때 많은 주민들이 숨진 울음터 등의 볼거리가 있다. 오로지 편안한 휴식과 건강을 위한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안덕마을로 떠나자.

# 53

요초당에서 열리는 힐링캠프



# 전북 완주의 안덕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54

THEME IN EXPERIENCE  
전북 | 체험여행

## 모악산도립공원

Tel. 063-222-7816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23

김제시와 완주군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793m이다. 산 정상에 어미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형태의 바위가 있어 '모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봄철 벚꽃 나들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전북도립미술관

[www.jma.go.kr](http://www.jma.go.kr)

Tel. 063-290-6888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111-6

모악산 입구에 있는 미술관으로 뒤에는 전북의 명산 모악산이, 앞에는 넓은 구이 저수지가 펼쳐져 있어 문화와 자연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 모악산 대원사

전북 완주군 구이면 모악산길 243 대원사

모악산 동쪽 종턱 해발 420m에 위치하는 고찰로 신라 때인 670년에 건립되었다. 불교 사찰이지만 증산교의 상제인 강일순이 수행하다 1901년 도를 이루었다고 해서 증산교의 성지로도 여기는 곳이다. 사찰로 오르는 길이 아름답다.



마을  
체험하기

## 전통 체험

요초당에서는 다도와 전통예절을 체험할 수 있으며, 전통혼례 및 회혼식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떡메치기와 다양한 민속놀이, 도자기 및 목공 체험도 마련되어 있다.



## 건강 체험

마을 뒤로 이어지는 숲길 산책과 지네 명당터 밭기 등 건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 한증막에는 찜숯 가마를 체험하고 썩뜸도 받을 수 있다. 산책로 중간에 있는 마을한의원에서 진료도 가능하다.



## 힐링 어드벤처

요초당 뒤는 힐링 어드벤처 공간이다. 좌와이어, 그네, 레일바이크까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제법 스릴을 느낄 만하다. 건강 힐링 마을답게 힐링캠ป์를 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



## 기타 체험

오디 따기, 감자와 고구마 수확 등 계절별로 알맞은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두부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김장 체험, 칼국수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죽염 된장과 감 효소, 찹쌀도 유명하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전주 &gt; 안덕마을 &gt; 점심 &gt; 모악산

안덕마을에서 미리 계획한 체험을 하고 웰빙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모악산으로 이동한다. 모악산 입구에서 대원사까지는 왕복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전주 > 안덕마을 > 점심 > 숲 산책 > 황토찜질방 및 썩뜸 체험  
둘째 날 : 안덕마을 > 모악산 대원사 > 점심 > 전북도립미술관 > 전주

첫째 날은 안덕마을에서 체험한 후 숲을 산책하고 황토 한증막에서 휴식 및 썩뜸을 한다. 둘째 날에 모악산 대원사까지 등산을 한 뒤 내려와 점심을 먹고 전북도립미술관을 관람한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1. 서울 → 전주 / ① 열차 : 용산역 KTX, 1일 10회 운행 ② 고속버스 : 센트럴시티터미널 05:30~24:00, 10분마다 1대 운행 ③ 시외버스 : 서울남부터미널 06:00~21:30, 약 30분마다 1대 운행
2. 전주 → 안덕마을 / ① 전주고속터미널에서 도보로 400m 국민은행 금암지점 정류장으로 이동 → 976번 버스 승차 → 원안덕 마을 하차 → 도보로 1km 안덕마을로 이동 ② 전주역에서 119번 버스 승차 - 팔달로 예술회관 하차, 976번 버스 환승해도 된다.

## 숙박

- 황토방 8평(주중 7만 원, 주말 10만 원) 2동, 10평(주중 10만 원, 주말 15만 원) 2동
- 파워빌리리전센(063-285-1200)
- 황토 한증막(063-221-4065, 입장료 8000원)이나 오토캠핑을 해도 된다.
- 요초당(15인 이나)에서도 숙박할 수가 있다.

- 인근의 안덕민속한옥타운(063-226-3666), 모악산 입구의 모악산모텔(063-222-2023~4) 등

## 먹을거리

- 웰빙식당(063-221-4065)에서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한 건강식을 제공한다. 건강밥상 6000원, 옷타과 옷오리, 닭볶음탕이 각각 45,000원이다.
- 모악산 입구(구이면 모악산길)에는 모악산 손두부(063-222-4321), 상학점(063-222-6939, 쌀밥정식), 옛촌보리밥(063-222-4008) 등 맛집이 많이 몰려 있다.

## 통역가이드 정보

통역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단체로 방문할 경우 가이드를 동행하는 것이 좋다.



●  
전라북도

## 힐링과 농촌체험의 1번지

### 완주 오복마을

어디로 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등등 여행을 할 때 따져보는 것들이다. 전북 완주군 경천면 오복마을로 간다면 그런 고민은 접어둘 수 있다. 언제 어느 때 가더라도 다양한 체험과 놀이, 식사와 숙박이 마을 안에서 다 해결이 된다.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면 되는 오복마을로 힐링을 하러 가자.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북 완주군 경천면 오복대석길 45							
체험	인성학교 체험, 농산물 수확, 전통놀이, 떡메치기, 천연염색, 미꾸라지 잡기, 편백 숲 체험 등							
문의	063-263-5555							

다섯 가지 복이 있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오복인데, 장수하고 부유하며 편안하고 덕을 지키는 것을 즐기고 제 명대로 살 수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혹시 이 마을에 들르면 오복의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이 일대를 경천애인 권역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권역이라는 뜻이다. 오복마을을 중심으로 경천면의 6개 마을이 힘을 모아 이 일대를 농촌체험휴양공간으로 만들며 붙인 명칭이다. 봄에는 저수지 아래에서 붓꽃을 구경하고 산나물도 채취할 수 있으며, 여름에는 하천과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고, 또 가을에는 수 천 그루의 감나무와 단풍 구경 및 각종 농사수확체험을 할 수 있는 곳, 겨울이면 다양한 민속놀이를 할 수 있는 사계절 농촌 휴양지로 이름이 났다.

마을 중심지에서 들판을 지나 구룡천을 건너면 경천애인 권역 활성화 센터가 나타난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은 물론 전통문화와 자연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인성학교, 대학생이나 일반인 단체를 위한 워크숍, 각종 체육대회, 음악회도 할 수 있다.

천연염색 체험 즐기기

마을  
미리보기



## 국내 최고의 농촌체험 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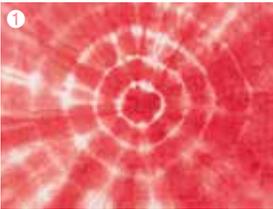
센터 앞으로는 만경강 최상류인 구룡천이 유유히 흐르는데, 징검다리 가 나 있어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신이 난다. 흰히 들여다보이는 물속에는 또 버들치, 참갈겨니, 피라미 등 1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해 나도 모르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손을 넣곤 한다.

센터 뒤쪽 들녘에서는 계절별로 감자와 고구마, 땅콩 캐기와 수세미 따서 만들기, 옥수수 따기, 감 따기와 꽃감 만들기 등 다양한 농산물을 수확해 볼 수 있다. 또 냇가 옆에 마련된 웅덩이에서는 미꾸라지나 메기, 송어 잡기 체험도 할 수 있다. 메기와 송어는 매운탕이나 구이로 먹을 수도 있고 작은 물고기는 냇가에 방생해 주면 된다.

약 1.5km 정도의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그 끝에는 시원하게 쪽쪽 자란 편백나무가 숲을 이룬다. 9,900㎡(약 3천 평) 규모나 되는 넓은 숲으로 들어서면 편백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가 도시에서 가져온 스트레스를 싹 날려 보낸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수확거리, 놀거리, 이야기거리가 있고 웰빙 음식까지 준비되어 있는 곳, 완주 꽃감과 복분자 등 지역 특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 오복마을은 가히 국내 최고의 '농촌체험 1번지'라 해도 좋을 것이다.

- ① 손수건 염색하기
- ② 메기잡기 체험





## 레포츠와 문화재 탐방도 풍성한 볼거리



마을에서 워크숍하는 사람들



고리 던지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풍선 터트리기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나 현재는 연간 1만 2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자리매김하였는데, 휴가철에는 숙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센터 측에서는 앞으로 숙박동을 추가로 짓고, 강당 등 시설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구룡천가에 있는 경천체육공원도 우리 센터에서 활용할 계획이에요. 축구나 농구, 배구 등 다양한 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 체육 동호인들도 많이 찾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 탐방도 하고, 화암사로 오르는 길가에 피는 야생화도 관찰할 수 있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센터 대표 김창준의 말을 듣고 나니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된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서경>에는 오래 살고(壽; 수), 부유하며(富; 부), 편안하고(康寧; 강녕), 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攸好德; 유효덕), 제 명대로 살다 죽는(考終命; 고종명) 것이 오복이라 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복이라고 한다. 오복마을의 오복은 그러나 산 좋고, 물 맑고, 음식 맛나고, 잠자리 편하고, 사람 인심도 좋은 다섯 가지 복이라고 해서 오복이 아닐까.

만경강수생과학관



# 전북 완주의 오복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60

THEME IN EXPERIENCE  
전북 | 체험여행

## 화암사

전북 완주군 경천면 화암사길 271

불명산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천년고찰로 신라 때 설총이 공부하고 원효, 의상대사가 수행했다는 유서 깊은 절이다. 400여 년 전 건립된 극락전은 국내에서 유일한 하양식 구조의 목조 건축물로 국보 제 316호로 지정되어 있다.

## 고산자연휴양림

rest.wanju.go.kr

Tel. 063-263-8680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사계절 가족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다. 휴양관에서 숙박도 가능하며, 각종 어드벤처 시설과 운동장, 족구장,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 위봉폭포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806

완주팔경의 하나로 60m의 폭포가 2단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다. 폭포 주변의 기암괴석과 울창한 숲이 빼어나며, 가까운 곳에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을 기념하는 웅치전적지가 있다.



## 무궁화 테마식물원

Tel. 063-240-4178

전북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89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국내 자생종 70여 종, 개량종 130여 종의 무궁화를 보유하고 있다. 무궁화동산과 아열대식물원, 난대성식물원, 무궁화전시관 등 다양한 테마의 식물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 마을 체험하기



### 계절별 농산물 수확체험

여름에는 감자 캐기와 옥수수 따기, 가을에는 고구마 캐기와 땅콩 캐기, 그리고 낫감 깎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30명 단위로 체험을 진행하므로 예약 필수.

### 농촌문화 체험

경천애인 활성화 센터 앞 잔디밭에서 진행되는 체험으로 줄다리기와 단체 줄넘기, 널뛰기, 투호 던지기, 고리 던지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가 마련되어 있다.



### 편백나무 숲 체험

활성화센터 남쪽 산자락에 있는 편백 나무 숲을 다녀오는 체험이다. 산길을 따라 산책을 하면서 삼림욕을 할 수 있다. 현재는 도보로 왕복 1시간이지만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하여 트랙터를 운행할 계획.



### 떡메치기

상시 체험으로 단체는 물론 개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떡메치기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일정 양이 되어야 하므로 체험 인원이 최소 30명이 되어야 진행된다. 개별적으로 체험할 경우 미리 예약하는 것이 필수.

##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 오복마을 > 점심 > 화암사 > 고산자연휴양림 > 무궁화 테마식물원

오전에 경천애인 활성화센터에 들러 체험을 한 후 오후에 화암사 - 고산자연휴양림 - 무궁화 테마식물원의 순으로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화암사는 입구의 주차장에서 경내까지 왕복 1시간은 잡아야 한다. 이후 전주 방면으로 가다 고산자연휴양림과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보면 된다.

### 첫째 날 : 오복마을 > 체험 > 점심 > 편백나무 숲 산책 > 1박

### 둘째 날 : 체험 > 화암사 > 점심 > 고산자연휴양림 > 무궁화 테마식물원

첫째 날은 오복마을에서 보낸다. 오전에 농산물 수확이나 전통문화를 체험한 후 오후에는 편백나무 숲을 산책한다. 둘째 날은 오전에 오복마을에서 체험 한 가지를 한 후 화암사를 관람한다. 점심 식사 후에는 고산자연휴양림에 들르고 귀가하여 마무리한다.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전주한옥마을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 서울 → 전주 / ① 열차 : 용산역 KTX, 1일 10회 운행 ② 고속버스 : 센텀시티터미널 05:30~24:00, 10분마다 1대 운행 ③ 시외버스 : 서울남부터미널 06:00~21:30, 약 30분마다 1대 운행
- 전주 → 오복마을 / 전주시외버스터미널(완산동)에서 금산행 시외버스(06:40, 09:00, 09:40, 14:20, 15:50) 탑승 → 경천면 하차 → 도보로 오복마을로 이동

### 숙박

- 센터 내에 초가집 9채와 구들장 5개, 황토집 2채가 마련
- 황토집 : 경천면실/ 15인 수용, 25만 원, 별관 및 세미나실/ 20인 수용, 30만 원
- 초가집 : 한 채 당 10만 원, 총 60인 수용, 8인실(3채) 12만 원, 6인실(6채) 10만 원, 구들장실 5인실(1채) 10만 원, 4인실(4채) 8만 원

### 먹거리

- 센터 내에 대규모 식당에서 웰빙 식단 제공.
- 마을에 정승택(063-262-7738, 순두부), 오복식당(063-261-8197, 한식), 청산가든(063-261-9696, 한식) 등의 식당.

### 투어

#### 통역가이드 정보

통역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단체로 방문할 경우 가이드를 동행하는 것이 좋다.



두마리목장 ●

●  
전라북도

## 산양 먹이주고 치즈도 만들고

### 임실 두마리목장

치즈가 서양 식품이라고? 천만에! 전북 임실에 가면 이미 50년 전부터 치즈를 만들어 온 치즈마을이 있으니 우리 식품이라고 해도 충분하다. 임실치즈는 벨기에에서 온 지정한 신부가 처음 만들었는데, 산양 두 마리를 키워 짜낸 우유로 만든 것이 시초이다. 그때 그 산양 두 마리를 추억하며 치즈와 요거트, 산양유 비누를 만드는 곳이 두마리목장이다. 치즈마을과 두마리목장으로 출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북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 치즈마을길 193							
체험	산양 먹이주기, 산양유 비누 만들기, 치즈 만들기 등							
문의	063-644-7590, <a href="http://www.doomari.com">http://www.doomari.com</a> 임실치즈마을 정보센터 063-643-3700 <a href="http://cheese.invil.org">http://cheese.invil.org</a>							

우리나라에서 치즈를 처음으로 생산한 전북 임실군 임실치즈마을에는 두마리목장이 있다. 목장 이름이 왜 '두마리'일까 궁금해지는데, 여기에 바로 임실치즈의 역사가 숨어 있다. 임실에서 치즈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6년. 벨기에에서 온 지정환 신부(디디에 세스테벤스)에 의하여 만들어졌는데,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산양 두 마리를 키워 얻은 산양우유였다.

두마리목장은 임실치즈가 시작된 치즈마을에 위치한다. 임실치즈가 유명해진 뒤 곳곳에 치즈마을을 자처하는 곳이 생겼지만 임실역에서 가까운 임실읍 금성리의 임실치즈마을이 원조이다. 원조는 뭔가 다른 법,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치즈마을'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를 대변해 준다. 그 속에 치즈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 즉 눈앞의 이익보다는 사람들에게 바른 먹거리,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두마리목장의 꿈도 그와 다르지 않다. 치즈를 직접 만들어보는 이색체험으로 자연과 더불어 여유를 즐겨보자.

자연에서 목초를 먹고있는 산양



## 치즈 부부의 작은 꿈

본사 뒤편에 목장이 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흔히 떠올리는 목가적 인 풍경은 아니다. 농가에서 몇 마리 키우고 있는 느낌이랄까. 건초를 집어 가까이 다가가니 산양들은 의심스러워하던 눈초리를 풀고 한 마리 두 마리 슬슬 다가온다.

“산양은 아주 순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하기에 좋지요. 처음엔 무서워하다가도 먹이주기와 젓짜기를 해보면 금세 친해져서 좋아해요” 목장의 안주인인 유덕자 씨의 말이 믿음이 간다.

2015년 10월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서 주관한 제4회 자연치즈 콘테스트에서 유덕자 씨는 숙성치즈 부문 대상과 신선치즈 은상을, 남편 심요섭 대표는 신선치즈 부문 대상을 각각 받았다.

“우리 부부가 대상을 휩쓰니까 다들 너무 욕심이 많다며 놀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최고의 치즈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서 받은 것이니까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더욱 맛난 치즈를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도 생기고요.”

유덕자 씨는 치즈나 요거트는 아이들이 많이 먹는 것이므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겠단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치즈 마을’이라는 문구가 다시 한 번 오버랩된다.

두마리목장에서는 산양유를 이용하여 요거트와 치즈, 산양유 비누 등을 만드는데, 두마리목장이라는 브랜드로 여러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양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므로 생산량은 많지 않지만 품질과 맛이 뛰어나 고객들의 반응은 뜨겁다.

- ① 두 마리목장의 고다치즈
- ② 치즈를 이용해 간단히 만드는 핑거푸드





## 산양과 친해지고 치즈도 만들고



두 마리목장 본사



치즈 제조 과정

산양 먹이주는 것은 물론 산양유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가 주된 프로그램으로 특히 산양유 비누는 각종 천연재료와 꿀을 섞어 피부 관리에 좋은 효과가 있다 한다. 체험은 마을 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청대와 유노하나, 딸기가루, 숯가루 등 다양한 재료의 산양유 비누를 직접, 혹은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다.

두마리목장에 들른다면 치즈마을 기본체험도 필수. 모짜렐라 치즈체험은 경운기 타기와 치즈 만들기, 치즈돈가스 점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정 인원이 돼야 진행하므로 예약이 필요하다.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세 차례가 있다. 비용은 1인당 식사 포함 1만 9천원이며, 소요시간은 3시간이다.

이밖에도 치즈마을에서는 피자 만들기, 송아지 우유주기, 퀘소치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 치즈마을에서 치즈도 만들고 두마리목장에서 산양유 비누 만들기과 산양 먹이주기를 하다 보면 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된다.

치즈마을 인근에는 임실치즈마을 테마파크가 있는데, 임실치즈를 연구하여 임실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학습 및 판매를 하는 곳이다. 유럽의 어느 지방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치즈캐슬도 볼 수 있어 검사검사 들르면 좋은 추억으로 남으리라.

온순한 산양에게 먹이주기 체험



# 전북 임실의 두 마리목장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66

THEME 01 EXPERIENCE  
전북 | 체험여행

## 임실치즈테마파크

[www.cheesepark.kr](http://www.cheesepark.kr)

063-643-2300

전북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

임실치즈마을 인근에 있는 치즈테마파크이다. 치즈캐슬을 중심으로 치즈에 대한 다양한 체험이 진행되는 체험장, 유가공공장, 치즈과학연구소, 특산물 판매장 등의 시설이 있다. 동화 속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는 테마포토존, 음악분수대와 썰매장 등 유럽풍의 건물들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사선대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68-7

옛날 마이산의 두 신선과 운수산의 두 신선 이 곳에서 놀았다고 해서 사선대라고 불린다. 강은 까마귀 떼가 날아와 놀던 곳이라 오원강이라고 한다. 강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조각공원, 운서정 등의 볼거리가 있다.

## 옥정호

전북 임실군 운암면, 강진면

임실군 운암면, 강진면과 정읍시 산내면, 산외면에 걸쳐 있는 호수로 섬진강 다목적댐을 건설하며 생긴 호수이다. 운암호라고도 불리는데, 호수를 따라 달리는 길은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이름이 자자하다. 특히 국사봉 전망대와 운암대교는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이다.



마을  
체험하기



산양 목장 체험

비누가 굳는 동안 목장에서 산양 먹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산양은 염소에 비하여 유순한 편이라고 하나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 주의해야 한다.



산양유 비누 만들기

비누의 원재료는 코코넛과 팜이며, 여기에 보습에 좋은 호호바와 시어버터, 동백유, 콩에서 추출한 글리세린, 비타민E가 포함된다. 이렇게 만든 천연 비누는 일반적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사용하면 된다.



치즈 만들기

임실치즈마을에서 대표적인 체험이다. 우선 치즈마을 정보센터에 체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최소 20명 이상일 경우 진행. 치즈돈가스식사+경운기타기 체험+모짜렐라 치즈만들기 패키지.



선택 체험

치즈마을 선택체험으로 오븐 쿠키 만들기, 방앗간 교육, 피자 체험, 송아지 우유주기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다. 우유 주기의 경우 하루 네 번(10:30, 12:30, 14:30, 16:30) 진행.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임실치즈마을 정보센터 > 점심 > 기본체험 > 두마리목장(선택체험)

임실치즈마을 당일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기본체험이 오전 10시부터 세 시간 진행된다. 점심으로는 치즈돈가스가 제공된다. 이후 두마리목장으로 이동하여 산양 목장을 관람하거나 체험을 하면 된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임실치즈마을 정보센터 > 기본체험 > 두마리목장 > 치즈마을(숙박)

둘째 날 : 임실치즈테마파크 > 사선대 > 옥정호

첫째 날은 임실치즈마을에서 기본체험과 선택체험을 한 후 마을 내(혹은 임실읍)에서 숙박을 한다. 둘째 날에는 인근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관람한 뒤, 사선대를 찾아가다. 사선대에서 점심을 든 뒤 옥정호 드라이브로 마무리한다.

TRAVEL TIP

대중교통

1. 서울 → 임실 ① 시외버스 / 남부터미널 06:30~19:10, 1일 18회 운행, 동서울터미널 09:00, 10:00, 15:20 ② 열차 / 용산역(호남선) 무궁화호 06:55, 09:05, 13:23, 15:25, 18:12  
2. 임실 → 두마리목장 ① 임실버스정류장 / 농어촌 버스(신흥촌, 중금, 금당) 승차 → 중금정류장 하차 → 도보로 5분 두마리목장 도착(첫차 06:50, 막차 18:30, 1일 4회 운행) ② 임실역 / 도보로 10여 분, 택시 이용 가능

숙박

● 임실치즈마을 내의 치즈펜션(063-643-3700), 시온펜션&카페(063-643-4788) 등  
● 임실읍의 귀빈호텔(063-644-2277) 등

먹거리

● 임실치즈마을 단체식당(치즈돈가스, 8000원), 산들미향(063-644-2811, 치즈돈가스, 치즈된장찌개), 금성가든(063-642-2928, 치즈돈가스, 고품어백반)  
● 사선대 근처 호수정(063-643-7339, 한방오리, 매기매운탕) 등

통역가이드 정보

임실치즈마을 정보센터에 영어 소통이 가능한 인력은 있으나 전문 통역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 가이드를 통하여 체험여행이 이루어진다.



애농영농조합

●  
전라북도

## 파릇파릇 새싹나라로의 초대

### 진안 애농영농조합

전북 진안의 애농영농조합은 말 그대로 농업을 사랑하고자 만든 법인기업이다. 농업은 국가의 근본이며, 국민 건강은 국가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어린잎 채소에 주력하여 생산과 가공, 판매는 물론 체험까지 아우르는 6차 산업의 명소로 떠올랐다. 파릇파릇한 새싹의 나라 애농영농조합에는 과연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하평길 16-26							
체험	새싹 수확 체험, 새싹 비빔밥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잼 만들기 등							
문의	063-244-2154 www.aenong.com							

1차 산업과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까지 한꺼번에 병행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한다. 전북 진안의 애농영농조합은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6차 산업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기업인데,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은 농업 부문에서 이룬 성과이니 더욱 값지다.

“일본에 유학할 때 병해로 쌀 생산량이 급감하자 사람들이 쌀을 구입하려고 난리가 났던 때가 있었어요. 순간 식량이 무기가 되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뒤 2004년 귀국해 고향 진안으로 내려와 어린잎 채소 재배에 뛰어들었습니다.”

천춘진 대표는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요 국민건강은 국가의 미래’라는 일념으로 애농을 설립하였다.

농부가 아닌 그는 여러 번 실패하였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다. 좋은 직장 마다하고 진안으로 내려올 때 우리나라 농업과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지 않았던가. 하여 음식점과 예약장, 학교 등지를 찾다니며 판매처 확보에 나선 결과 슬슬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새싹을 이용하여 개발한 다양한 음식



마을  
미리보기

## 어린잎 채소 왜 좋을까?

어린잎 채소는 브로콜리와 보리눈, 밀눈, 무, 유채싹 등 수십 가지에 달하는데, 큰 채소에 비해 비타민과 무기질이 3~5배 많고, 씨를 뿌린 후 2주면 수확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게다가 싹이 크기 전에 잘라내므로 병충해를 입을 염려도 적고, 그래서 농약을 사용하지도 않는 친환경, 웰빙 채소다.

성공의 문으로 들어섰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어린잎 채소가 각광을 받으면서 너도나도 재배에 뛰어드는 바람에 판로 확보와 수익성에 한계가 왔던 것이다. 그때 생각한 것이 재배 면적당 수확을 늘리고, 가공과 판매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수없이 실패한 끝에 드디어 재배 면적당 생산량을 기존보다 두 배나 늘리는 데에 성공하였고, 매장들도 점점 살아났다. 이에 힘을 얻은 천춘진 대표는 납품처를 늘려나갔으며, 친환경 인증을 얻은 후에는 아이쿱(COOP)생협에도 어린잎 채소를 공급하게 되었다.

그뿐만 되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천 대표는 그에 안주하지 않았다. 어린잎으로 과자와 잼을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린잎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어린잎 케이크와 잼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방문객은 매년 늘어나 2015년에는 수천 명이나 다녀갔다. 현재 농장은 본사를 포함 여섯 곳으로 늘었고, 매장도 5개의 직영점과 2개의 가맹점 등 7개까지 불어났다.

- ① 포트를 이용하여 새싹 키우기
- ② 애농영농조합의 천춘진 대표
- ③ 파릇파릇한 새싹이 자라고 있는 농장





## 애농에 가면 나도 요리사



어린이 채소의 메카로 견학 온 사람들



새싹은 10cm 미만일 때 수확

본사 옆의 비닐하우스 단지가 바로 어린이 생산 농장이다. 안으로 들어서니 연둣빛 새싹이 가득하다. 이렇게 땅에 직접 뿌려 재배한 것은 일일이 칼로 베어 수확한다.

“졸업하면 이 농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농약도 하지 않고 냄새나는 거름도 하지 않아 깨끗하니까요. 또 어린이 채소는 건강한 먹거리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 보람도 크겠죠.”

인근 학교에서 실습하러 온 여학생이 웃으며 말하였다.

학생들은 체험이 재미있다고 한다. 시중에서 맛보던 새싹 비빔밥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야채가루를 섞은 고구마 잼이나 케이크를 만드는 것도 흥미로워서 모두들 요리사가 된 듯 진지하다.

직접 이곳에 오지 않아도 시중에서 애농 제품을 만날 수가 있는데, ‘순수람’이라는 상표로 판매된다. 쿠키와 잼, 과자, 젤리, 카레 등 수십 가지가 나와 있다. 최근에는 새싹을 말려 분말로 만든 새싹차를 출시하였는데, ‘새싹을 마시茶’라는 브랜드로 판매중이다.

“국내산 농산물만 사용하는 카레팩토리 100호 점을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해외 수출 판로도 개척해야지요. 이것이 우리나라 농업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춘진 대표의 말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한다.

새싹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



# 전북 진안의 애농영농조합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72

THEME IN EXPERIENCE  
전북 | 체험여행

## 마이산도립공원

Tel. 063-430-8751~5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말의 귀처럼 생긴 봉우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의 봉우리가 솟대이 봉으로 높이는 680m, 서쪽의 암마이 봉은 686m이다. 등산로는 남쪽과 북쪽에 있는데, 어느 쪽으로 오르든지 반대 방향으로 하산하면 더욱 멋있다.

## 탐사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마이산 남쪽으로 있는 사찰이다. 구한말 이갑룡 처사가 신의 계시를 받고 쌓았다는 돌탑은 팔진도법과 음양이치법으로 쌓아서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갑룡은 불교신자는 아니었으나 훗날 법당이 들어서며 탐사라는 사찰로 승격되었다.

## 진안역사박물관

Tel. 063-430-80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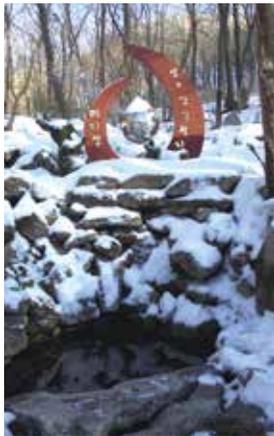
전북 진안군 진안읍 내사양길 7

용담다목적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유물을 발굴하여 보존, 전시하는 곳으로 진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매사냥과 물고기 잡이에 관련된 유물들은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입장료 무료, 관람 오전 9시~오후 6시.

## 데미샘과 천상데미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길 172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섬진강 발원지로 백운면 신암리 원신암 마을을 지나 북쪽으로 오계치 고개를 향하여 오르다 오른쪽 계곡에 위치. 그 위로 바라다 보이는 봉우리는 해발 1081m의 천상데미이다.



마을  
체험하기



새싹 비빔밥 만들기

농장에서 새싹을 채취하여 비빔밥을 만든다. 밥에 원하는 양의 새싹을 넣은 뒤 초고추장을 섞어 비비면 끝~. 체험과 함께 식사도 해결. 깎두기나 김치, 콩나물국 등이 제공된다.



새싹 수확

농장에는 다양한 새싹이 자라고 있다. 칼을 이용하여 직접 수확해볼 수 있고, 포트에 재배한 것들은 반자동화 시설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수확한다. 어린잎 채소는 비타민채, 적양배추, 일채, 비트, 청경채가 주류를 이룬다.



잼 만들기

고구마와 새싹 가루를 이용하여 맛난 잼을 만든다. 먼저 고구마를 찐 뒤 올리고당과 1대 1로 섞는다. 여기에 야채가루를 넣어 으갠 후 조리 기구에 넣고 불에 조리하면 달콤한 잼이 완성. 조리 때 눌러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



케이크 만들기

준비된 빵에 생크림을 발라 케이크를 만든 뒤 어린잎과 새싹으로 데코레이션을 한다. 다양한 행태와 무늬를 꾸미는 재미가 쏠쏠하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애농영농조합 > 점심 > 마이산 탐사

애농영농조합 근처에는 식당이 없으므로 오전에 관광 및 체험을 한 뒤 진안이나 마이산 입구로 나와 점심을 먹는다. 이후 마이산 탐사를 관광하고 마무리한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진안 > 애농영농조합 > 점심 > 진안역사박물관 > 마이산 북쪽 매표소

둘째 날 : 마이산 남쪽 매표소 > 탐사 > 점심 > 데미샘 > 천상데미

첫째 날은 애농영농조합에서 체험을 한 후 진안역사박물관을 둘러보고 마이산에 오른다. 둘째 날에 탐사를 관광하고 점심을 하고 이동하여 데미샘과 천상데미를 다녀온다. 천상데미는 제법 산이 높으므로 굳이 정상까지 갈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TRAVEL TIP

대중교통

- ① 서울 → 진안 / 고속버스 : 센트럴시티터미널 10:10, 15:10 ② 전주 → 진안 / 직행버스 06:50~21:30, 1일 50회 운행
- 진안 → 애농영농조합 / 진안공용버스터미널에서 농어촌버스(진안-모래재) 탑승 → 하평 정류장 하차 → 400m 도보 이동

숙박

- 마이산도림공원 내의 마이산콘도펜션(063-432-4201), 데미샘 부근 데미샘펜션(063-432-9004) 등 펜션과 모텔, 여관이 많이 있다.
- 진안읍의 홍삼빌 호텔(063-433-0394)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양생목적령 스파인 홍삼스파와 함께 할 수 있는 고급 숙박지이다. 4인용 10만 원이며, 스파 이용권은 할인 구입할 수 있다.

먹거리

- 새싹 비빔밥 만들기 체험을 하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
- 진안읍의 진안관(063-433-2629)은 진안 명물 애저뽕으로 유명.
- 마이산 입구에 등갈비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초가정담(063-432-8840), 벚꽃마을(063-432-2007), 늘푸른집터(063-432-9039), 마이산 풍경식당(063-432-6611) 등

통역가이드 정보

영어와 일어는 물론 중국어 통역도 가능하다. 단, 예약은 필수. 가족 단위의 방문도 환영!



두모마을

경상남도

##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농촌체험휴양마을

### 남해 두모마을

남해 두모(豆毛)마을은 금산자락에 들어서 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이 드므개(큰 항아리에 물이 담긴 형상)를 닮았다 하여 옛부터 드므개 마을이 되었고, 현재는 두모(큰 바다를 담고 있는 항아리 모양)라고 마을 명칭이 변하였다. 농촌체험과 어촌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매력적이다. 봄에 계단식 논에 유채가 만개하면 유채꽃축제가 열린다. 갯벌에서 바지락캐기 체험을 비롯해 해양스포츠인 카약 체험, 스노클링 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533번길 18							
체험	카약 체험, 스노클링 체험, 바지락캐기 체험, 모터보트 체험 등							
문의	055-862-5865 www.do-mo.co.kr							

바다와 금산이 만나는 언덕에 자리한 두모마을은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1급수 하천에 은어와 참게, 민물장어 등이 살고 있다. 바다에서는 바지락과 고동, 해조류, 각종 어류가 함께 잡힌다. 한 마을에서 바다에 사는 바다고기와 민물에 사는 민물고기를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마을전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금산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약이 많다보니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그로인해 다양한 생물이 살기에 더욱이 좋은 조건이다.



남해금산 부소암에서 바라본 두모마을 노을



## 유채꽃축제와 다양한 바다체험

금산 자락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계단식 논은 4월 초 중순경 유채꽃 노란 물결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답다.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이 시기에 유채꽃축제가 성황을 이룬다. 연중 썰물 때 물이 빠지면 바지락캐기 체험을 하기에 좋다. 모래가 대부분이라서 펄이 묻지 않아 운동화를 신고도 편하게 바지락을 캐 수 있어 매력적이다. 신발이나 옷을 망칠 부담이 없어 체험활동이 한결 가볍다. 미리 예약을 하여 물때를 확인 후 제대로 체험을 즐기자.

바다에서 하는 체험으로는 카약 체험이 제일 인기가 높다. 천천히 노를 저으며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여유로움이 좋다. 모터보트 체험, 스노클링 체험, 바다낚시체험도 해볼 수 있다. 영농체험으로는 12~2월에 시금치 수확체험이 가능하다. 5월초에는 마늘종 뽑기체험, 5월중순 마늘 수확체험, 10월초에 벼농사체험을 해볼 수 있다.

- ① 남해금산 제석봉에서 바라본 보리암
- ② 남해 독일마을
- ③ 바다에서 바라본 두모마을과 남해금산





독일마을과 그 앞으로 펼쳐진 물건항

##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자리한 남해



부소암에서 바라본 두모마을 전경

한려해상국립공원이 들어서 있는 남해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끄는 곳이 많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금산지구에 금산, 상주해수욕장, 노도 등이 속해있다. 금산에 자리한 보리암은 금산에서 기도의 기운을 가장 잘 받는다고 알려져 소원을 비는 이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진다. 부소암은 금산 서남쪽에 우뚝 솟은 큰 바위로, 두모마을의 계단식 논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상주해수욕장은 남해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고운 모래와 드넓은 송림으로 인해 언제 찾아도 편히 쉬기에 좋다.



바다낚시에 즐거운 체험객

# 남해 두모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78

THEME 01 EXPERIENCE  
경남 | 체험여행

## 금산 부소암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93번지

부소암은 금산 서남쪽에 우뚝 솟아 있는 거대한 바위이다. 계단식논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다.

## 보리암

Tel. 055-862-6115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금산의 남쪽 봉우리에 자리한 보리암은 강화도 보문사, 낙산사 흥련암과 더불어 대한민국 3대 기도처로 알려져 있다

## 상주해수욕장

Tel. 055-863-3573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0-3

상주해수욕장은 부채꼴 모양의 해안 백사장, 눈앞에 펼쳐진 작은 섬들은 바다를 호수모양으로 감싸고 있어 아늑한 느낌이다.

## 노도

Tel. 055-862-5864

경남 남해군 상주면 노도길 1-1

마을 앞에 떠있는 노도는 서포 김만중의 유배지로 백련마을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김만중의 문학세계를 엿볼 수 있다.



마을  
체험하기



바지락 캐기 체험

넓은 갯벌에서 바지락 외에도 고동, 게, 소라 등 다양한 생물을 채취해 볼 수 있다. 모래가 많은 갯벌이라 신발이나 옷에 펄이 잘 묻지 않아 체험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카약 체험

아이들에게 모험심을 길러주고 어른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스릴감을 안겨주는 스포츠가 카약이다. 직접 카약을 타고 노를 저으며 바다의 파도를 체험해보는 재미가 색다르다.



스노클링 체험

깨끗한 남해 두모마을의 바닷물 속에 얼굴을 담근 채 수중 세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바닷속에 사는 성게, 물고기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 보자.



모터보트 체험

바다위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단번에 사라진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즐기는 행복체험이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상주해수욕장 > 점심 > 두모마을 > 독일마을 > 물건방조어부림

오전에는 두모마을에서 바지락캐기체험과 카약체험을 한다. 점심을 먹고 상주해수욕장 송림숲에서 휴식을 취한다. 독일마을에서 마을 앞쪽 바닷가에 자리한 물건방조어부림까지 산책을 한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상주해수욕장 > 점심 > 두모마을 > 독일마을  
> 물건방조어부림 > 저녁 > 나비 & 더 테마파크 야경  
둘째 날 : 남해금산 산행(부소암-보리암) > 노도

오전에는 남해 금산 산행을 한다. 두모마을 입구의 두모계곡 주차장에서 남해 금산 등산로를 따라 2.3km를 오르면 두모마을이 하늘에 내려다보이는 부소암이 나온다. 1시간 20분 소요. 부소암에서 보리암까지는 걸어서 20분 소요. 보리암에서 금산 정상까지 300m(10분) 소요. 산행이 부담스럽다면 마을버스나 택시로 복곡주차장까지 이동 후 15분 정도 걸으면 보리암이다.

TRAVEL TIP

대중교통

서울 남부터미널 : 남해행 시외버스(07:00~19:00, 1시간~1시간 30분간격)승차 - 남해시외터미널에서 상주, 미조행(06:30~20:20, 30분~1시간 간격 운행) 탑승 후 두모마을 입구 하차 - 도보 10분. 두모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버스는 1일 4회(06:30, 09:50, 13:10, 17:30)운행.

숙박

두모마을에서 운영하는 드므캐펜션과 체험관에서 숙박할 수 있다. 055-862-5865. 마을에서 운영하는 아영정(055-862-5865)을 이용할 수도 있다.

- 남해핀백자연휴양림 055-867-7881(성수기 제외일 매주 화요일 휴무)
- 남송가족관광호텔 055-867-4710
- 갯마을펜션 055-864-5050
- 하얏트모텔 055-863-1296
- 갯마을모텔 055-863-5035

먹거리

단체 30인 이상이 두모마을에서 숙박할 경우에 한해 식사 제공. 시골밥상 8천원, 산채비빔밥 1만원. 겨울철에는 물메기탕을 1만원에 맛볼 수 있다. 예약 필수

- 사람채식당 055-863-5244
- 원천회집 055-862-4901
- 남해 미담 055-864-2277

통역기대 정보

미리 예약시 마을 내에서 영어, 일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됨.



● 비봉내마을

● 경상남도

## 다양한 대나무체험이 즐거운 마을

### 사천 비봉내마을

비봉내마을은 대나무숲에서 즐기는 죽림욕과 대나무 관련 체험이 풍성한 마을이다. 대나무뗏목을 타고 즐기는 비봉천 탐험도 인상적이다. 계절별로 다양한 농사체험이 이어지고, 체험장 실내에서는 치즈만들기, 딸기잼만들기, 인절미만들기 등 음식을 만들어 먹는 체험도 즐겁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상정마을길 139							
체험	대나무피리만들기, 뗏목타기, 딸기따기, 고구마캐기							
문의	055-854-5111 / 010-4032-5111 www.beebong.co.kr							

대나무하면 으레 전남 담양을 떠올리지만, 경남 사천에도 멋진 대나무숲이 있다.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의 비봉내마을에는 3만3천여㎡에 이르는 드넓은 대나무숲이 자리하고 있다. 하늘을 가릴듯 20여m의 높이의 대나무가 빼곡히 들어서서 바람이 출렁대며 '서걱서걱' 소리내며 방문객에게 인사를 한다.

대밭고를 대나무숲에서 대나무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다. 대나무로 만든 정자와 그네가 앙증맞다. 왕대나무숲을 거닐며 죽림욕을 하다보면 맑은 공기에 가슴속까지 상쾌해진다.

마을 입구에는 느티나무에 그네를 메어두어 그네를 타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비봉내마을에는 체험관과 민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마을옆을 가로지르는 비봉천에서는 대나무뗏목타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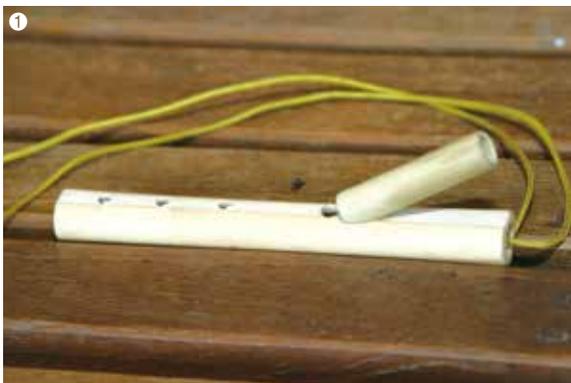


체험에서 만들어 완성된 대나무피리



## 대나무숲에서 죽림욕을 즐기고 대나무 체험도 재미

대나무숲에서 하는 대나무피리 만들기체험이 재미있다. 대나무로 만든 피리에서 소리가 나자 어린이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대나무 뗏목을 타고 나가 비봉천을 탐험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모험심을 기르는데 더없이 좋다. 협동심을 기르며 환경의 중요성을 배우고, 수생생물의 생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뗏목타기 체험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한다. 수심은 허리나 발목 높이로 낮은 편이지만, 넘어졌을때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다.



- ① 만들기체험으로 완성된 대나무피리
- ② 비봉내천에서 뗏목체험





고구마 수확 체험

## 계절을 느껴보는 다양한 농사체험

대나무밭을 산책하는 가족



계절별로 다양한 농사체험을 해볼 수 있다. 딸기, 매실, 옥수수, 방울 토마토, 감 등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따서 먹어보고 수확해보는 체험을 통해 농촌의 삶을 제대로 엿볼 수 있다.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는 딸기따기체험이 인기가 높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인 데다 하우스 재배로 인해 수확기간이 길어서 체험기회가 많아졌다. 체험장 실내에서는 치즈만들기, 딸기잼만들기, 인절미만들기, 짬뽕공예 등을 해볼 수 있다.

체험관 입구의 놀이터에서 그네타기



# 사천 비봉내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실안선상카페

Tel. 055-832-8285  
사천시 해안관광로 381-3

삼천포대교에서 실안해안도로를 따라 나오면 바다 위에 낮익은 선상카페가 떠있다. 드라마 [환상의 커플]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사진작가들의 촬영포인트가 된 곳이다. 파란 바다와 어우러진 낮풍경도 좋지만, 바다 위로 조명이 수놓는 야경의 반영이 특히 아름답다.

### 창선.삼천포대교 사천시 대방동

창선.삼천포대교는 사천시 대방동과 남해군 창선도를 이어주는 다리다. 사천시와 창선도 사이에 있는 모개섬, 초양섬, 녹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3.4km에 이른다. 4월에 대교 주변으로 유채꽃이 만개해 바다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다.

### 비토섬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비토섬 앞바다는 별주부전의 무대가 된 곳이다. 거북이의 거짓말에 속아 용궁으로 간 토끼가 달빛에 반사되어 비친 섬에서 뛰어내려 죽어서 토끼섬이 되었다. 용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북이가 죽어서 된 거북섬이 있다. 월등도 앞에는 거북이가 토기를 업고 가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 다솔사

www.dasolsa.co.kr  
Tel. 055-853-0283  
사천시 곤명면 다솔사길 417

봉명산 자락에 들어선 전통사찰이다. 503년에 창건된 다솔사는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경남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다. 사찰 입구의 소나무숲길이 걷기에 좋으며, 야생차밭의 신록이 인상적이다.



마을  
체험하기



뗏목타기 체험

경운기를 타고 뗏목타기체험장으로 이동한다. 구멍조끼를 입고 비봉천에 있는 체험장의 뗏목에 올라 즐겁게 탄다.



딸기따기 체험

1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비닐하우스로 된 딸기농장에서 딸기를 따먹고 주어진 팩에 한팩씩 담아서 가져갈 수 있다.



고구마캐기 체험

고구마줄기를 걷어낸 후 호미로 땅을 파서 고구마를 캐낸다. 비닐봉지에 고구마를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간다.



대나무피리 만들기 체험

대나무를 조각칼로 깎아서 구멍을 내어 대나무피리를 만든다. 구멍에 손을 대고 움직이면서 불면 맑은 소리가 난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비봉내마을 > 점심 > 다솔사 > 비토섬

비봉내마을을 체험프로그램은 10시쯤 시작. 오전에 대나무피리만들기와 뗏목타기 체험을 한다.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는 인근의 다솔사와 비토섬을 돌아본다. 비토섬의 비토해양낚시공원 일몰을 감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게 좋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비토섬 > 다솔사 > 점심 > 비봉내마을 > 저녁

둘째 날 : 창선, 삼천포대교 > 점심 > 항공우주박물관 > 실안 선상카페

실안해안도로와 창선, 삼천포대교가 드라이브 코스로 좋다. 대교와 연결된 섬 주변을 돌아본 후 점심을 먹고 항공우주박물관에서 항공기와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자. 일몰 무렵 실안 선상카페에 들러 노을과 야경을 함께 즐기면 좋다.

TRAVEL TIP

대중교통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진주행 고속버스를 이용해 진주 하차. 진주시외 터미널에서 곤양행 버스를 이용해 곤양시외터미널 하차. 40분 소요, 06:30~20:50 1일 2회 운행. 곤양시외터미널에서 도보로 10분 소요, 택시 이용시 5분 소요, 요금은 3천원.

숙박

- 비봉내마을 민박 : 1실 4인기준 5만원부터, 055-854-5111, 010-4032-5111
- 다솔 황토 불가마 : 055-854-8115
- 비토섬 신우리조트 : 055-855-4242, www.bitoresort.co.kr
- 삼천포해상관광호텔 : 055-832-3004, www.3004hotel.com

먹을거리

다솔사 입구에 연일반점식을 잘하는 식당이 있음. 곤양C부근에는 어탕국수가 별미.

- 동다솔 055-853-5270, 사천시 곤명면 다솔사길 50
- 다솔사휴게소식당 055-853-1800, 사천시 곤명면 다솔사길 285
- 생초어탕국수 055-854-9141, 사천시 곤양면 곤북로 10
- 덕원각술밭갈비 055-852-6775, 사천시 곤양면 북문길 28

통역기대도 정보

비봉내마을이나 사천시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가 없어 여행사 등을 통해 미리 통역을 구해야한다.



• 아홉곳 의자마을

●  
제주특별자치도

## 9개의 샘, 9가지의 즐거움 휴식같은 농촌 체험 테마공원

### 제주 아홉곳 의자마을

가족여행 가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0선에 오르기도 한 낙천리 아홉곳 의자마을은 야외에 다양한 디자인과 문구가 새겨진 천 개의 의자들을 전시한 산책공간이 예술이다. 이 곳의 농산물들을 이용한 먹거리 체험과 농산물 수확, 미니 의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가족 단위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 체험객이 방문하는 복합 농촌문화 공간이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수로 97							
체험	농장체험, 보리빵만들기, 보리피자만들기, 보리수제비만들기 등							
문의	064-773-1946 <a href="http://ninegood.go2vil.org">http://ninegood.go2vil.org</a>							

아홉굿은 9개의 샘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지어진 이름이며, 또한 9가지의 'good'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아홉굿 마을은 2003년도 전통 테마마을로 시작해 2005년에 공원터를 만들고, 공원 안쪽에 80평 규모의 체험관을 지어, 그 곳에서 교육 및 실내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체험관 한 쪽에는 마을의 농특산물도 판매된다.

이후 2007년부터 2년에 걸쳐 1,000개의 의자 조형물을 만들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재치있는 문구들을 의자에 새겨 넣음으로써 아홉굿 마을 내에 의자 테마공원이 완성되었다.

## 마을 미리보기

의자공원 조형물



##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다양한 체험

화산회토(火山灰土)가 대부분인 제주의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물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이곳은 점질 토양으로 4계절 특색에 맞는 제철 농산물들이 다양하게 재배된다. 제주하면 떠오르는 농산물은 감귤이지만, 이 마을은 감귤을 비롯해서 토마토, 보리, 마늘, 파프리카, 오이, 콩 등의 밭작물도 풍성한 곳이다. 이 곳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을 직접 수확해 보는 체험은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색다른 추억을 만들기엔 충분하다.

또한 마을에서 수확한 보리를 이용한 보리피자, 보리빵 등을 직접 만들고 시식 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의자마을에 걸맞는 미니 의자만들기 체험도 있는데, 직접 만든 의자는 즐거운 제주여행에서 또 하나의 소중한 기념품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체험은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이 모두 가능하다. 예약은 필수!

- ① 의자 공원 산책로
- ② 하늘에서 본 아홉굿마을 전경
- ③ 의자공원 조형물
- ④ 아이들의 미니의자 만들기 체험





하늘에서 본 의자공원 전경

## 물이 풍부하여 더욱 풍요로운 낙천리



의자공원 조형물

낙천리는 하늘이 내려준 천 가지의 기쁨을 간직한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옛 부터 이 곳 물맛이 좋아 물을 마시면 사색에 잠기게 된다는 뜻의 서사미 마을, 샘이 풍부한 고을이란 의미의 서천미 마을 이라고도 불린다. 물이 풍부하고 양질의 점토가 많아 풍요롭던 이 곳은 제주에서 처음으로 불미업(대장간)이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다.

일 년 내내 유기농 과채류 시설재배와 발작물을 재배하는 농촌마을로 한경면 소재지인 신창리에서 동쪽으로 7km 지점의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 5km 인근에는 크고 작은 오름들이 자리하고 있어, 의자마을 주위에 높고 낮은 오름을 바라보며 자연과 어우러진 수많은 의자들 사이를 돌다보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올레13코스로 연결되어진 잣 길은 지금도 옛모습 그대로의 돌담길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잣 길 체험코스로 운영되고 있다.

주변  
둘러보기

## 제주 아홉곳 의자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생각하는 정원

[www.spiritedgarden.com](http://www.spiritedgarden.com)

Tel. 064-772-3701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675

개원 이래 세계 각국의 언론과 인사들이 다녀가면서 유명해진 곳.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정받는 곳이다.



90

THEME IN EXPERIENCE  
제주 | 체험여행

### 환상숲 꽃자왈 공원

[www.jeupark.co.kr](http://www.jeupark.co.kr)

Tel. 064-772-2488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594-1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제주의 천연 원시림이다.

### 유리의 성

[www.jeuglasscastle.com](http://www.jeuglasscastle.com)

Tel. 064-772-7777

제주시 한경면 녹차분재로 462

국내 최초 유리 전문 등록박물관, 유리 전문 테마파크로 이곳에서 직접 유리공예를 체험해볼 수도 있다.



### 항공우주 박물관

[www.jdc-jam.com](http://www.jdc-jam.com)

Tel. 064-800-2000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최첨단 기술과 멀티미디어로 다양한 체험과 유익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에듀테인먼트 시설이다.

마을  
체험하기



보리피자 만들기

제주 아홉굿마을에서 직접 생산된 참 보리로 피자반죽을 만들고, 취향대로 재료를 듬뿍 얹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웰빙피자를 즐겨보자.



농장체험

계절에 따라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감귤 등 농장주의 설명을 듣고 직접 수확해 보는 프로그램.



보리빵 만들기

이미 1차로 발효된 보리빵 반죽을 게 라만한 크기로 동그랗게 만들어보자. 직접 만든 반죽은 즉석에서 구워져 따끈따끈한 보리빵을 맛볼 수 있다.



보리수제비 만들기

아홉굿 마을의 특산품인 보리로 만든 수제비.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보다 식감도 좋고 영양이 풍부한 훌륭한 한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아홉굿마을을 체험 > 점심 > 더마파크 > 오설록 > 세계 자동차 박물관

오전에 아홉굿 마을에서 체험 후 식사를 하고, 세계 최초의 말 전문 테마공원인 더마파크에서 승마와 기마공연등을 즐긴 후, 30분 정도 이동하여 오설록에서 푸르른 녹차밭과 녹차를 이용한 간단한 식음을 즐긴다. 이후 15분 정도 소요되는 곳자왓 부근에 아시아 최초 개인소장 자동차 박물관인 세계 자동차박물관의 힐링로드를 즐긴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아홉굿마을을 체험 > 점심 > 더마파크 > 오설록 > 세계 자동차 박물관 > 저녁 > 디오션힐리조트(산방산 부근)

둘째 날 : 용머리해안 > 점심 > 마라도도잠수함 > 송악산 전망대

산방산을 등에 업고 바다가 전경으로 펼쳐진 '디오션힐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용머리해안' 코스를 관람(물때의 입장시간은 방문전 확인)을 한다. 이후 점심을 먹고 마라도 잠수함에서 제주의 신비한 바닷 속을 탐험한 후 우리나라 최남단 섬 마라도와 한라산이 한 눈에 보이는 송악산으로 이동해 전망대까지 천천히 걸으며 주변 경관을 즐긴다.

TRAVEL TIP

대중교통

1. 제주 시외버스 터미널: 202번 승차 후 '신창중학교' 하차(1시간 30분 소요) → 771-1번 승차 후 '낙천리' 정류장 하차(15분). 여기서 아홉굿마을까지 도보로 5분

숙박

- 전통초가(마을운영) : 064-773-1946 / 6개월 150만원
- 마을회관(마을운영/단체) : 064-773-1946 / 20명 기준 1인 1만원
- 제주 돌하르방캠핑장 : 070-4548-9705 / jejudolharbang.com
- Citrus B&B 펜션 : 010-7900-2218 / 2인 기준 6만원
- 디오션힐 리조트 : 064-792-0102 / theoceanhill.com

먹거리

- 의자마을 입구 왼쪽에 '수디들'이라는 휴게소에서 각종 음료와 간식이 다양하게 준비
- 근처 관광지인 '생각하는 정원의 점심은 '녹색뷔페' 운영. 단, 이 정원을 이용하는 입장객만 이용이 가능.
- 탁마루가든 : 흑돼지와 말고기를 비롯, 일반 식사도 가능 / 064-772-5666
- 산방산초가집 : 전골을 시키면 고등어구이가 서비스 / 전북해물전골 / 064-792-0688

통역가이드 정보

체험을 위한 방문 계획이 있는 외국인의 사전예약은 필수이며, 다양한 언어권의 통역가이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중문 관광단지안내소 7~10일 전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중문 관광단지안내소 : 064-739-1330)

## THEME 01 EXPERIENCE

자연에서 추억을 깨는  
체험여행



## THEME 02 NATURE

유래 · 상쾌 · 통쾌의 조화로운  
자연여행



## Check Point

마을별 체험은 대부분의 마을이 단체(30인 이상)가 신청시 가능하며,  
계절에 따라 체험일정과 체험 종류, 체험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체험전 반드시 사전예약은 필수!

- 본 여행가이드북에 제시된 체험비용은 30인이상 기준입니다.



---

THEME 03

## ORIENT

아이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전통여행



---

THEME 04

## WELL-BEING

최고의 먹거리를 만끽하는  
웰빙여행



보릿고개마을

경기도

## 옛 고향의 정취가 살아있는 건강한 마을

양평 보릿고개마을

오래전 유난히도 가난했던 산골마을에는 먹거리가 부족해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먹거리도 볼거리도 풍부해졌지만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을 이름을 보릿고개 마을이라 붙였다. 산도 좋고 물도 좋아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던 보릿고개 마을을 찾아 잃어버린 고향의 정취를 느껴보자.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연안길 32-1							
체험	보릿개떡 만들기, 인절미 떡메치기, 손수건 꽃물들이기, 계란꾸러미 만들기, 두부 만들기, 송어잡기 등							
문의	031-774-7786 borigoge.invil.org							

복작거리는 서울에서 1시간 30분을 달려 나가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작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난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이 졸졸 소리내어 맞아주는 곳, 양평의 보릿고개마을이다. 과거에는 이름만큼 어려웠던 산골마을이지만 이제는 도시인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슬로우푸드 체험마을로 변신했다.

보릿고개마을 입구에는 개울이 있다. 2015년 6월에는 농림축산부에서 선정한 '물놀이하기 좋은 농촌 체험마을 10선'에 당당하게 꼽힐 정도로 멋진 개울가를 자랑한다. 커다란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워진 마을 앞의 개울물은 용문산에서부터 흘러나와 상원계곡을 거쳐 마을 앞을 흐른다. 여름이면 송어를 잡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개울가에 울려 퍼지고, 가을이면 반짝이는 은빛 갈대가 개울을 뒤덮는다. 겨울이면 소복소복 눈이 쌓인 경치가 빼어나다.

송어를 잡는 아이들



## 풍성한 마음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되새기자

보릿고개마을은 깨끗하고 편안한 시설로 방문객을 맞는다. 마을 어귀의 버스정류장 앞에는 깨끗한 화장실을 세워 두었고, 주차공간도 넉넉하다. 넓은 체험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갖췄다.

보릿고개를 테마로 하는 마을인 만큼 먹거리 체험이 풍성하다. 쌀이 없던 시절에 보릿쌀로는 밥을 하고 보릿겨로 떡을 만들어 먹던 시절을 생각하며 보리개떡, 썩개떡, 호박개떡, 밀개떡을 만들어 먹는다. 점심은 콩보리밥에 신선한 야채와 나물을 넣은 양푼보리비빔밥이나 호박을 넣고 만든 호박밥이 주된 메뉴다. 불려둔 콩을 맷돌에 갈아 콩물을 짜낸 다음 가마솥에서 몽글몽글 끓여낸 순두부도 맛본다. 삶은 달걀을 쥘단으로 콩콩 여며 계란꾸러미를 만들거나 길가에 피어난 꽃으로 손수건을 물들이는 체험은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인기 있다.

계절에 따라 고구마나 감자를 캐기도 하고, 옥수수나 매실, 배와 딸기, 복숭아를 따기도 한다. 여름에는 송어를 잡고, 겨울에는 썰매를 타는 재미가 있다. 내 손으로 만든 제기를 차며 신나게 뛰어 놀고, 트랙터를 타고 마을 구석구석을 탐험한다.

- ① 알록달록 색칠한 마을의 돌담길
- ② 맷돌을 돌려 콩을 갈아 순두부만들기
- ③ 알록달록한 보리개떡
- ④ 감자와 고구마 캐기 체험



##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양평 탐험!



온 가족이 즐기는 레일바이크

서울에서 무척 가까우면서도 서울과 달리 농촌의 정취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양평이다. 당일치기 드라이브코스라도 각광받는 양평에는 그야말로 자연을 벗삼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다. 산이 깊어 계곡도 좋은 용문산 아래에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용문사가 있다. 1천년 동안 절을 지켜온 은행나무가 용문사 보다 더욱 유명하다. 용문사 관광단지에는 친환경 농업박물관이 자리했다. 바른 먹거리를 고민한다면 이곳에 둘러보자. 잠시 짬을 내어 다도체험에 참여하는 여유를 가져도 좋겠다. 양평을 친환경적으로 여행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레일바이크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둘러보는 농촌의 경관도 멋지고, 가족끼리 함께 발을 구르며 협동하는 재미도 있다.

양평의 영어마을은 독특한 문화체험을 선사한다. 외국인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로 다양한 게임을 즐겨보자. 매달 진행되는 파티에 참여하거나, 근사한 야외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도 좋겠다.

계곡에서 흘러 내리는 가을 풍경



## 양평 보릿고개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양평 용문사

<http://www.yongmunsa.biz/>

Tel. 031-773-3797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용문사

신라시대에 세워진 용문사는 산세가 깊은 용문산 자락에 위치해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을의 단풍과 1천년을 살아낸 천연기념물 은행나무가 유명하다.

### 들꽃수목원

[www.nemunimo.co.kr](http://www.nemunimo.co.kr)

Tel. 031-772-1800

들꽃 수목원에서는 강변의 정취와 꽃들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www.sam.go.kr](http://www.sam.go.kr)

Tel. 070-7715-3796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08-10

친환경 농업의 이로움을 널리 알리는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는 좋은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 어린이 음식체험교실에서부터 다도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 양평 레일바이크

[www.yprailbike.com](http://www.yprailbike.com)

Tel. 031-775-9911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126-5

양평의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하나 되는 레일바이크를 타보자. 왕복 6.4km 구간을 시속 15~20km로 달리며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양평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마을  
체험하기



순두부 만들기

자루에 담긴 콩물을 짜내 가마솥에 해서 순두부를 만든다. 둥글둥글한 순두부에 양념장을 얹어 먹는다.



보리개떡 만들기

보릿가루, 썩가루, 비트와 단호박으로 알록달록 물들인 개떡을 만든다. 어렵던 시절 개떡으로 허기를 달랬던 이야기를 들으며 참기름을 발라 먹는다.



손수건 물들이기

손수건을 반을 접어 그 사이에 꽃잎과 나뭇잎을 끼우고 숟가락으로 두들겨 물을 들인다. 햇빛에 말리면 곱게 물이 든다.



계란꾸러미 만들기

짚단을 넓게 펼쳐 삶은 계란을 감싼다. 계란을 한 개씩 묶어주며 고정시킨다. 남은 지푸라기를 말아 손잡이를 만들면 완성.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양평 보릿고개마을 > 점심 > 용문사 > 친환경농업박물관

양평 보릿고개마을에서 각종 체험을 하고 점심을 먹자. 풍성한 제철 먹거리가 가득한 밥상을 받으면 임금님의 밥상이 부럽지 않겠다. 용문사에 오르는 길은 눈이 즐겁다. 봄에는 푸르른 나뭇잎이, 가을에는 알록달록한 단풍잎이 반겨준다. 용문사 앞의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들러 오늘의 먹거리 체험을 마무리해보자.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양평 보릿고개마을 > 점심 > 용문사 > 친환경농업박물관  
둘째 날 : 레일바이크 > 점심 > 양평 영어마을

양평 보릿고개마을에서 하루를 보내면 풍성한 먹거리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용문사에 들러 용문산의 경치를 감상한 다음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들러 몸에 좋은 먹거리에 대해 생각해보자. 둘째날 레일바이크를 타고 양평 곳곳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오후에 영어마을에 들러 이색적인 문화체험과 신나는 파티를 경험해보자.

TRAVEL TIP

대중교통

지하철 경의중앙선을 타고 용문역에서 하차. 용문역 앞의 용문터미널 정류소에서 7-1번 버스 승차 후 12개 정류장을 지나 연수리중점 정류장에서 하차. 소요시간 약 30분. 용문역에서 택시를 타면 요금 약 9000원, 소요시간 약 15분.

숙박

- 라온누리펜션 : 070-7525-4172 / [www.raonnuri-yp.co.kr/](http://www.raonnuri-yp.co.kr/)  
보릿고개 마을 앞에 위치한 펜션이다.
- 여울펜션 : 010-3737-6820 / [www.yeoulps.com/](http://www.yeoulps.com/)  
보릿고개 마을 앞에 위치한 펜션이다.
- 용문산리조트펜션 : 031-772-3340 / [www.yppguide.co.kr/](http://www.yppguide.co.kr/)  
마을 바로 앞에 위치한 펜션이다.
- 마운틴밸리 : 010-3127-6070 / [www.mvpension.co.kr](http://www.mvpension.co.kr)
- 엔토펜션 : 031-773-4080 / [www.entopension.com](http://www.entopension.com)

먹거리

- 점심으로 양평공보리비빔밥을 먹고, 간식으로 보리개떡을 부쳐먹고, 순두부를 끓여먹고 나면 하루가 든든하다. 근처에는 한식을 주로 하는 식당이 있다. 용문산 관광단지 앞에도 식당이 모여 있다.
- 중앙식당 : 031-773-3422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644
  - 용문산 촌두부 : 031-771-1104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정리 369-63

통역가이드 정보

양평 보릿고개마을에서는 인근의 양평 영어마을과 제휴를 맺고, 외국인 관광객이 체험을 신청할 경우, 영어마을에 상주하는 외국인 선생님을 모셔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백담마을 ●

●  
강원도

## 백담사의 기운을 품은 내설악 산골마을

### 인제 백담마을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무엇부터 언급해야 할지 망설이게 되는 마을이 있다. 마을이 자리 잡은 위치부터 예사롭지 않다. 북녘의 금강산과 쌍벽을 이루는 설악산 줄기에 터를 잡았고, 역사의 물길을 거슬러 오르면 신라시대까지 이어지는 백담사의 기운도 품고있다. 바람마저 쉬어넘는 험준한 산줄기를 따라 형성된 백담계곡도 마을입구에서 시작된다. 마을에서 참여 가능한 축제가 여럿이고,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410-17							
체험	마가목 족욕 체험, 내설악 트래킹, 효소 체험, 백담사 견학, 표고버섯 체험, 냇강 체험,							
문의	백담마을 033-462-4608, <a href="http://baekdam.invil.org">http://baekdam.invil.org</a>							

수려한 산과 계곡이 있어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내설악에 가면 많은 사람이 빼놓지 않고 찾는 고찰이 있다.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의 시기에 희망을 발견하며 부활을 노래한 시(詩) 〈님의 침묵〉이 지어진 곳. 그 시를 쓴 만해 한용운 선생이 승려생활을 시작한 곳,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며 대한민국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준 백담사가 바로 그곳이다. 백담마을은 백담사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

백담마을이 터를 일군 지역은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미시령과 진부령이 시작되는 곳이다. 여름에는 무더위가 비껴갈 정도로 시원하고 겨울에는 동장군도 울고 갈 만큼 눈과 바람이 거세다. 바로 이런 입지 환경으로 전국 최대의 황태덕장이 용대리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가 여초 김응현 선생도 이런 백담마을을 사랑하여 '맑은 냇물에 취해 달도 춤을 춘다'라는 의미의 '취천월무(醉川月舞)'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하였다.



백담사 소원담

## 자연에 순응하고 전통이 보존된 곳에 재미가 듬뿍

백담마을에 들어가 속살을 살짝 살펴보면 정겨움은 더욱 커진다. 100가지가 넘는 야생화가 인사를 건네고, 서로 배려하며 정겹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활은 삶의 활력을 더한다. 설악산 등반 후 찾은 사람들은 산삼에 버금가는 약효를 지닌 마가목으로 족욕 체험을 즐기고, 표고버섯 체험 중인 아이들은 고사리손에 자신이 직접 수확한 버섯을 들고 웃음꽃을 피운다. 여름이면 인근 하천까지 체험의 영역이 넓어지니 절로 흥겨움이 넘칠 것이다.

백담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이 외에도 다양하다. 입지 특성을 살려 백담사 견학을 진행하고, 내설악 트래킹은 인제가 간직한 절경을 제대로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또한, 계절마다 그에 맞는 농촌 체험으로 농작물의 고마움을 되새기고, 천연향초 만들기 등 소박한 체험도 여럿이다.

계절마다 서로 다른 풍광을 자아내기에 백담마을 여행은 굳이 계절을 따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조금 더 즐거운 시기를 꼽으라면 전통놀이로 흥을 더하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 황태를 수확 즈음 열리는 황태축제(5월), 마가목 열매가 빨갛게 익을 무렵 개최되는 마가목축제(10월)를 꼽을 수 있다.

- ① 마가목 열매
- ② 백담마을 부근의 풍력발전단지
- ③ 표고버섯 따기에 즐거운 여행객
- ④ 소원탑 쌓기



## 수려한 절경을 감상하며 스릴 넘치는 레저스포츠까지



십이선녀탕



국내 최고 높이(63m)의 번지점프

백담마을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멀리 않은 곳에 가을 만한 여행지가 많다는 데 있다. 앞서 언급한 백담계곡과 백담사는 백담마을 입구의 버스정류장에서 시작되며, 오봉산 자락에 조성된 풍력발전단지 주변을 산책하며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산양까지 관찰할 수 있는 우제류복원센터까지 돌아볼 수 있다.

당대 최고의 명필로 추앙받는 여초 김응현 선생의 작품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여초김응현서예관도 불과 2.8km 떨어져 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을 기리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만해마을도 있다. 용대리 일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황태덕장이 있어 겨울에 여행하는 사람은 바다에 사는 명태가 산 위에서 누렇게 말라가는 장관도 접할 수 있다.

발품을 조금 더 팔아 인제읍으로 향하면 짜릿한 레저스포츠까지 즐길 수 있다. 나르샤파크에 가면 5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스캐드다 이빙을 경험할 수 있고, 함강정공원에 있는 번지점프는 최대 높이인 63m에서 내린천 일대를 감상할 수 있다.



주변  
둘러보기

## 인제 백담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백담계곡 & 백담사

[www.baekdamsa.org](http://www.baekdamsa.org)  
Tel. 033-462-6969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내설악의 가야동 계곡과 구곡담을 흘러온 맑은 물이 합쳐지는 백담계곡에 자리 잡은 백담사는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한용운이 <님의 침묵>을 집필한 곳으로 유명하다.



### 인제 나르사파크

[www.inje-themepark.com](http://www.inje-themepark.com)  
Tel. 033-461-0141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81

'레포츠의 천국'이라 불리는 인제에는 래프팅과 리버버깅 등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내린천 외에도 서든어택, 서바이벌, 페이트볼, 스캐드다이빙 등의 시설을 갖춘 나르사파크가 있어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다.



### 용대리 황태덕장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한국 최대의 황태덕장으로 전국 황태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밤 평균기온이 두 달 이상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야 최고의 황태가 탄생할 수 있기에 용대리는 황태덕장으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 만해마을

[www.manhae2003.dongguk.edu](http://www.manhae2003.dongguk.edu)  
Tel. 033-462-2303  
인제군 북면 만해로1

한국문학사의 대표적 시인이자 스님,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만해 한용운의 불교사상과 문학혼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만해문학박물관에는 한용운의 삶과 그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세계가 전시되어 있다.



마을  
체험하기

## 마가목 족욕 체험

붉은 열매를 맺는 마가목은 예로부터 신경통, 요통, 위장병, 양기 부족 등에 효능이 좋아 나무, 잎, 열매 모두를 약재로 이용한 귀한 나무이다. 선조들은 풀 중에서는 산삼이 제일이지만 나무 중에서는 마가목을 으뜸으로 쳤다.



## 황태강정 만들기

황태의 고장 인제에서 황태 음식을 어찌 빼놓을 수 있겠나! 황태의 뼈와 가시를 제거하고 튀김가루를 입혀 기름에 튀겨낸 후 양념장에 잘 섞어주면 끝. 이후에는 입이 호사를 누린다.



## 백담사 탐방

백담계곡을 따라 기암절벽의 안내를 받으며 7km정도 오르면 모습을 나타내는 백담사. 탐방지 곳곳마다 이어지는 문화해설사의 솔깃한 이야기에 귀를 쫓긋 세우게 된다.



## 우제류북원센터 탐방

백담마을 입구 풍력발전시설 부근에 밭 굽이 두 개 달린 동물을 보호하는 우제류북원센터가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산양도 관찰할 수 있다.

추천  
여행코스

## 당일 코스

## 백담계곡 &gt; 백담사 &gt; 점심 &gt; 백담마을 &gt; 여초 김응현 서예관 &gt; 만해마을

백담사에 오르는 길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정도이기에 백담사행 버스 외에는 차량이 통제된다. 백담사 앞 계곡에는 관광객이 소원을 빌어 만든 수천 개 소원탑이 있다. 백담마을에서 체험을 즐겼다면 여초 김응현 서예관과 만해마을이 가까우니 빼놓지 마시길...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백담계곡 &gt; 백담사 &gt; 점심 &gt; 백담마을 &gt; 여초 김응현 서예관 &gt; 만해마을 &gt; 저녁

## 둘째 날 : 십이선녀탕계곡 &gt; 점심 &gt; 인제나르사파크 &gt; 산촌민속박물관

1박 2일 코스 역시 첫날은 당일 여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날은 설악산이 숨겨놓은 비경이라 불리는 십이선녀탕계곡에 올라보자. 인제나르사파크도 지나치기에는 아쉽다. 50m 상공에서 느끼는 스카이드라이빙은 인제에서만 접할 수 있는 즐거움. 강원도 산골 사람들의 옛 삶을 엿볼 수 있는 산촌민속박물관에서 여정을 마무리해도 좋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이용, 백담사 입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차 후 도보 시 10분 소요.



## 숙박

- 파인밸리 가족호텔 : 033-462-8955 / [www.finevalley.co.kr](http://www.finevalley.co.kr)
- 백담사 템플스테이 : 033-462-5565 / <http://baekdamsa.templestay.com>
- 백담반디펜션 : 033-463-0863 / [www.bdbdps.co.kr](http://www.bdbdps.co.kr)
- 백담별채 : 033-463-1525 / [www.100damstar.com](http://www.100damstar.com)



## 먹을거리

- 두메송식당 : 033-462-5206
- 할머니황태구이 : 033-462-3990
- 백담황태구이 : 033-462-5870



## 통역가이드 정보

인제군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없기에 필요 시 여행사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해담마을 ●

●  
강원도

## 해를 담은 마을에서 추억도 담아볼까

양양 해담마을

‘해가 떠오르는 고장’을 의미하여 양양(襄陽)이라 부르는 지역에는 떠오른 해를 감상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산 사이에 담고 있는 마을이 있다. 양양 서쪽의 산림이 우거진 마을이라 하여 ‘서림리’라 불렸고, 현재는 자연 속에서 짜릿한 레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한 해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담마을’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강원도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2110-17							
체험	수륙양용차 아르고, 카약 타기, 뗏목 타기, 물고기 맨손 잡기, 활쏘기, 페인트볼 사격, 정족산 스피리트(서바이벌), 음식 만들기							
문의	해담마을 033-673-2233, <a href="http://hd.invil.org">http://hd.invil.org</a> 양양 문화관광과 033-670-2724							

수려한 산과 계곡이 있어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내설악. 그곳에 자리 잡은 해담마을로 여행계획을 세우며 2011년 방송되었던 KBS 예능프로그램 <1박2일>을 떠올린다. 당시 출연자가 하천을 배경으로 몇 개의 돌탑을 쌓으며 소원을 빌고, 물과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수륙양용차를 몰며 등장했다. 촬영장 뒤로는 수려한 자태의 산이 짙은 녹음을 자랑하고, 햇빛을 받은 하천은 진주를 뿌린 듯 고운 빛을 선사하고 있었다.

병풍처럼 산을 두르고, 마을 길을 흐르는 하천은 수심이 낮아 맘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최적의 휴양마을로 여겨진 곳.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마을은 청정한 자연에서 짜릿한 스릴까지 덩어질 수 있는 마을로 비쳐 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바로 그곳이 해를 담은 마을 해담마을이다.



해담마을과 종족산 탐방로를 잇는 해담교



## 자연 속에서 즐기는 짜릿한 레저스포츠

해담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거리를 살펴보면 해담마을의 진가를 엿보게 된다. 물길과 숲을 가리지 않고 질주하는 수륙양용차 타기,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뗏목 타기, 하천의 물길을 몸으로 느끼는 카약 타기, 생명력 넘치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기, 물살에 맞춰 몸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카약 타기, 조선시대의 궁사가 되어 과거를 명중시키는 활쏘기, 페인트 볼을 총알로 사용하여 모의전투를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 청정 해담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 음식 만들기 등에 이르기까지 체험객은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렇듯 마을에서 접할 수 있는 체험은 다양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은 숨 쉴 틈 없이 짜릿함과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수륙양용차 타기 체험이다. 15분 동안 하천 주위만 돌아보는 짧은 A 코스부터 40분남짓 주민이 개발한 모의 정글과 정족산 자락의 임도까지 두루 돌아보는 C코스까지 총 3개 코스가 있다.

해담마을은 정족산 탐방로(9.62km)의 시작점에 있기에 울창한 소나무와 자연 그대로의 숲을 거닐며 삼림욕을 겸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 ① 연어의 고향 남대천
- ② 카약 타기
- ③ 활쏘기 체험
- ④ 해담마을 길을 흐르는 하천





낙산사 일출

## 남대천부터 동해안까지 이어지는 즐거운 여정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



서림사지 삼층석탑

해담마을에 볼거리 많고 즐길 거리가 넘친다지만, 어찌 마을여행에 만족할 수 있으랴

마을 앞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는 7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봄이면 아름다리 벚나무가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리고, 구룡령 방향으로 약 10km 거리에는 오색약수에 버금간다는 갈천약수가 조용한 산길 속에 숨어 있다. 섬림원지 등 통일신라시대의 유적까지 탐방할 수 있는 미천골자연휴양림도 자동차로 10분 거리이다.

여정을 남대천 따라 동해안까지 확장하면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너무 많아진다. 떡과 관련한 모든 체험이 가능한 송천떡마을, 일출로 유명한 낙산사 의상대, 탁 트인 바다와 태양을 품에 안은 낙산해수욕장, 연어의 일생을 살펴볼 수 있는 연어연구센터,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은서(송혜교)와 준서(송승헌)가 애뜻한 사랑을 키웠던 상운폐교,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의 촬영지 하조대, 동해안 최고의 미항 남해항에 이르기까지 여행자는 어떤 여행지를 선택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 양양 해담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미천골자연휴양림

[www.huyang.go.kr](http://www.huyang.go.kr)

Tel. 033-673-1806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6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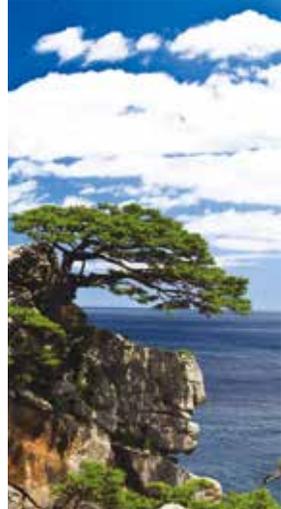
약 7km에 달하는 미천골계곡을 따라 조성된 국립자연휴양림으로 곳곳에 크고 작은 폭포를 만날 수 있다. 휴양림 내에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외에도 통일신라 시대의 유적인 선림원지와 불바라기 약수터 등이 있다.



### 갈천약수

양양군 서면 구룡령로 1103-66

해담마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위치에 있는 약수터로 철,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등을 함유하고 있어 위장병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오색약수와 비교해 덜 알려졌지만 갈천약수를 아는 사람은 멀리서도 찾아온다.



### 하조대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넓은 백사장, 울창한 소나무숲, 기암괴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 곳에 있는 암석해안이다. '하조대'라는 현판이 걸린 정자와 하조대 등대에서 바라본 동해는 기암절벽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한다.

### 낙산해수욕장

[tour.yangyang.go.kr](http://tour.yangyang.go.kr)

Tel. 033-670-2518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 59

만으로 형성된 드넓은 백사장과 송림, 낙산사, 의상대, 흥련암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변이다. 특히, 관동팔경 중 하나인 의상대에서 바라본 동해의 일출이 장관이다.



마을  
체험하기

## 뗏목 타기

낙엽송으로 만든 수제 뗏목으로 약 2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대나무 장대를 이용해 강바닥을 밀면서 이동하며, 어른 기준 3~4명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수륙양용차 아르고

해담마을의 체험 중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체험. 물과 땅을 오가며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짜릿한 스릴감을 느낄 수 있다. 아르고의 코스는 총 3개. 긴 코스는 약 40분 동안 왕복 6km를 달린다.



## 물고기 맨손 잡기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아 두 손에 움켜쥐었을 때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여름에는 은어, 나머지 계절에는 송어잡기 체험이 진행된다.



## 정족산 스피리트(서바이벌)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정족산 전투를 기억하는 의미를 지닌 체험으로 페인트 볼을 총알로 사용한다. 서바이벌은 30인 이상 단체만 가능, 30인 이하일 경우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추천  
여행코스

## 당일 코스

## 해담마을 &gt; 점심 &gt; 갈천약수 &gt; 미천골자연휴양림

해담마을에서 수륙양용차 아르고, 뗏목 타기, 서바이벌 등 스릴 넘치는 체험을 즐긴 후 구룡령의 정기가 스며든 갈천약수에서 갈증을 달래보자. 이후 미천골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벗 삼아 휴식을 취하면 하루를 마감한다.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gt; 갈천약수 &gt; 미천골자연휴양림 &gt; 점심 &gt; 해담마을 &gt; 저녁

## 둘째 날 &gt; 낙산사 &gt; 낙산해수욕장 &gt; 점심 &gt; 하조대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구룡령을 넘는 56번 국도를 추천. 갈천약수에서 자연의 정기를 느끼고 미천골자연휴양림에서 양양이 숨겨놓은 비경을 찾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후 해담마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다음날은 낙산사 의상대에 올라 동해의 일출을 감상한 후 낙산해수욕장, 하조대해수욕장, 하조대 등 자유롭게 일정을 정하면 된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1.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 양양시외종합터미널에서 하차 (3시간 소요).
2. 양양에 도착해서는 택시 이용(25분 소요).

## 숙박

해담마을은 캠핑 200여 사이트, 펜션 13객실, 방갈로 31동의 숙박시설을 갖춘 것은 물론 세미나실(120명)과 다목적강당(300명)이 있어 단체 워크숍도 가능 (문의: 033-673-2233).

## 먹거리

- 등불 : 033-671-1500 / 양양군 양양읍 포월나들길 23
- 용궁해물탕 : 033-673-0799 /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248
- 송이골 : 033-672-8040 /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6
- 상운매일촌 : 033-672-5880 / 양양군 손양면 상운길 44-33

## 통역가이드 정보

일본어를 사용하는 관광객은 해담마을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 언어는 통역 서비스가 없기에 필요 시 여행사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하추리산촌마을

강원도

## 설악산과 내린천의 품에 안긴 청정마을

인제 하추리산촌마을

해발 250~600m 고지에 삶의 터전을 일군 하추리산촌마을. 마을 이름에 '산촌'이 들어가 있듯 고랭지 채소, 산채, 약초, 송이,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잡곡 등을 생산하며 조금은 불편한 삶에 자족하며 행복을 가꾸는 마을이다. 아니, 넘치는 행복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기꺼이 나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하추로 183							
체험	농촌체험, 음식 만들기, 공예 체험, 모험레프츠							
문의	하추리산촌마을 070-4404-4481, <a href="http://hachu.invil.org">http://hachu.invil.org</a> 인제군 문화관광과 033-460-2082							

인제읍에서 31번 국도를 이용해 하추리산촌마을로 가는 길. 마을을 2km 남겨놓고 하추교가 보이고, 이곳에서 좌회전하면 정겨운 미소가 인상적인 장승이 시선에 들어온다. 이름도 재미있다. '하추리산촌대감'과 '하추리산촌마님'. 둘 사이에서 아이 장승도 수줍은 표정으로 여행자를 반긴다. 웃음을 생활화하며 사람을 대하는 주민들의 얼굴과 장승의 미소가 닮았다.

사진 촬영으로 장승의 미소에 화답한 후 길을 재촉한다. 마을에 도착하니 관광버스에서 여행객 한 무리가 하추자연체험학교로 들어선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관광객을 위한 체험 공간과 숙소로 활용하는 곳이다. 옆에는 800m 고지에서 내려오는 청정수를 사용해 아담한 수영장까지 마련해 놓았다.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하여 1995년에 문을 닫았지만, 그 자리에 연간 1만 명이 이상이 찾아오기에 더욱 북적인다.

하추리산촌마을 장승



## 청정지역에서는 불편함도 행복을 전하는 에너지

하추리산촌마을의 첫인상은 '아늑하다'는 느낌이 전부였다. 설악산의 품에 안긴 마을이기에 빼어난 자연환경은 미루어 짐작했던 것이고, 산촌이란 이름에서도 인공의 때가 묻지 않은 쾌적한 환경을 예상했었다. 하추리산촌마을의 진면목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야 알았다. 마을은 최고 품질의 농작물을 위해 우드칩 발효퇴비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애써 지은 농작물과 마을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의 산물은 체험의 재료가 된다.

가마솥밥 체험에서는 아버지가 장작을 파서 아궁이 앞으로 옮기고, 엄마와 아이들은 마을에서 생산한 곡식으로 밥 짓기에 들어간다. 불은 오로지 성냥으로만 붙여야 한다. 도시생활의 편안함을 벗어나 청정지역에서 불편함을 즐기는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인다. 자연에서 얻은 것들은 목공예 체험의 재료로도 쓰인다. 피나무, 솔방울, 가래나무 열매, 콩, 옥수수, 잡곡 등이 아이의 손에서 생명을 얻어 멋진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외에도 마을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두부 만들기, 자작나무숲 트래킹, 비누 만들기, 떡 만들기, 천연염색, 서든어택, 래프팅 등 다양하다.

- ① 수확 체험
- ② 민속체험
- ③ 하추자연체험학교
- ④ 지게지기체험





인제 빙어축제

## 자연이 빚어낸 천혜의 환경 속으로



필레약수

하추리산촌마을 최고의 재산은 억겁의 세월을 거치며 자연이 빚어낸 환경이다.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골고루 즐기려 해도 하루가 부족하지만, 조금 더 자연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면 하추리계곡으로 향하면 된다. 계곡은 설악산 남쪽의 점봉산에서 발원하여 내린천으로 흐르고,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천연보호림에 있어 산림욕을 경험하기에도 그만이다.



자적나무숲 트래킹

마을을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관광지도 여럿이다. 마을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야생화단지가 조성된 하추자연휴양림과 위장병에 효과가 좋은 필레약수가 나오고, 길을 더 재촉하면 한계령에 다다른다.

역동적인 레저스포츠를 경험하고 싶다면 인재읍으로 향하면 된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무와 계곡 사이를 와이어 하나에 의지에 허공을 가르는 짐와이어가 있고, 합강교 부근에 다다르면 국내 최대 높이(63m)의 번지점프대도 보인다. 50m 상공에서 자유 낙하하는 신종 레저스포츠 스카드 다이빙도 인재군청 가까운 곳에 있다.

## 인제 하추리산촌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내린천 래프팅

Tel. 033-460-2170

인제군 기린면 서리 ~ 인제읍 고사리

가을이면 연어가 찾아오는 내린천은 급류가 빠르고 느린 유속이 절묘하게 반복되어 래프팅 천국으로 불린다. 내린천 래프팅은 총 3개 구간이 있어 구간마다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 하추자연휴양림

[www.hachuhuyang.go.kr](http://www.hachuhuyang.go.kr)

Tel. 033-461-0056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

소나무숲으로 이루어진 등산로 6km와 웰빙트래킹코스 4km 산책과 함께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트래킹코스에는 원추리, 꼬리풍 등 50여 종의 야생화 단지가 있어 자연학습을 할 수 있다.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www.inje.go.kr/museum](http://www.inje.go.kr/museum)

Tel. 033-460-2085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56번길 50

강원도 산골마을의 민속문화와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모형과 유물, 영상 등을 통해 1960년대 강원도 산촌 사람들의 당시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다.

### 필레약수

인제군 인제읍 귀둔리

영화 <태백산맥>의 촬영지인 필레계곡에 있는 탄산약수이다. 이곳 약수는 피부병과 위장병에 효과가 있음이 알려지며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마을  
체험하기

## 목공예 체험

피나무 판 위에 솔방울, 가래나무 열매, 콩, 옥수수 등 강원도 산골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작품을 만드는 목공예.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소박한 미소가 피어난다.



## 가마솥밥 짓기

아버지가 패놓은 장작으로 가족이 시골집 아궁이 앞에 모여 성냥으로 불을 켜 가마솥에 밥을 짓는 모습. 밥이 익으며 피어오르는 밥 짓는 냄새는 가족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색다른 추억으로 이어진다.



## 자작나무숲 트래킹

인제군이 명품숲이라 자랑하는 자작나무숲에 들어서면 마치 시베리아의 광활한 눈밭이 떠오른다.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되지만 숲해설가의 정겨운 이야기가 함께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수확 체험

하추리산촌마을은 강원도 산골의 전형적인 마을답게 옥수수, 감자 등의 농작물 수확을 체험할 수 있다. 느타리버섯은 직접 수확 후 버섯탕수육 만들기 체험까지 연계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인제나르사파크 > 점심 > 하추리산촌마을 > 하추리계곡 > 필레약수

인제나르사파크에서 50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스카드 다이빙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레저스포츠. 몸으로 스티를 느낀 후에는 하추리산촌마을에서 강원도 산골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으로 정겨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인제나르사파크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 점심 > 하추리산촌마을 > 필레약수 > 저녁

둘째 날 : 자작나무숲 트래킹 > 점심 > 내린천 래프팅

인제나르사파크에서 스티를 만끽한 후 산촌민속박물관에 들려보자. 강원도 산골의 옛 정취를 느낀 후 하추리산촌마을의 체험을 접하는 느낌이 사뭇 다를 테니 말이 다. 5월부터 9월 사이에 여행한다면 내린천 래프팅을 꼭 즐기기를 권한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1.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이용, 인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차 (2시간 소요).
2. 인제읍에 도착해서는 택시 이용 (소요시간 25분).

## 숙박

하추리산촌마을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120명이 동시 숙박이 가능하도록 총 6개 방을 숙소로 운영.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펜션과 민박도 여럿 (문의 070-4404-4481).

## 먹거리

- 감자네식당 : 033-462-5766 /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84
- 한국관 : 033-461-2139 /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8번길 14
- 마루가든 : 033-461-3223 /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31-3
- 인제골 : 033-461-8853 /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30번길 42

## 통역가이드 정보

인제군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없기에 필요 시 여행사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 토고미마을

●  
강원도

##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넉넉한 마을

화천 토고미마을

밭농사가 전부일 것 같은 강원도에 전국에서 알아주는 논농사를 짓는 곳이 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자리한 토고미마을이 그곳이다. 북한강을 이웃하고 있어 물 걱정도 한시름 덜었다. 주변 산들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졸졸졸 냇물도 흐른다. 고요한 마을은 어미 품에서 잠든 아기처럼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토고미길 22-8							
체험	고구마 수확 체험, 트랙터 타고 마을 한바퀴, 인절미 만들기, 당나귀 타기							
문의	토고미정보화마을 033-441-7254, <a href="http://togomi.invil.org">http://togomi.invil.org</a> 화천종합관광안내소 033-440-2575							

시골풍경의 서정이 차창을 스치면서 벗어나 달리던 북한강이 어느 틈엔가 사라지기도 하고 반짝 얼굴을 내비치기도 한다. 민간인보다 군인이 많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도로에는 군용차량이 많다. 마을 입구, 신대교를 지나자 어느 시골마을처럼 한가롭다.

토고미마을은 예로부터 기름진 옥토가 많아 부자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때문에 농사에 품을 팔면 꼭 쌀로 품삯을 대신했다고 하여 토고미마을이라 부른다. 예로부터 토고미마을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맑은 물이 흐르며 토양이 비옥했다. 여기에 몇 해전부터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토고미우렁이쌀을 선보이고 있다. 우렁이는 잡초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제초제와 비료사용은 물론 농민들 일손절감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산된 토고미쌀은 밥맛 좋기로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3년 이상 무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산물로 인증 받았다.



소 먹이주기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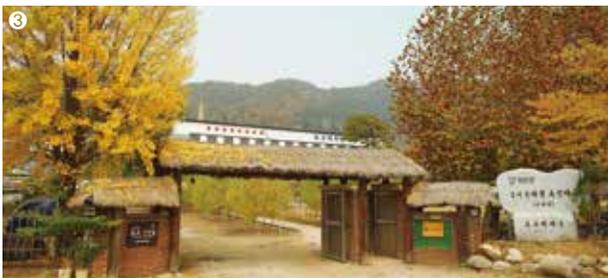
## 오감만족 추억을 만드는 토고미마을

폐교를 리모델링한 토고미자연학교에서 당나귀가 먼저 체험객을 맞는다. 워낙 온순한 동물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다가와도 경계하지 않는다. 아이들 역시 말보다 작고 친숙한 외모에 관심을 보인다. 운동장 한편에 강아지 짖는 소리가 요란하더니 서너 마리가 운동장을 내달리다가 결국 아이들에게 잡혀 귀여움을 독차지 한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천국이다.

굴렁쇠, 그네타기 등 아이들은 에너지가 완전 바닥날 때까지 뛰고 또 뛴다. 이번에는 트랙터를 타고 동네 마실을 나갈 차례. 덜컹거리는 트랙터가 엉덩이를 무차별 공격하지만 그래도 즐겁다. 트랙터가 멈춰선 곳은 소먹이주기 체험장이다. 풀숲에서는 메뚜기잡기가 한창이다. 다시 학교로 돌아오자 고구마를 캐 순서다.

어느새 간식 만들 시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찹쌀밥을 떡메로 수없이 내려치자 쫘득쫘득한 인절미로 변한다. 여기에 고소한 콩고물이 버무려지자 피자나 햄버거 보다 더 맛있게 먹는다. 토고미마을 체험프로그램은 오감은 물론 정서적 만족까지 챙겨갈 수 있다.

- ① 토고미마을 입구
- ② 토고미마을 눈에 볼 수 있는 우렁이 알
- ③ 가을의 깊이가 느껴지는 토고미자연학교
- ④ 눈에서 잡은 우렁이





121

## 숲과 낭만이 있는 다양한 체험과 축제



트랙터를 타며 신나게 하는 아이들



산천어 축제

지금의 화천을 군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을 만큼 화천에서 군인의 역할은 크다. 화천을 대표하는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토마토 축제 등 대부분의 축제들이 군인의 참여로 이뤄진다.

사계절 축제와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봉어섬은 화천을 대표하는 명소다. 사계절 어느 때 찾아도 숲과 강물을 즐길 수 있어 작은 남이섬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봉어섬을 바라보며 북한강변을 달리다보면 거례리수목공원에 홀로 서있는 느티나무가 있다. 강변 풍경과 어우러져 꽤나 서정적이고 낭만적이다.

화천은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특히 산소100리길이라 부르는 구간은 숲과 강물을 모두 아우르는 절경으로 꼽힌다. 북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42.2km코스는 두세 시간 라이딩을 즐기기에 좋다. 코스는 봉어섬을 출발해 탄산유원지를 지나 물 위 부교를 달릴 수 있는 '숲으로 다리'와 '꺼머다리' 등 화천의 유명관광명소를 포함한다. 경사가 완만해서 초보자도 쉽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 화천 토고미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붕어섬

<http://tour.ihc.go.kr>

Tel. 033-441-757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하리

붕어섬은 춘천댐 담수로 인해 생긴 인공섬이다. 화천강 중앙에 있으며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를 통해 걸어갈 수 있다. 섬 내에는 각종 체육시설과 공연장, 수영장이 있다. 여름철에 주민 참여형 축제인 '물의 나라 화천 쪽배 축제'가 열린다.



### 숲으로 다리

<http://tour.ihc.go.kr>

Tel. 033-440-2492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화천산소길 중 가장 인상적인 코스로서 소설가 김훈이 직접 이름을 지어 유명한 곳이다. 강물위에 폭신한 푼톤 보트를 띄우고 그 위에 나무를 엮어 다리를 만들었다. 강과 숲의 경계를 마주하며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색다른 산책을 경험할 수 있다.



### 이외수 감성마을

<http://tour.ihc.go.kr>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감성마을길 157

화천여행에 '감성'의 바람을 일으킨 작가 이외수가 실제로 거주하는 마을이다. 이외수문학관을 중심으로 전통한옥, 모월당, 문학산책로, 야외공연장이 조성되어 있다. 문학관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글, 그림, 사진 등이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 거리리 수목공원

<http://tour.ihc.go.kr>

Tel. 033-440-2557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거리리

화천강변 따라 꿈결 같은 초원위로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티나무가 서 있다. 드라마틱한 풍경 덕분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춘다. 계절 따라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화사한 꽃으로 옷을 갈아입어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



마을  
체험하기



인절미 만들기

올해 갓 추수한 토고미 유기농 햅쌀로 직접 떡메치기에 도전한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사이좋게 떡메를 치면 찰기가 더 해진다. 쫄득한 느낌이 오면 거의 완성. 고소한 콩고물을 얹혀 뜨거울 때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



고구마 수확 체험

유기농으로 정성껏 가꾼 고구마를 직접 수확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조심스럽게 땅을 파다 보면 엉클째 딸려 나오는 고구마가 신기할 따름이다.



트랙터 타고 마을 한바퀴

재미난 마을소개와 더불어 울릉볼통한 마을길을 달궂거리며 달리는 재미가 남다르다. 잠시 멈춰선 논에서 우렁이를 만날 때 아이들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진다.



당나귀 타기

토고미마을의 마스코트는 귀염둥이 당나귀 한 쌍이다. 제한된 인원로 당나귀타기를 체험할 수 있는데 안정이 높지 않아 아이들도 편안하게 탈 수 있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토고미마을 > 점심 > 붕어섬 > 이외수감성마을

토고미마을에서 즐거운 마을체험을 끝냈다면 화천 시내로 발길을 돌려보자. 붕어섬이 이어진 화천강가를 거닐면서 자연풍경을 즐기면 된다. 시간여유가 있다면 돌아가는 길에 이외수 감성마을에 들러 메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보는 건 어떨까.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토고미마을 > 점심 > 이외수 감성마을 > 저녁  
둘째 날 : 거례리 수목공원 > 점심 > 붕어섬 > 숲으로 다니  
> 평화의 댐

화천은 파로호를 품은 감성여행으로 잔잔한 감동을 선물한다. 화천읍에서 점심식사 후 이외수 감성마을을 둘러보자. 작가의 감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학관과 산책로에서 잠시 쉬를 얻을 수 있다. 다시 화천읍내로 돌아오면 화천산소길을 따라 볼만한 곳이 꽤 있다. 거례리 수목공원과 숲으로 다리를 지나 세계평화의 공원까지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다.

TRAVEL TIP

대중교통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화천군까지 시외버스노선이 다양. 화천터미널에서 농어촌 7번, 3번 버스를 타고 신대리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약 3분 소요.

숙박

- 화천열차펜션 : 033-441-8877 / www.hctrainpension.com
- 아쿠아티리조트 : 033-441-3880 / www.aquaticresort.com
- 향기나라사람이 : 033-441-2479  
http://pensionhyanggi.modoo.at
- 별이빛나는밤에펜션 : 033-441-7711 / www.starrystarry.kr

먹거리

- 옛골식당 : 033-441-556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 4길 나 1동 11호
- 공사랑 : 033-442-2114,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길 39
- 대청마루 : 033-442-129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5길 8
- 명가 : 033-442-2957,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성로 57

통역가이드 정보

화천 토고미마을은 통역 서비스가 없으므로 여행사를 통해 가이드의 안내를 받게 좋다.



어름치마을 •

●  
강원도

## 천연기념물 어름치가 사는 곳에 펼쳐진 체험 천국

### 평창 어름치마을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하천 중상류의 맑은 물에서만 서식하는 어름치. 천연기념물 제 238호로 지정된 어름치를 마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곳에 가보자. 이름값에 답하듯 하늘의 푸른빛을 머금은 동강이 인사를 건네고, 래프팅, 카약, 스카이라인, 스카이점프, 백룡동굴 탐사, 칠족령 트래킹, 송어 맨손 잡기 등 자연에서 즐기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다채로운 추억 쌓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							
체험	동강 래프팅, 카약, 백룡동굴 탐사, 칠족령 트래킹, 스카이라인, 스카이점프, 송어 맨손 잡기, 여름치 산란탐 관찰, 야간 민물고기 탐사, 전기자전거 라이딩							
문의	어름치마을 033-333-6600, 033-332-1260 <a href="http://www.mahari.kr">http://www.mahari.kr</a> 평창군 문화관광과 033-330-2742							

평창읍에서 미탄면 마하리로 향하는 길은 속도를 낼 수 없다. 동강의 물줄기를 따라 도로가 굽이굽이 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선 가는 곳마다 절경이기에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라도 여행자의 속도는 절로 늦춰진다. 그렇게 미탄면사무소 소재지를 지나 기화리로 넘어가는 길목에 차량 통행을 위해 커다란 바위에 터널을 뚫은 곳이 나타난다. 이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어름치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먼 곳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도로의 끝에 다다라야 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 번도 끈게 흐르지 않는 동강을 보고 있노라니 강원도의 험한 환경과 고단한 생활을 노래한 정선아리랑 한 가락이 떠오른다.

“우리 집 서방님은 떼를 타고 가셨는데 황새여울 된꼬다리 무사히 지나가셨나”  
뗏목을 이용해 강원도에서 한양으로 목재를 옮기는 남편이 물살이 가장 센 황새여울을 무사히 지났는지 걱정하는 대목이다. 물 맑은 곳을 찾아 산세가 험한 지역으로 들어온 어름치도 봄이면 마을 가까운 곳에 산란탐을 쫓는다.

마을  
미리보기

출렁다리



##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체험 프로그램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매료된 풍경으로 인하여 어름치마을에 대한 기대감은 하늘을 찌른다. 정선에서 시작해 평창을 거쳐 영월까지 65km에 이르는 물줄기, 동강. 어름치마을이 자리 잡은 미탄면 마하리는 백운산 자락의 칠족령, 천연기념물 260호로 지정된 백룡동굴 등이 있어 동강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행운이 따르면 천연기념물 수달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을 자랑하는 어름치마을에서는 물과 육지, 하늘과 지하 등 모든 공간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더욱 즐겁다. 동강 유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래프팅,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공기주입식 카약, 동강에 서식하는 민물고기를 관찰하는 민물고기 야간탐사, 동강의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하는 칠족령 트래킹, 줄 하나에 의지해 허공을 가르며 하강하는 스카이라인,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높이의 스카이점프, 5억 년 전 생성된 백룡동굴 탐사 등을 모두 즐기기에 24시간도 부족하다.

- ① 백룡동굴
- ② 동강민물고기생태관
- ③ 야간민물고기탐사





## 역겹의 세월을 흐르며 동강이 만든 풍경 속으로



양식장 부근 식당에서 맛보는 송어정식



인플래터를 카약

어름치마을의 체험 프로그램만 제대로 접해도 여행은 풍성해진다. 하지만 느리더라도 가슴으로 느끼는 여행에 관심이 많은 여행자라면 어름치마을 본동에서 백룡동굴 탐사가 시작되는 문희마을까지 약 4.5km를 걸어도 좋다. 뗏꾼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안돌바위에 서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영화 <월کم투동막골> 세트장도 멀지 않으니 꼭 둘러보자.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탈영한 한국군, 사고로 하늘에서 떨어진 연합군, 낙오한 북한군 등 6명이 전쟁이 난 줄도 모르는 오지마을로 찾아오며 시작되는 영화의 촬영지이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산골마을 주민의 따뜻한 정을 어름치마을에서도 느낄 수 있다.

장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과 정선의 병방치 스카이워크에서 동강의 또 다른 아름다움도 감상하고 싶고, 국내 양식 송어 중 최고로 치는 송어를 맛보는 것도 놓칠 수 없으니 여행자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 모든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 역시 어름치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 평창 어름치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영화 <월کم투동막골> 세트장

<http://tour.ihc.go.kr>

Tel. 033-336-2602

평창군 미탄면 울치리 산 50-2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강원도 두메산골 동막골에 연합군과 국군, 북한군 등 여섯 남자가 들어오며 주민과 벌어지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 <월کم투동막골>. 이 영화의 촬영지에서 영화 속 이야기를 되새겨 보자.



### 기화리 송어양식단지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평창은 국내 양식 송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어름치마을 인근의 송어양식장은 자연에서 샘솟는 용천수를 이용하기에 연중 약 11도 내외의 낮은 수온이 유지되어 다른 지역의 송어보다 육질이 단단하다.



### 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

Tel. 033-563-4100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05

우리로 만든 전망대에서 동강이 만든 한반도 지형을 감상할 수 있는 병방치 스카이워크. 스카이워크 위쪽에서 국내 최대 길이의 짚와이어를 타고 강변까지 단숨에 내려올 수도 있다.

### 장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Tel. 033-332-2625

강원 평창군 평창읍 여만리

189-7(장암산)

평창읍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명산으로 꼽히는 장암산. 해발 700m 높이에 조성된 장암산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내려오면 동강의 풍경과 함께 강원도의 빼어난 산세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마을  
체험하기



**칠족령 트래킹**

칠족령 트래킹은 왕복 3.5km에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비록 짧은 코스이나 정선군 신동읍의 소골과 제장마을을 병풍처럼 감싼 웅장한 절벽과 그 사이를 흐르는 동강의 풍경을 감상하기에 제격.



**백룡동굴 탐사**

약 5억 년 전에 생성된 백룡동굴은 입구에 온돌이 있고 주위에 토기 조각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옛 우리 선조의 거처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룡동굴은 보존을 위해 조명이 없기에 헤드랜턴 착용 후 탐사 가능.



**동강 래프팅**

강원도 동강에서 가장 먼저 래프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름치마을이다. 동강 중심부에 위치한 백룡동굴 앞에서 출발하여 진탄나루까지 크고 작은 여여섯 곳을 지나치기에 스릴 만점.



**동강라이더(Zip라인)**

언덕 위에서 줄 하나에 의지해 하강하며 동강의 빼어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동강라이더. 여름치마을 입구의 언덕 위에서 강 건너 진탄나루공원까지 직선거리는 약 250m를 10여 초 만에 내려오기에 스릴 만점.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월کم투동막골 세트장 > 점심 > 여름치마을 > 동강민물고기생태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연합군과 국군, 북한군 그리고 주민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려낸 영화 <월کم투동막골> 촬영지에서 영화 속 인건간 넘치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이후 기화리 송어양식단지에서 싱싱한 송어회로 배를 채우고 여름치마을이 준비한 모험을 만끽한다.

첫째 날 : 장암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 평창바위공원 > 기화리 송어양식단지(점심) > 여름치마을 > 백룡동굴 탐사 > 저녁  
둘째 날 : 칠족령 트래킹 > 점심 > 병방치 스카이워크 > 동강생태체험학습장

해발 700m 높이의 장암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의 종착지 인근의 평창바위공원을 거쳐 송어양식단지에서 배를 채운 후 여름치마을에 펼쳐진 모험의 세계를 들어가시라. 첫날은 백룡동굴 탐사로 여정을 마치고 다음날은 칠족령 트래킹으로 시작해 정선군 병방치 스카이워크에서 동강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를 권한다.

TRAVEL TIP

**대중교통**

1.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이용, 평창군 미탄정류소 하차(2시간 50분 소요) 후 택시 이용(15분 소요)
2. 미탄정류소에서 여름치마을까지 운행하는 농어촌버스가 있으나 하루 세 번 운행하여 불편 (30분 소요).

**숙박**

여름치마을은 오토캠핑장과 카라반을 운영, 이외에도 본동과 문희마을에 주민이 운영하는 펜션이 여럿(캠핑장 문의 033-333-6600)

- 생태펜션 : 033-333-6689 / www.raff.kr
- 이레산장 : 010-6283-3220 / www.mahari.kr
- 아스테리아펜션 : 010-5363-4321 / www.astriaps.com
- 백운산방 : 033-334-9891 / www.munhee.net

**먹거리**

- 기화양어정횿집 : 033-332-6277 / 평창군 미탄면 평창동강로 495-6
- 강촌매운탕 : 033-332-9999 /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1-13
- 동강식당 : 033-333-6689 /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1-5
- 시골밥상 : 033-332-4134 /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50

**통역가이드 정보**

영어권 관광객은 여름치마을에 문의하면 관광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 에덴양봉원

● 강원도

## 생태계를 살리는 꿀벌아, 고마워!

황성 에덴양봉원

꿀벌에게 쓰이면 어쩌나 했던 두려움은 어느새 꿀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꿀벌이 달콤한 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에 얼마나 유익함을 주는 지 배운다. 이제는 꿀벌이 무섭지 않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더니, 아는 만큼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꿀벌아, 고마워!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797-8(추동리 3-73)							
체험	생태학습장에서 벌관찰, 양봉장에서 벌집관찰, 꿀채집, 꿀비누만들기, 꿀벌의 생태교육 등							
문의	033-343-3924 www.honeyfarm.net							

강원 횡성의 에덴양봉원은 교육농장을 통해 아이들에게 꿀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벌꿀 제품을 소개한다. 2011년에 농촌교육농장으로 선정된 '에덴의 꿀벌학교'는 체험 프로그램이 30여 가지가 넘는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3학년의 이용이 90%를 차지한다. 연간 유료방문객이 3천여 명에 달할 정도. 에덴양봉원을 운영하는 부부가 농촌교육농장 교사양성 과정을 함께 수료하며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다.

윤상복 대표는 에덴양봉원을 2대 째 운영한다. 약 50년 전 아버지가 할머니의 병 구완에 쓰려고 벌꿀을 사다 드렸는데, 꿀 값이 너무 비싸서 구하기가 어렵자 직접 꿀을 따보려고 벌통을 산 것이 시작이다. 아버님의 지극한 효심으로 시작한 가업이니만큼 윤상복 대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벌에게 설탕을 먹여 생산한 '사랑벌꿀'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양봉 가업을 지켜왔다.

## 마을 미리보기

생태학습관에서 꿀벌을 관찰하는 아이들



## 꿀벌에게 절로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는 시간

에덴의 꿀벌학교에 도착하면 먼저 꿀차를 대접받는다. 체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표님 부부의 달콤한 친절에 녹아든다.

꿀벌학교의 체험은 꽃에 꿀을 따러 온 벌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한다. 각종 꽃과 수목이 우거진 생태학습장에서 아이들은 꿀벌 다리에 붙은 꽃가루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꿀을 빼는 벌의 침도 관찰한다.

관찰복을 단단히 여머입은 다음에는 벌통을 관찰하러 간다. 말린 속에 물을 붙여 연기를 내어 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꿀과 밀랍과 프로폴리스를 만들어 제공해 주는 꿀벌들을 가까이 바라보며 벌들과 조금씩 친해진다. 이번에는 직접 꿀을 채집해 본다. 꿀채집기에 꿀이 가득 들어있는 벌집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 원심력에 따라 꿀이 쏟아진다. 아이들은 자신이 채집한 꿀을 연신 손가락에 찍어 입에 가져간다. 이 맛이 바로 꿀맛! 아이들은 자신이 채집한 꿀 병에 붙일 라벨을 직접 디자인한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꿀이다.

- ①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을 관찰한다
- ② 보호복을 여머입고 벌집관찰
- ③ 밀랍과 꿀로 채워진 벌집 관찰



꿀벌 학교에서는 꿀벌의 집이 왜 6각형인지, 꿀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꿀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공부한다. 꿀벌 학교에서 만드는 비누는 조금 특별하다. 진짜 꿀과 프로폴리스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누 베이스를 열심히 자르고, 녹이고, 다시 굳히는 작업을 하는 동안 꿀과 프로폴리스의 효능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정직하고 근면한 꿀벌을 닮은 대표님 내외가 하루종일 웃으며 체험을 진행한다. 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꿀벌아 사랑해!'를 외치며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간다.





## 멋과 맛이 살아있는 횡성



운치있는 자작나무숲

횡성은 한우로 유명하다. 횡성한우축제 기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횡성읍내에서 질 좋은 한우를 먹을 수 있다. 한우국밥이나 소머리국밥도 횡성의 인기메뉴다. 횡성 여행도 식후경이니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곳저곳을 둘러보자. 횡성읍내의 횡성향교는 멋들어진 은행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 언제보아도 근사하다. 세계질 내내 운치있는 미술관 자작나무숲에서는 자작나무가 우거진 숲의 운치를 느끼기에 좋다. 횡성담으로 수몰된 마을을 기념하는 망향의 동산에 오르면 횡성호를 내려다보며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폐교를 박물관으로 만든 횡성한울문예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한국화 작품들을 전시해 두었다.

횡성 망향의 동산에서 내려다보는 횡성호



주변  
둘러보기

## 횡성 에덴양봉원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횡성향교

Tel. 033-343-4525

강원도 횡성군 횡성을 읍상리 산12-2

횡성향교는 향교 건물도 좋지만 300살 먹은 은행나무를 보러가는 곳이기도 하다. 가을이면 향교 전체에 은행잎이 노랗게 깔리는 풍경이 아름답다.

### 횡성 망향의동산

Tel. 033-345-9657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태기로구방5길 40

2000년에 횡성댐이 완공되면서 강원도 횡성에 있던 5개의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자 수물민들의 애환이 깃든 물품을 전시해 두었다. 정자에 앉으면 횡성호가 내려다보인다.

### 횡성한얼문예박물관

Tel. 033-345-0151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경강로 2885-2

인구가 줄어 폐교가 된 횡성의 용둔초등학교가 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남농 허건 선생의 제자 두 분이 운영한다.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고 가면 작품설명을 들을 수 있다.

### 미술관 자작나무숲

<http://www.jisoup.com/>

Tel. 033-342-6833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한우로두곡5길 186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독실마을 건물들 사이의 모든 곳이 미술관의 정원이자 산책로이다. 자작나무의 수려한 자태 뿐만 아니라 미술관 곳곳에서 계절에 따른 자연의 선물을 느낄 수 있다. 입장료가 비싼편.



134

THEME 02 NATURE  
강원 | 자연여행

마을  
체험하기

## 꿀비누 만들기

꿀벌이 모아준 꿀과 밀랍, 프로폴리스를 이용해 꿀의 효능, 밀랍의 효능, 프로폴리스의 효능을 배우며 고운 색깔의 비누를 완성한다.

## 생태학습장에서 벌관찰하기

화사한 꽃들이 만발한 생태학습장에서 꿀벌의 모습을 관찰한다. 꽃 위에 앉아 꿀을 빼는 벌, 벌에 붙은 꽃가루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재미가 있다.



## 양봉장에서 벌집관찰하기

보호복을 여며 입고 양봉장으로 향한다. सू 연기를 뿜으며 벌을 차분하게 하고, 벌집에서 꿀을 빼는 일벌과 여왕벌을 관찰한다.



## 꿀 채집하기

벌집에서 방금 떨어진 순도 100%의 꿀을 가래떡에 찍어먹고, 나만의 꿀통을 디자인한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황성한얼문예박물관 &gt; 점심 &gt; 에덴양봉원 &gt; 망향의 동산 &gt; 황성향교

황성한얼문예박물관에 들러 재미있는 작품 설명을 들으며 박물관을 둘러보자. 점심은 황성읍내에서 한우국밥을 먹으면 든든하다. 에덴양봉원에서 꿀벌과 놀다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망향의 동산에 올라 황성호를 내려다 보고 돌아오는 길에 황성향교에 들러 은행나무를 감상하자.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황성한얼문예박물관 &gt; 점심 &gt; 에덴양봉원

## 둘째 날 : 망향의 동산 &gt; 점심 &gt; 황성 향교 &gt; 미술관자작나무숲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에덴양봉원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즐겨보자. 꿀벌에 대해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기하다. 점심에는 한우국밥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웠다면, 저녁에는 축원에서 운영하는 한우프라자에서 한우를 구워먹자. 황성향교와 미술관 자작나무 숲에 들러 강원도의 자연을 감상하면 즐거운 여행의 마무리가 되겠다.

135

## TRAVEL TIP

## 대중교통

서울의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출발, 황성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6:50분부터 50분 간격으로 17:15까지 운행). 소요시간 약 2시간, 운임 1만원. 황성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 약 10분 소요, 택시비 약 10,000원.

## 숙박

- 코치호텔 : 033-343-3000 / 강원도 황성군 황성을 한루로 267 서동빌딩
- S모텔 : 033-343-3110 / 강원도 황성군 황성을 만세공원길 1
- 드림파크모텔 : 033-344-5300 / 강원도 황성군 황성을 문정로30번길 7

## 먹거리

에덴양봉원에 점심식사를 신청, 친환경 이채로 만든 비빔밥을 주문할 수도 있고, 꿀벌모양 주먹밥을 만드는 이색체험도 가능하다. 황성읍내에는 황성종합운동장 쪽에 한우국밥집들이 많고, 황성오거리 근처에 한우구이집이 많다.

## 통역가이드 정보

에덴양봉원의 여행비이라 불리는 한정에 대표가 영문학을 전공했다. 통역이 없어도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다.



향매실마을 •

전라남도

봄이면 매화향이 넘실대고  
여름이면 매실이 주렁주렁

순천 향매실마을

매화하면 사람들은 광양 매화마을을 먼저 떠올리지만, 대한민국 최대의 매화농장은 순천에 있는 향매실마을이다. 계월리에서 처음으로 매화를 심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의 일이다. 지금까지 하나 둘 매화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30만 평에 이르는 드넓은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어, 봄이 되면 산아래 마을에 온통 눈이 내린 것처럼 하얀 꽃동산을 이룬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월등면 계월길 138							
체험	매실수확, 매실청 담기, 매실김치만들기, 복숭아수확							
문의	향매실마을 향매관 061-754-2337, <a href="http://순천향매실.kr">http://순천향매실.kr</a>							

향매실마을은 상동, 외동, 중촌, 이문, 내동 등 5개마을로 이루어져 있어 풍성한 전설과 볼거리를 간직하고 있다. 군장마을로 넘어가는 고개길에는 장군이 용마를 타고 하늘로 도약하면서 남겼다는 용발대 족(용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중촌마을에는 당산나무인 수령 500년생 느티나무 두 그루가 마을 입구에 버티고 서있어 마을의 오랜 역사를 잘 말해준다.

이문마을에는 향매실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매화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택종 선생이 일본에서 가져와 최초로 심은 매화나무다.

마을에는 매화와 함께 멋진 한옥들이 많다. 체험관도 한옥으로 지었으며, 중촌마을 아래에는 한옥행복마을이 조성되어 귀농한 도시인들이 주로 살고 있다. 마을에서는 매실을 이용한 특산품으로 매실 장아찌, 매실 엑기스 등을 생산하고 있다.

마을  
미리보기

향매실마을 체험관의 향매관



## 매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봄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는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면 다 익어서 수확을 시작한다. 태풍과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확이 이루어져 낙과피해를 거의 입지 않는 과일이 매실이라 매력적이다. 6월 매실 수확철이 되면 매실수확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매실을 활용한 매실장아찌 담그기도 인기가 높다. 겨울철에는 매실김치 담그기를 해볼 수 있다. 매실은 소화작용을 돕는 효과가 뛰어나 천연소화제 역할을 한다.

체험관 내부에서는 문패 만들기, 가면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여름에는 복숭아수확체험, 가을에는 고구마수확체험 등을 할 수 있다. 체험관에서 눈길을 끄는 시설은 달관촉소이다. 천문대처럼 보이는 3층 건물인데, 마을 이름과 연관이 있다. 향매실마을로 불리기 전 원래 이름이 계월마을인데, 달속의 계수나무라는 의미다. 달을 관측하며 달속에 계수나무가 있는지 찾아보자. 달관촉소라 이름을 붙였지만 관촉소 안의 천체망원경을 이용해 별을 관측할 수도 있다.

- ① 달관촉소에서 바라본 한옥행복마을과 과수원
- ② 체험관에 전시된 향매실마을 특산품
- ③ 마을에서 수확한 매실
- ④ 달관촉소 전경





## 자연생태와 역사적 문화유산들의 조화



항매실마을 체험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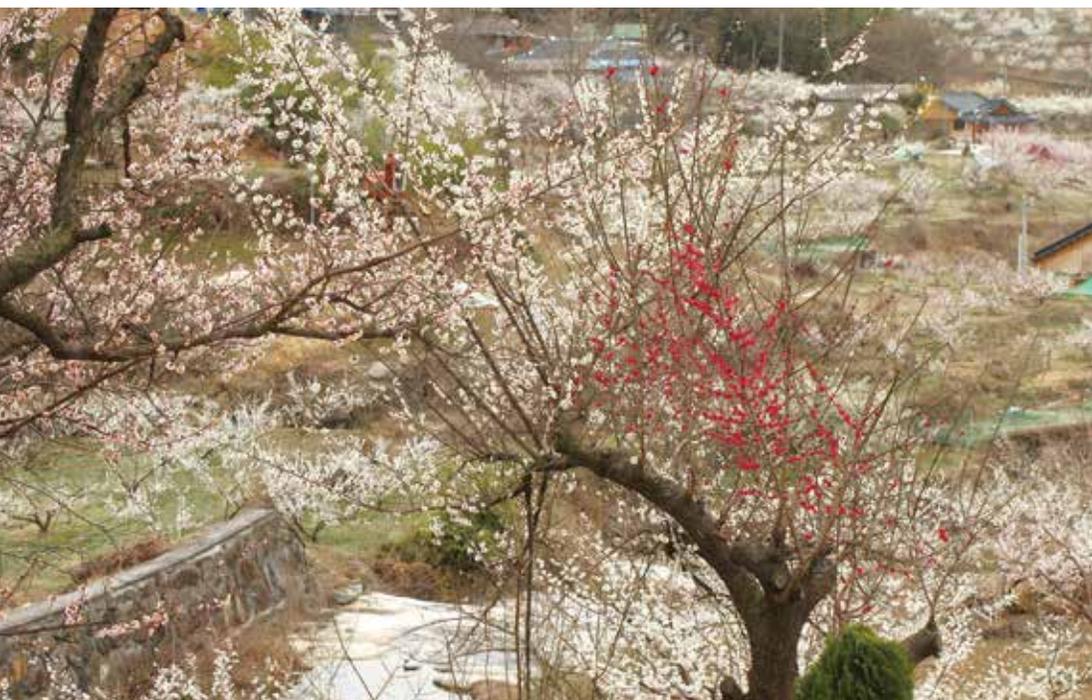


중촌마을의 수령 500년생  
느티나무 보호수

순천만으로 대표되는 순천은 자연생태가 잘 살아있어 생태체험관광지로 인기가 높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순천만 국가정원까지 조성되면서 연계 관광이 이어져 생태체험의 비중은 더 높아졌다. 잘 가꾸어진 정원은 빼어난 자연생태 못지 않게 나그네의 쉼터로 제 몫을 다하고 있다.

1500여 년 전에 세워진 선암사에는 수령 600년이 넘는 매화나무 두 그루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낙안읍성민속마을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살아오던 전통가옥으로 잘 보존해야 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자연생태와 오랜 역사적 유산들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알찬 여행을 보장한다.

한가지에 두가지 색 매화가 피는 매화나무



# 순천 향매실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선암사

[www.seonamsa.net](http://www.seonamsa.net)

Tel. 061-754-5247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오래된 매화나무가 많은 곳은 선암사로 순천 매화의 명형은 선암사 선암매이다. 이중 고목으로 자란 수령 약 600년의 백매와 홍매 2그루는 천연기념물 제 488호로 지정되었다. 선암사 입구의 승선교는 보물로 지정된 아름다운 전통다리다.



## 순천만습지

[www.suncheonbay.go.kr](http://www.suncheonbay.go.kr)

Tel. 061-749-6052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순천만은 순천시를 중심으로 동쪽의 여수반도와 서쪽의 고흥반도에 둘러싸인 호수를 이루고, 광활한 갯벌이 펼쳐져 자연생태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2006년 1월에는 국내 연안 습지 최초로 람사협약에 등록되어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순천만의 드넓은 갈대숲에 탐방로를 가까이 바라보며 생태탐방길을 걸어보자.



## 순천만국립정원

[www.garden.sc.go.kr](http://www.garden.sc.go.kr)

Tel. 1577-2013

순천시 국자정원 1호길47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당시 조성된 정원으로 박람회가 끝난 후 개조하였다. 대한민국 제 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세계정원은 세계 11개국이 참여하여 각 국가별로 특색 있는 전통양식과 멋을 자랑하는 정원들을 선보이고 있다.



## 낙안읍성민속마을

[www.suncheon.go.kr](http://www.suncheon.go.kr)

Tel. 061-749-8831

순천시 낙안면 충민길 30

낙안읍성 민속마을(사적 302호)은 순천시 낙안면의 동내리, 남내리, 서내리의 3개 마을에 자리잡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마을이다. 낙안읍성 안에는 노란 지붕의 초가집이 몰려 있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진다.

마을  
체험하기

## 매실수확 체험

주로 6월에 진행되는 농촌수확체험이다. 잘 익은 매실을 따낸 후 봉지 예 5kg을 담아서 가져간다. 매실은 생으로 먹기 어려운 과일이라 매실 효소, 매실장아찌로 만들면 좋다.



## 가면 만들기 체험

가면 모형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나누어준 스티커를 붙여 가면을 멋지게 장식한다. 고무줄을 가면의 양쪽 끝에 걸면 멋진 가면이 만들어진다.



## 문패 만들기 체험

나무를 깎아서 만든 문패에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다. 장식 스티커를 붙여서 멋지게 장식한다. 문패 위쪽에 줄을 묶어 걸 수 있도록 만들면 완성.



## 고구마 캐기 체험

주로 10월에 진행되는 수확체험이다. 고구마줄기를 걷어낸 후 호미로 땅을 파서 고구마를 캐낸다. 봉지에 고구마 5kg을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간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향매실마을 &gt; 점심 &gt; 선암사 &gt; 낙안읍성

향매실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인 가면만들기, 문패만들기 체험을 한 후 점심을 먹는다. 1,500년 역사의 고찰인 선암사를 둘러보고 낙안읍성으로 떠나자.

1박 2일  
코스첫째날 : 선암사 > 낙안읍성민속마을 > 점심 > 향매실마을 > 저녁  
둘째날 : 순천드라마촬영장 > 점심 > 순천만국가정원 > 순천만

첫째날은 오전에 선암사와 낙안읍성민속마을에 들른 후 점심을 먹는다. 향매실마을에서 체험을 한 후 저녁에는 달관측소에서 달을 관측해보자. 둘째날은 순천드라마촬영장에 들른 후 점심을 먹는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각 나라의 정원을 둘러보며 여유로움을 누리자. 순천만의 갈대밭을 돌아본 후 용산전망대에서 일몰을 보는 것도 좋다.

141

## TRAVEL TIP

## 대중교통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순천행 고속버스 이용, 1시간 간격 운행, 3시간 50분 소요. 용산역에서 순천행 KTX를 이용 (순천역 하차), 2시간 30분 소요. 순천종합터미널이나 순천역에서 30, 35, 36번 버스 이용, 계절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15분 소요.

## 숙박

- 향매실마을의 민박집. 061-754-2337, 010-4622-7180
- 낙안민속자연휴양림 061-754-4400
- 순천자연휴양림 061-749-8948
- 유심천스포츠킴호텔 061-729-5800 www.us1000.co.kr
- 에코그라드호텔 061-811-0000 www.ecogradhotel.co.kr

## 먹을거리

- 선암사 주변에 신채정식이나 염소떡김비를 잘하는 식당이 많다.
- 순천만국가정원에서 3km 거리에는 한우전문점이 있다.
- 장원식당 061-754-6362 순천시 승주읍 승암교길 15
- 향토가든 061-751-9076 순천시 승주읍 승주교목길 3
- 일몰매우 061-724-5455 순천시 대석3길 3-26

## 통역가이드 정보

향매실마을이나 순천시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가 없어 여행사 등을 통해 미리 통역을 구해야한다.



● 알프스마을

● 충청남도

사계절이 즐겁다!  
사계절이 행복하다!

청양 알프스마을

도립공원 칠갑산 기슭에 자리한 알프스마을. 산이 깊고 골이 깊은 만큼 공기 맛이 남 다르다. 알프스마을에 가면 사계절 축제가 열린다. 유래, 상괘, 통쾌한 청정공기와 함께 자연의 품에서 즐기다 보면 행복지수가 한없이 치솟을 것 같다. 빼어난 자연이 품은 청양 알프스 마을로 떠나본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23-35							
체험	조롱박 공예체험, 조롱박 미스트 만들기, 눈썰매타기							
문의	청양알프스마을 041-942-0797, <a href="http://www.alpsvill.com">http://www.alpsvill.com</a> 청양군 문화관광과 041-940-2491~2							

충청남도의 명산인 칠갑산 도립공원(561m)은 계곡이 깊고 험해서 충남의 알프스라 불린다. 천만다행으로 36번 국도와 645번 지방도로가 연결되어 왕래가 쉬워졌다. 칠갑산 자락에 터를 잡은 알프스마을은 찾아가는 길 역시 비탈진 산간도로를 달려야 한다. 급한 경사면을 내려가자 마을 진입도로가 나온다.

시골의 정취가 마을 곳곳에 묻어 있다. 산비탈 아래 줄줄줄 냇물이 흐른다. 꽤나 긴 개울이지만 산 그림자에 가려 햇볕이 태생적으로 들지 않는 모습이다. 가장자리에는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도 충분할 것 같은 평상이 놓였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개울에 발을 담고 누워있으면 더위는 금방 사라질 것 같다. 푸른 잔디구장과 승마체험장, 수영장, 줍트랙, 캠핑장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채롭다. 알프스마을은 연간 30만 명 이상이 찾는 축제가 끊이지 않는 즐겁고 행복한 마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일까, 40가구에 1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산골마을에도 활기가 느껴진다.



깊은 산에 둘러싸인 황금들녘



## 사계절 다채로운 체험거리가 가득

알프스마을은 칠갑산 도립공원 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 하지만 겨울에는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눈이 녹지 않고 골바람 또한 매섭다.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으니 논농사보다 밭농사 비율이 높다. 여행자에게는 아름다울지 모르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척박한 환경이다. 그런데 밭상의 전환은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겨울만 되면 한기가 가득했던 땅에서 칠갑산 얼음분수축제가 열린다. 기간도 자그마치 45일간이다. 얼음조각, 눈조각, 얼음동굴 등 시베리아에 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얼음조각품들이 선보인다.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눈썰매, 얼음썰매, 봅슬레이 등도 인기다. 모닥불에 구워먹는 밤 맛 또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이다. 가을에는 칠갑산 콩축제가 기다린다. 콩알새총, 도리깨질, 콩타작 등 도시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체험프로그램들이다. 여름에는 마을 특산품인 조롱박을 이용한 세계조롱박축제가 30일간 열린다. 색깔부터 이국적인 화려한 조롱박과 토속적인 조롱박까지 세계 각국의 조롱박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박 음식 만들기, 박 공예품 만들기, 조롱박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다채롭다. 봄에는 조롱박과 연계한 뷰티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 ① 청양의 농특산품 청양고추 조형물
- ② 알프스 하이디처럼  
통나무 그네 타보기
- ③ 장작불로 구워먹는 군밤
- ④ 겨울축제를 즐기는 아이들





알프스마을의 설경

## 겨울이 깊어질수록 즐거움이 넘치는 농촌여행

145



칠갑산도립공원 중턱에 있는 공발매는 아낙상



칠갑산도립공원 등산로

알프스마을에서 칠갑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거리는 정상까지 3km, 정상에서 천장호 출렁다리 방향으로 하산할 경우 3km 정도를 더 내려가야 한다. 칠갑산 도립공원을 오르는 가장 편안한 길은 산장로 코스로서 총 4km 거리이다. 주차장과 식당,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편리하다. 산장에서 자비정까지는 힘들이지 않고 산책하듯 걸을 수 있다. 이어지는 임도를 따라 걷다보면 칠갑산 천문대에 다다른다. 청양은 청정지역인 만큼 광(光)공해가 적어 천문관측에도 좋은 입지조건을 갖췄다. 자녀들과 칠갑산 천문대에 둘러 우주의 신비에 한발 다가서도 좋겠다.

천문대를 지나 팔각정까지는 편안한 오솔길이 이어진다. 문제는 정상을 코앞에 둔 200m 구간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급경사 계단을 올라야 정상이다. 숨이 깔딱 넘어갈 것 같은 순간, 정상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파노라마 풍경은 그동안의 수고를 단숨에 씻어버린다. 칠갑산 정상에 오르는 코스는 이외에도 천장·도림·지천·휴양림로 코스가 있다. 등산이 힘들다면 칠갑산 제일의 명소인 천장호 출렁다리를 찾아보자. 예능 방송프로그램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로 소개되었다.

# 청양 알프스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천장호 출렁다리

Tel. 041-940-2492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호길 24

천장호 출렁다리는 총길이 207m, 폭 1.5m로 국내 최장, 아시아 두 번째 규모이다. 청양의 농특산물인 고추모형으로 만든 탑을 지나 천장호를 가로질러 다리가 놓였다. 칠갑산을 배경으로 푸른 호수를 받아들여 두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색명소이다.



## 칠갑산 천문대

[star.cheongyang.go.kr](http://star.cheongyang.go.kr)

Tel. 041-940-2790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한티고개길 178-46

칠갑산 천문대는 반딧불이 서식할 만큼 청정자연을 잘 간직해 칠갑산 중턱에 자리한다. 천체투영실, 영상강의실, 관망대, 주·보조 관측실의 시설을 갖췄고 별과 달을 관측하며 우주의 신비를 느끼도록 다양한 천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청양목재문화체험장

[www.chilgapsan.net](http://www.chilgapsan.net)

Tel. 041-940-2841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1

체험관에 들어가면서부터 숲에 온 듯 향기로운 나무향이 실내를 감싼다. 2010년에 세워진 이후 다양한 목재전시물을 관람·체험하기 위해 방문객이 찾는다. 야외에는 목재전망데크와 데크로드가 있어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하다.

## 고운식물원

[www.kohwun.or.kr](http://www.kohwun.or.kr)

Tel. 041-943-6245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식물원길 398-23

이름도 예쁜 고운식물원은 37ha의 부지 위에 8천600여종의 다양한 꽃과 수목들이 심겨진 곳이다. 식물과 숲의 자연치유력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의 힐링을 돕는다. 11가지 이야기가 있는 치유의 길을 걷노라면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마을  
체험하기

## 군밤 굽기 체험

통나무에 불을 지펴 직접 군밤을 구워 먹는 체험이다. 긴 자루에 달린 철망에 군밤을 넣고 이리저리 돌려 군밤을 구우면 탁탁탁 껍질이 터지는 소리가 난다. 군밤 익는 냄새가 솔솔 피어오르면 껍질을 까서 먹으면 된다.



## 조롱박 공예체험

여름에 열리는 세계조롱박축제에 참가하면 다양한 조롱박을 볼 수 있다. 세계 희귀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조롱박 터널이 압권이다. 조롱박 공예 체험은 양중맛은 조롱박에 글과 그림을 그려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조롱박 미스트 만들기

조롱박은 관상용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아 박으로 만든 미스트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함유량이 높아 촉촉한 피부가 된다. 분량의 원료를 저울에 달아 서로 합하면 촉촉한 수분을 공급하는 미스트가 완성!



## 눈썰매 타기

추운 겨울이 올수록 뜨거운 열기가 넘쳐오는 칠갑산얼음분수축제가 열린다면 마을 전체가 알프스로 변신한다. 눈썰매를 비롯하여 얼음썰매, 봅슬레이 등 체험거리가 많아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알프스마을 &gt; 점심 &gt; 천장호 출렁다리 &gt; 청양목재체험관

칠갑산 산기슭에 포근하게 자리한 알프스 마을을 나와서 처음 향하는 곳은 천장호 출렁다리이다. 출렁다리로 가기 전에도 산책로와 벤치 등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조용히 쉬어가기 좋다. 칠갑산 자연휴양림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도 천장호에서 가깝다.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알프스마을 &gt; 점심 &gt; 천장호 출렁다리 &gt; 저녁

## 둘째 날 : 칠갑산자연휴양림 &gt; 점심 &gt; 청양고추문화마을 &gt; 고운식물원

칠갑산도립공원을 중심으로 칠갑산 동쪽 천장호에 있는 출렁다리는 상하좌우가 흔들려 짜릿함을 맛 볼 수 있다. 북서쪽으로 차를 몰면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가 나온다.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하룻밤 쉬 뒤 청양읍에 있는 청양고추문화마을과 고운식물원까지 들리다면 더욱 알찬 여정이 된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고속버스로 정산합동정류소에 내려 농어촌 버스로 갈아 탄 뒤 천장리 정류장에 하차, 600m정도를 걸어가면 청양 알프스 마을.

## 숙박

- 청양알프스마을 : 마을에서 직접 펜션을 운영,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50평형부터 13평형까지 구비. 축제기간에는 인기가 미리 예약필수. 041-942-0797 / www.alpsvill.com
- 칠갑산자연휴양림 : 041-940-2428 / www.chilgapsan.net
- 방기옥고택 : 010-5283-8764 / www.황원재.com
- 까치계곡펜션 : 010-6772-3693 / www.까치계곡펜션.com

## 먹거리

- 청양 알프스 마을 내의 식당은 제철 음식으로 차린 소박한 백반이 별미.
- 칠갑산맛집 : 041-943-5912,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119-39
- 칠갑산골 : 041-943-7211,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장곡길 147
- 충청수산 : 041-943-0008, 충청남도 청양군 정평면 사수터길 5-47

## 통역기대도 정보

알프스마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없으므로 여행사를 통해 가이드의 안내를 받게 좋다.

---

THEME 01  
**EXPERIENCE**

자연에서 추억을 깨는  
체험여행




---

THEME 02  
**NATURE**

유쾌 · 상쾌 · 통쾌의 조화로운  
자연여행




---

**Check Point**

마을별 체험은 대부분의 마을이 단체(30인 이상)가 신청시 가능하며,  
계절에 따라 체험일정과 체험 종류, 체험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체험전 반드시 사전예약은 필수!

- 본 여행가이드북에 제시된 체험비용은 30인이상 기준입니다.



---

THEME 03

## ORIENT

아이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전통여행



---

THEME 04

## WELL-BEING

최고의 먹거리를 만끽하는  
웰빙여행



방곡도깨비마을

●  
충청북도

## 장작 가마로 도자기를 굽는 백두대간 오지마을

단양 방곡도깨비마을

도깨비가 살고 있어 도깨비마을일까? 방곡 도깨비마을은 다른 마을에 마실을 다녀오던 사람들이 늦은 밤에 돌아오면서 도깨비에게 훔쳤는지 나무를 붙잡고 씨름을 하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방곡 도깨비마을에 가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 오미자 떡을 빚는 체험에 한 번 둘러보자.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선암계곡로 148							
체험	도자기 체험, 나만의 그림도자기 만들기, 오미자 떡만들기, 계절재료 요리체험, 천연염색체험							
문의	010-4791-7858 <a href="http://www.bgri.kr">http://www.bgri.kr</a>							

절경도 이런 절경이 없다. 중선암과 상선암을 지나 선암계곡의 경치에 흘러 오다보면 방곡리에 도착한다. 첩첩 산중에 둘러싸여 평화로운 방곡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했다. 방곡 도깨비마을에서는 여전히 소나무 장작을 땀감으로 사용해 도자기를 굽는 전통적인 장작 가마 방식을 6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다수의 도예인이 이곳에 살면서 흙을 고르고 물레를 돌려가며 갖가지 그릇을 빚고, 공방과 가마를 운영한다.

방곡 도깨비마을에서 운영하는 도예촌에서는 도예전시관과 도자판매장, 도예교육원을 상설 운영한다. 도예전시관에서는 도자기가 생산되는 전 과정을 모형을 이용해 자세하게 보여주어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의 시대별 도자기를 전시해 두었다. 질 좋은 도자기를 사기 위해 일부러 방곡 도깨비마을의 도자판매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도예 장인과 함께 물레를 돌려보는 아이



## 나만의 도자기야, 만들어져라 똑딱!

방곡 도깨비마을의 으뜸 체험은 단연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다. 체험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도예 장인과 함께 물레를 돌려볼 수도 있고, 잘 구워진 도자기 그릇에 나만의 그림을 그려넣을 수도 있다. 멋스러운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다 보면 재미있고 뿌듯하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도자기는 불가마에서 잘구워져 한달 후에 집으로 배달된다.

마을을 둘러싼 오미자 밭도 마을의 자랑거리다. 붉은 열매가 알알이 맺힌 오미자를 보면 눈이 즐겁고, 향긋한 오미자 향기를 맡으며 정성스럽게 오미자를 수확하다보면 코가 즐겁다. 새참으로 내어주는 오미자 효소도 맛이 좋다. 오미자 파이나 오미자 팝콘처럼 색다른 먹거리를 만들어보고, 오미자 떡을 빚어 나누어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외에도 도토리를 채취해 목을 쑤어 먹고, 직접 콩을 털어서 가마솥에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 음식 체험을 하고 나면 전래놀이인 실뜨기도 배워보고, 알록달록 천연염색도 하며 마을을 돌아본다. 방곡 도깨비마을에서는 마을 공동 민박동을 운영해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방곡 도깨비마을을 둘러보면 청정한 자연과 도예촌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다. 어쩌면 영험하고 신성한 도깨비가 마을을 지키고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 ① 도예전시관에 늘어난 옹기들
- ② 도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도자판매장
- ③ 천연염색체험
- ④ 감자캐기 체험을 하는 아이들





계곡의 시원한 물놀이

## 단양 구석구석의 근사한 여행지를 찾아서

마을의 특산품인 오미자



단양의 유명한 관광지인 도담삼봉, 고수동굴, 양백산 전망대까지 웬만한 곳은 다 둘러보았다면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를 찾아보자. 단양 시내의 다누리아쿠아리움은 사계절 내내 인기다. 살아있는 거대한 물고기들을 구경하고, 4D체험관에서 거북이와 펭귄을 주인공으로 한 영상도 챙겨보자. 유아를 위한 숲체험원으로 새로 조성된 도담도담삼봉숲에 가면 숲의 정취와 단양 시내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단양의 온달관광지는 고구려의 명장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을 테마로 한 온달전시관을 비롯하여 온달산성과 온달동굴 등의 명승지를 모아놓았다. 많은 드라마들의 촬영지이기도 해서, 드라마 속의 장면이나 의상, 소품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단양의 장회나루에서 유람선을 타면 단양8경 중의 2경인 구담봉과 옥순봉을 볼 수 있다.

주변  
둘러보기

## 단양 방곡도깨비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154

THEME 03 ORIENT  
종북 | 전통여행

### 다누리아쿠아리움

[aqua.danuri.go.kr](http://aqua.danuri.go.kr)

Tel. 043-423-4235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수변로 111  
다누리센터

국내외 민물고기 2만 2천여 마리를 전시하는 대규모의 아쿠아리움이다. 대형 수조속의 철갑상어나 쏘가리도 인상적이지만 4D체험관에서 만나는 아기 거북이의 모형도 놓칠 수 없다.

### 단양 장회나루

Tel. 043-421-8615~6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면 장회리

산13-23

장회나루에서 청풍나루 사이를 왕복하는 유람선을 타면 단양8경중의 2경인 구담봉과 옥순봉을 볼 수 있다. 충주호 풍광의 백미로 꼽힌다.

### 도담도담 삼봉숲

[cafe.naver.com/forest4200300](http://cafe.naver.com/forest4200300)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담리

산4-29

유아들을 위한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아숲체험원이다. 새로 조성된 숲길을 따라 오봇이 걷다보면 단양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보는 멋진 풍광을 만날 수 있다.

### 단양 온달관광지

Tel. 043-423-8820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온달로 23

고구려의 명장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을 테마로 만들어진 온달전시관과 온달산성, 온달동굴을 볼 수 있다. 대규모의 화려한 드라마세트장도 눈길을 끈다.



마을  
체험하기



천연염색

자연에서 수집한 재료를 모아 손수건을 곁게 물들인다. 옛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고, 예술적인 감각을 기르는 시간이다.



도예체험

도자기 장인의 도움으로 물레를 돌려가며 멋스러운 나만의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초보구이한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넣는 체험도 인기도.



오미자 떡빚기

향긋한 오미자 열매를 수확해 떡도 빚고, 팥콘도 튀긴다. 오미자의 열매와 잎, 꽃의 색을 상징하는 붉은 색, 초록색, 흰 색을 섞어 빚어낸 오미자 떡은 색깔만큼 맛도 좋다.



계절별 영농체험

방곡 도깨비마을의 전원풍경을 만끽하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콩을 털어 두부를 만들고, 도토리를 채집해 목을 만들자. 여름철엔 개울가의 물놀이도 빠질 수 없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다누리아쿠아리움 > 점심 > 방곡 도깨비마을 > 온달관광지

사계절 내내 여름 성수기만큼의 인파가 몰린다는 다누리아쿠아리움에 둘러보자. 대형 수족관 속의 물고기를 들여다보고, 4D체험관에서 아기거북이의 모험을 따라가는 것도 즐겁다. 방곡 도깨비마을에서 체험을 마치면 온달관광지에 들어서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를 따라 고구려의 역사를 배우보는 것도 좋겠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다누리아쿠아리움 > 점심 > 방곡 도깨비마을

둘째 날 : 온달관광지 > 점심 > 도담도담 삼봉숲

거대한 쓰가리 조형물이 반겨주는 다누리아쿠아리움에는 대형수조가 있어 마치 바닷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다. 도깨비마을에서 도예체험과 먹거리 체험을 하며 오후를 알차게 보낸다. 둘째날에는 온달관광지를 여유있게 둘러보자. 온달산성까지 쉬엄쉬엄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도담도담 삼봉숲에서 단양 시내를 조망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자.

TRAVEL TIP

대중교통

서울의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출발, 단양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버스 승차 (7:00분부터 1시간 간격으로 18:00까지 운행), 소요시간 약 2시간 30분, 운임은 1만 3천원. 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면 약 40분 소요, 택시비 약 3만 5천원.

숙박

- 도깨비펜션 : 010-4791-7858 / 도깨비 마을 내에 위치한 독채 펜션이다.
- 황장산 쉼터 민박 : 043-422-8285 / 도깨비 마을 내에 위치한 깔끔한 민박이다.
- 토속식당 펜션 : 043-422-3636 / 도깨비 마을 내에 위치한 식당이자 펜션이다.
- 신성봉 가든 펜션 : 043-422-6011 / 도깨비 마을 내에 위치한 식당이자 펜션이다.
- 대명리조트 단양 : 1588-4888 / www.daemyungresort.com/dy/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7 단양대명리조트

먹거리

방곡 도깨비마을 내에 식당이 여럿. 수리봉소담백이 식당에서는 능이버섯담볶음탕을, 신성봉 가든에서는 송이버와 송이버섯전골을, 토속식당에서는 생오뎅불고기이름, 황장산에서는 송이버섯전골을 먹을 수 있다. 단양 시내에서는 마늘술빚이나 마늘불고기, 마늘식갈비를 파는 식당들이 많다.

- 수리봉 소담백이 : 043-421-0949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방곡리 113-1
- 토속식당 : 043-422-3636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선암계곡로 4-7
- 황장산 : 043-422-8285 /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선암계곡로 11

통역가이드 정보

방곡 도깨비마을에 체험을 신청할 때 미리 통역서비스를 요청하자. 도깨비마을에서 단양군에 의뢰하여 영어, 중국어, 일어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외암민속마을 ●

●  
충청남도

## 6km 돌담길 따라 떠나는 충남 아산의 시간여행

### 아산 외암민속마을

외암민속마을 입구에 놓인 다리를 건너면 시간이 순식간에 수백 년을 거슬러 오른다. 시대의 발전보다는 전통의 보존을 선택한 마을에서 조선시대 기와집과 초가집이 인사를 건네고, 그곳에 사는 주민이 역사와 전통을 전하기 때문이다. 마을 여행의 백미인 6km 길이의 돌담길을 걷는 것도 즐겁다. 걸음을 옮기며 선조가 남긴 삶의 지혜를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외암민속마을 9번길 13-2							
체험	두부 만들기 체험, 떡메치기 체험, 한지부채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등							
문의	외암민속마을 041-541-0848, www.oeammaul.co.kr 아산시 문화관광과 041-540-2631							

도시에 사는 현대인은 마음속으로 고즈넉하고 조용한 시골풍경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만 가는 고층빌딩과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가 대부분이다. 시골풍경의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다면 이 마을을 추천한다. 외암민속마을은 중요 민속문화재 제236호로 지정된 오래된 마을이다.

그렇다고 용인민속촌처럼 사는 사람 없이 관광지로 조성된 곳은 아니다. 조선시대 선조 때에 예안 이 씨 가문이 들어와 정착한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이 삶을 가꾸고 있는 마을이다. 전통의 보존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곳이기에 마을은 현대식 건물이 아닌 충청도 양반이 살던 고택과 서민의 집인 초가집이 지금도 삶의 터전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판댁, 건재고택, 외암정사 등 문화재급 가옥도 여럿이다. 이렇듯 시간이 멈춘 듯 보이는 곳이기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 마을 미리보기

외암마을 돌담길



## 추억의 창고가 풍성해지는 다양한 체험들

외암민속마을에 들어서려면 '반석교'라는 작은 다리를 지나야 한다. 이 다리를 건너 마을에 들어선 후 다시 다리를 건너지 않았다면 마을에 있는 것이다. 다리를 이정표로 삼는 이유는 6km에 달하는 돌담길이 미로처럼 마을 곳곳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을을 처음 찾았던 옛장수가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 반나절이나 같은 길만 맴돌았을 정도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리 멀지 않기에 민속마을 체험을 위해 찾는 사람이 많다. 자연과 벗 삼은 지역답게 계절별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다양하다. 인절미, 두부, 메주, 숯대, 풍물, 염색, 모형곤충, 한지부채, 종이연 등을 만드는 체험은 연중 운영되기에 계절별 프로그램까지 더하면 마을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 ① 마을의 작은 동산에서 그네를 타는 아이
- ② 연자방아
- ③ 고구마 캐기 체험
- ④ 실제 장을 담아 사용하고 있는 장독대





600년 수령의 느티나무



두부만들기 체험

## 역사와 전통의 숨결이 가득한 아산시

외암 민속마을을 여행지로 삼았다 하여도 아산시 곳곳에 즐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도 빼놓자니 아쉽다. 시대를 앞서가려는 몸부림보다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가꾸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사는 고장답게 아산시에는 그에 걸맞은 여행지가 많다.

또한, 80년대까지 신혼 여행지로 각광을 받았던 유명한 온천지역이기에 잠시 여행의 피로를 풀고 갈 곳도 즐비하다. 대표적인 곳이 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이다.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는 사람은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을 기리는 현충사, 조선왕조의 대표적인 청백리 맹사성이 살던 맹씨행단, 2만여 점의 민속품을 소장한 국내 최대의 민속박물관인 온양민속박물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인 고덕양식의 순교성당 공세리성당, 울창한 송림 사이에 자리 잡은 봉곡사 등을 권한다. 외암 민속마을과 달리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는 지중해마을도 빼놓자니 아쉽다.



## 아산 외암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현충사

<http://hcs.cha.go.kr>

Tel. 041-539-4600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126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 있는 곳이다.



### 온양민속박물관

[www.onyangmuseum.or.kr](http://www.onyangmuseum.or.kr)

Tel. 041-542-6003 아산시 충무로 123

한국 선조의 생활상과 슬기를 엿볼 수 있는 2만여 점의 민속품이 소장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민속박물관이다.



### 맹씨행단

Tel. 041-546-3027

아산시 배방읍 행단길 25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청백리로 유명한 맹사성(1360~1438)이 살던 집으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옛 살림집이다.

### 지중해마을

Tel. 041-547-2246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포도 농가이던 시골마을이 삼성디스플레이와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원주민이 이주자 택지에 이국적인 마을을 조성한 곳이다.



마을  
체험하기



두부 만들기 체험

볼린 콩을 맷돌에 갈고 잘 끓이며 저어준다. 비지와 콩물을 분리하고 물을 빼내면 뽀얀 손두부 완성! 두부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전통 방법 그대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떡메치기 체험

봄부터 가을까지 매주 주말에 마을청년들이 떡메체험장을 운영한다. 직접 떡메를 쳐서 인절미를 만들어도 보고, 인절미와 전통 식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한지부채 만들기 체험

여름에 딱 좋은 한지부채 만들기. 흰도화지 같은 한지부채 위에 고운 색종이를 내맘대로 붙여보자. 한지 고유의 멋이 살아있는 나만의 전통부채를 가질 수 있다.



천연염색 체험

치자나무 열매를 끓여 만든 염료로 천연염색 체험을 해보자. 흰색 천에 고무줄을 묶어 다양한 무늬를 만드는 것도 재미있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외암 민속마을 > 점심 > 맹씨행당 > 지중해마을

외암민속마을의 돌담길 따라 마을 한 바퀴를 둘러보고 마을이 준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이후 마을에서 6km 거리에 있는 맹씨행당도 둘러보자. 한국의 민가 중 가장 오래된 고택이 바로 그곳이다. 여정의 마무리는 마을 전체를 유럽풍으로 조성한 지중해마을을 권한다.

첫째 날 : 현충사 > 맹씨행당 > 점심 > 외암 민속마을 > 저녁

둘째 날 : 온양온천 > 점심 > 온양민속박물관 > 지중해마을

1,700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 <명량>으로 더욱 큰 존경을 받는 이순신 장군. 그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 바로 현충사이다. 이어 맹씨행당과 외암민속마을에서 한국 문화의 속살을 접해보자. 둘째 날에는 온천에서 여정의 피로를 풀고 온양민속박물관에서 한국 문화의 진면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기를 추천한다.

TRAVEL TIP

대중교통

1. 서울역 KTX 이용 (09:40~22:30, 30분 간격) : 천안 아산역 하차 (35분 소요) 후 택시 이용 (20분 소요, 약 14,000원)
2. 고속버스 이용 : 아산 시외버스터미널 도착 후 100번 버스 이용 (50분 소요).

숙박

외암 민속마을 민박 : 4인 이상 66,000원부터, 041-541-0848, 민박 이용객은 체험프로그램 무료 입장

- 온양관광호텔 : 041-540-1000 / www.onyanghotel.co.kr
- 온양그랜드호텔 : 041-543-9711 / www.grand-hotel.co.kr

먹거리

마을 인근에 조성된 저차거리에서는 광덕산과 설화산에서 자란 산나물을 비롯해 충청도 음식의 담백한 참맛을 고루 즐길 수 있는 음식이 가득하다. 아산시청에서 약 3km 거리에 있는 염치읍 곡교리의 염치 한우거리에서 한국의 소고기를 맛보는 것도 좋다.

- 일신죽탕 : 041-545-2696, 아산시 시민로 382
- 맷돌손순두부 : 041-549-2033, 아산시 고불로 696

통역가이드 정보

관광안내소(041-540-2517), 아산시청 문화관광과(041-540-2565)에 미리 통역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본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삼지내마을

●  
전라남도

## 시간도 멈춘 듯한 돌담 골목길로 들어가다

담양 삼지내마을

담양군 창평면의 삼지내마을은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춘 마을로 쌀엿, 한과 등 슬로푸드, 고가와 돌담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느린 여행의 명소로 손꼽힌다. 여기에 요즘은 한과 및 쌀엿 만들기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찾는 이가 늘고 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돌담길 56-24							
체험	옛 만들기 체험, 슬로푸드 체험, 다도 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문의	061-383-3745							

담양군 창평면의 삼지내마을은 전통문화와 먹거리,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마을의 모습을 보면 주변의 산들이 마치 봉황이 날개를 펼쳐 감싸 안은 형국을 이루고 있으며, 월봉천과 운암천, 유천이 마을 아래에서 모인다 해서 삼지내로 불린다. 마을 내에는 여러 채의 고가와 길게 이어지는 돌담이 잘 어울려 방문객이 먼 과거의 시간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주요 볼거리로는 고재선 가옥과 고정주 가옥, 고광표(고재환) 가옥 등과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남극루, 구한말 의병의 정신적인 근원지인 포의사, 신학당인 상월정 등이 있다. 이중 남극루는 영호남 선비들이 교류하던 정자로 이상향을 꿈꾸는 의미가 들어있다. 마을에 고씨 가옥이 많은 것은 삼지내마을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고경명 장군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고재욱 고가



##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들

마을 입구의 창평현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시대로 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 창평현문 안쪽으로 넓은 논이 좌우에 펼쳐지고 멀리 고가와 돌담이 눈에 그윽하게 들어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우리나라 어느 농촌마을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한 발 한 발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진다.

고가와 돌담에 눈을 주다 보면 어느 사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고 마는 것. 어쩌면 그림 속에 내 스스로가 갇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까지 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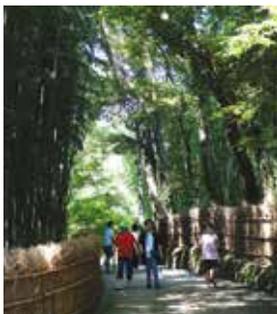
- ① 삼지내마을 입구에서 본 남극루
- ② 흙돌담길을 산책하는 연인
- ③ 고가체험장 밤풍경
- ④ 마을 안을 흐르는 도랑



## 담양은 힐링 여행지



삼진내마을의 돌담길 풍경



소쇄원 가는 길

담양의 죽녹원은 힐링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짙게 뺨은 대나무 숲을 걸으면 자연스레 죽림욕이 돼 머리가 한결 맑아진다. 곳곳에 정자와 쉼터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2015년 대나무박람회 개최가 열린 메인 무대이기도 하다. 최근 각광을 받는 곳은 메타세콰이어길이다. 2003년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은 명품길로 아름다리나무가 8.5km 길에 도열해 멋진 나무터널을 만들어낸다. 메타세콰이어길과 이어지는 관방제림(천연기념물 366호)도 멋진 숲이다.

한국가사문학과 소쇄원(사적 제304호)도 함께 둘러보기에 좋은 코스. 한국가사문학관은 사미인곡과 성산별곡 등 다양한 가사문학 자료를 전시한 문학관이며, 소쇄원은 우리나라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이다.



주변  
둘러보기

## 담양 삼지내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166

THEME 03 ORIENT  
전남 | 전통여행

### 한국가사문학관

[www.gasa.go.kr](http://www.gasa.go.kr)

Tel. 061-380-2700

전남 담양군 남면 가사문학로 877

담양은 가사문학의 고장으로, 가사문학 관련 문화유산의 전승, 보전과 현대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박물관이다.



### 소쇄원

[www.soswaewon.co.kr](http://www.soswaewon.co.kr)

Tel. 061-381-0115

전남 담양군 남면 소쇄원길 17

국가 사적 304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정원이다. 1530년 양산보가 건립하였는데, 우리나라 정원 중에는 최고로 여겨진다.

### 죽녹원

[www.juknokwon.org](http://www.juknokwon.org)

Tel. 061-380-2680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2003년 조성된 대나무숲 공원이다. 죽림욕을 즐길 수 있는 산책로와 정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 있다. 2015년 세계 대나무 박람회 주 무대이다.

### 메타세쿼이아길

Tel. 061-380-3149

전남 담양군 담양읍 메타세쿼이아길 12

1972년 처음으로 8.5km에 묘목이 심어진 뒤 40여 년이 지나 현재의 명품 길이 되었다. 현재 1.5km 구간은 차량을 통제하고 관광지로 조성하였다.



마을  
체험하기

## 떡 만들기 체험

창평은 예로부터 쌀을 주원료로 하는 쌀엿과 조청이 유명한 지역. 특히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았으며, 집집마다 명절이 되면 쌀엿을 만들곤 했다. 밤새 아궁이에 불을 지피 조청을 고아 만든 쌀엿이야말로 슬로푸드라고 할 수 있다.



## 슬로푸드 체험

삼지내 마을에서는 다양한 슬로푸드 체험을 할 수 있다. 슬로푸드 식식은 물론 직접 슬로푸드를 만들어볼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하여 음식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다. 사진은 슬로푸드의 하나인 한과만들기 체험이다.



## 다도 체험

차를 마시면서 예절도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차를 달여 손님에게 권하거나 마실 때에도 예절이 있다. 차를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심신을 닦는 것이다.



## 전통놀이 체험

삼지내마을에서는 봉숭아물들이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 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놀이 체험은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더욱 정감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①문학기행 > 담양읍 > 삼지내마을 > 점심 > 한국가사문학관 > 소쇄원 > 담양읍  
②숲여행 > 담양읍 > 삼지내마을 > 점심 > 관방제림 > 죽녹원

담양은 가사문학의 고장으로 유명하다. 한국가사문학관과 소쇄원은 1km 거리에 있으므로 함께 문학기행으로 관람하면 좋다. 한편, 관방제림과 죽녹원도 가까이 있어 당일코스로 알맞은 곳이다.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담양읍 > 죽녹원 > 관방제림 > 삼지내마을 > 1박(한옥스테이)  
둘째 날 : 한국가사 문학관 > 소쇄원 > 메타세쿼이아길 > 담양읍

삼지내마을에서 1박을 할 경우에는 죽녹원과 관방제림을 먼저 둘러본 후 삼지내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낫다. 다음날 아침 식사 후 여행지로 이동하고 메타세쿼이아길을 체험한 후 점심 먹기를 권한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광주광역시 → 삼지내마을 : 광주 시외버스정류장에서 303번, 181번 버스 → 창평 파출소 하차



## 숙박

- 한옥에서 061-382-3832
- 소나무언덕 061-382-8171



## 먹을거리

- 원조 창평시장국밥(창평국밥, 창평면, 061-383-4424)
- 창평전통안두부(두부요리, 창평면, 061-383-9288)



## 통역가이드 정보

미리 예약시 마을 내에서 영어, 일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됨.



세심마을 •

●  
경상북도

## 다양한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마을

경주 세심마을

경주 세심마을은 안강읍의 화개산 자락에 둘러싸인 마을로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옥산서원을 비롯해 보물로 지정된 독락당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활쏘기, 과거시험보기, 백등 만들어 탑돌이,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해볼 수 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세심길 20-9							
체험	떡매치기 체험, 활쏘기, 칼국수 만들기 체험, 두부만들기 등							
문의	054-761-6148, 010-2082-6148 <a href="http://sesim.go2vil.org">http://sesim.go2vil.org</a>							

1999년에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된 경주세심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옥산서원이다. 1572년 이언적선생의 덕행과 학문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다. 옥산서원 앞을 흐르는 자계천에는 세심대라는 반석이 있는데, 세심대에서 마을 이름을 따와 세심마을이라 부른다. 세심대 위쪽에는 용추폭포가 있고, 하천을 건너는 외나무다리가 있어 운치를 더한다. 보물로 지정된 독락당에는 옥산정사와 별당인 계정, 어서각이 있다. 계정은 관어대라는 반석위에 지어졌는데, 하천과 반석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여유롭다. 하천 건너편에서 바라보는 계정 반영이 아름답다.

## 마을 미리보기

경주 세심마을 옥산서원



## 다양한 전통문화체험을 즐겨요

서원이 자리한 곳이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과거시험보기 같은 전통문화체험이 인기가 높다. 주어진 시제에 따라 3행시나 4행시를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주만들기, 떡메치기, 활쏘기, 굴렁쇠 굴리기, 주령구놀이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주령구는 참나무로 만든 신라시대 놀이기구다. 정사각면 6개와 육각면 8개로 이뤄진 14면체로 지금의 주사위와 비슷하다. 두부, 칼국수, 도토리묵, 뽕튀기만들기를 통해 자신이 만든 음식을 직접 맛보는 체험도 인기가 높다.

- ① 한복 입고 예절 배우기
- ② 물총 놀이
- ③ 과거시험 체험
- ④ 농산물 수확 체험





경주 양동마을

## 신라문화와 조선시대 문화가 어우러진 경주



경주 양동마을 서백당과 향나무



계곡에서 바라본 옥산서원

경주하면 신라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신라시대 왕들의 왕릉과 고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세심마을과 인근의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한옥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세심마을 위쪽에는 국보로 지정된 정혜사지13층석탑이 우뚝 솟아있다. 통일신라시대에 화강암으로 조성한 석탑으로 높이는 5.9m이다. 흥덕왕릉은 세심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신라시대 왕릉이다.

신라 42대 흥덕왕과 그의 왕비가 합장된 왕릉이다. 소나무숲 사이를 헤치고 200m쯤 걸어가면 왕릉이 나온다. 양동마을은 강동면 양동리에 있는 민속마을로 조선시대 한옥 160여 채가 남아있다. 보물로 지정된 무점당, 향단, 관가정이 특히 기품있는 가옥으로 향단의 내부는 공개되지 않는다. 서백당에는 마을의 역사인 수령 500년생 향나무가 기품있게 서있다. 보문관광단지는 보문호를 중심으로 조성된 대규모 관광단지로 국제회의장인 관광센터, 특급호텔, 콘도미니엄, 놀이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 경주 세심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정혜사지 13층 석탑

Tel. 054-779-6109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327-4

통일신라시대 8세기 중엽에 화강암으로 조성한 석탑으로 묘향산 보현사8각13층석탑을 제외하면 10층 이상의 탑으로는 유일하다.



## 흥덕왕릉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

흥덕왕릉은 신라 42대 흥덕왕과 그의 왕비가 합장된 왕릉이다. 소나무숲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어가기에 좋다.



## 양동마을

<http://yangdong.invil.org>

Tel. 054-762-2633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길 138-18

마을 이름인 양동은 '군주를 어질게 도울만한 인재가 사는 마을'이란 뜻이다. 조선시대 한옥 150여 채가 남아있다.

172

THEME 03 ORIENT  
경북 | 전통여행

## 보문관광단지

[www.ktd.co.kr](http://www.ktd.co.kr)

Tel. 054-745-7601

경주시 보문로 424-33

주변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더불어 온천, 골프장, 놀이시설, 세계 문화유산 등 각종 문화레저시설을 두루 갖춘 국제적인 관광단지이다.



마을  
체험하기



칼국수 만들기 체험

밀가루 반죽을 하여 홍두깨로 밀어 납작하게 만든 후 반죽을 접어서 칼로 썰어낸다. 마을에서 준비한 육수에 각종 야채를 넣고 팔팔 끓이다 칼국수면을 넣고 끓여주면 맛있는 칼국수가 완성된다.



떡메치기 체험

떡판과 떡메를 준비하고, 찰쌀을 찐다. 찐 찰쌀을 떡판위에 올린 후 떡메를 친다. 떡메치기를 충분히 한 후 떡에 콩고물을 무쳐 칼로 썰어내면 맛있는 인절미가 완성된다.



활쏘기

신라의 화랑이 되어 멀리 활을 쏘아보자. 힘껏 활시위를 당겨 활을 쏘았을 때 과녁에 명중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며 힘찬 탄성소리가 터져나온다.



두부만들기

두부를 전통마을에서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콩을 곱게 갈아 끓이다 간수를 넣고 훑훑 저으면 몽글몽글 순두부가 된다. 이를 두부틀에 넣어 식히면 수분이 빠지면서 단단한 두부가 완성된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세심마을 > 점심 > 정혜사지13층석탑 > 흥덕왕릉 > 양동마을

오전에는 세심마을에서 체험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 주변지역 문화재인 정혜사지 13층석탑, 흥덕왕릉, 양동마을을 둘러본다. 양동마을 150여 채의 고택을 둘러보려면 제법 많은 발품을 팔아야한다.

1박 2일  
코스

첫째날 : 세심마을 > 점심 > 정혜사지13층석탑 > 흥덕왕릉 > 양동마을 > 저녁 > 안압지 & 첨성대 야경  
둘째날 : 보문관광단지 > 점심 > 불국사 > 국립경주박물관

안압지와 첨성대는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라 밤에 찾아야 더 아름답게 다가온다. 이튿날 보문관광단지와 신라시대 전통 사찰인 불국사를 둘러본다. 국립경주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신라시대 유물을 만나볼 수 있다.

TRAVEL TIP

대중교통

1.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경주행 고속버스 (06:10~23:55, 1시간 간격 운행) 승차-경주 고속버스터미널 하차-시내버스 203번 옥산중점 하차-도보 1분
2. 서울역 KTX : 신경주, 포항행 KTX (05:15~22:00, 30분~1시간 간격 운행)승차 - 신경주역 하차 - 시내버스 203번 옥산중점 하차 - 도보 1분

숙박

- 세심마을 체험관, 마을회관, 민박집을 이용(1인당 1만원). 여름철에 한해 한옥에서 숙박이 가능(6~8명이 묵을 한옥 2동). 문의 : 010-2082-6148.
- 영미네 민박 문의 : 010-9359-5205
- 세븐모텔 054-762-9221
  - 스위스모텔 054-762-3755

- 세심농원편선 010-5119-7488
- 옥산서원길 게스트하우스 054-762-9500 www.oksanmotel.com

먹을거리

- 세심마을 식당에서 케라리스, 오므라이스, 자장파를 5천원에 맛볼 수 있다. 한정식(부페)은 1만원이다. 예약 필수 010-2082-6148
- 통나무집식당 054-763-6484
  - 안강할매고디탕 054-762-0352
  - 토산정 054-762-0052
  - 밀도식당 054-761-4488

통역가이드 정보

세심마을이나 경주시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가 없어 여행사 등을 통해 미리 통역을 구해야 한다.



●고추장익는마을

●  
전라북도

## 나는 고추장 담그러 간다!

### 순창 고추장익는마을

전라북도 순창 하면 고추장으로 유명하다. 고추장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먹는데, 유독 순창 고추장이 유명한 이유는 뭘까? 그 해답을 찾아 순창군 구림면 안정리 '고추장익는마을'로 들어간다. 600년 고추장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순창 고추장 원조마을 고추장익는마을로 go~go!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북 순창군 구림면 산내길 38(산내안정마을)							
체험	순창 고추장 만들기, 즉석 떡볶이 만들기, 생태체험, 농사체험, 문화체험 (짚풀체험) 등							
문의	063-653-7117 www.gochujangvillage.com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등 순창 지역의 자연환경이 장을 발효시키기에 최적인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예로부터 순창 고추장이 임금님 진상품으로 명성이 자자했다는 사실이 전설로 전해진다.

이 마을 뒷산 중턱에는 만일사라는 절이 있다. 고려 말 무학대사가 이성계 장군의 조선 건국을 위하여 만일 동안 기도를 올렸다 해서 만일사라 한다. 무학대사가 이곳에 머물 때 이성계 장군이 찾아왔는데, 절 아래 한 농가에서 밥을 먹다가 장맛을 본 것이 순창 고추장을 유명하게 만들었다. 하도 맛이 뛰어나 조선을 세운 후에 다시 찾은 것.

순창 고추장이 익는 마을은 그러한 순창 고추장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인근 산내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룩한 공동체이다. 고추장을 직접 만들고 비빔밥이나 떡볶이 등 다양한 요리에 적용해 보며, 한국의 전통발효에 관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어 해마다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다.



고추장민속마을의 전통발효 체험탐방



## 고추장에 반하고 떡볶이에 빠져들고

섬진강 상류를 따라가다 산내마을에서 화문산 자락으로 오르다 보면 우측 언덕에 마을이 나타나는데, 마을 중심에 안정마을 방문자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고추장 체험의 출발지이다.

마침 체험관 내에서는 초등학교생들이 고추장 만들기 체험에 폭 빠져 있다. 순창 고추장만의 특별한 비법을 꼭 밝혀내기라도 하겠다는 듯 모두들 열심이다. 단체를 위해서는 당일 프로그램과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순창 고추장 만들기과 즉석 떡볶이 만들기는 필수이다.

봄이면 감자나 고구마 등 농작물을 심고, 여름이면 마을의 냇가에서 물놀이도 즐기고 물고기와 다슬기 잡기 등 생태체험을 한다. 가을에는 갯가지 농산물을 수확하기 바쁘고, 겨울에는 메주 만들기, 김장 체험을 한다. 순창 고추장 만들기, 즉석 떡볶이 만들기, 발효 향아리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등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체험들이다.

고추장을 만든 다음에는 즉석 떡볶이를 요리해 본다. 삼삼오오 모여 떡볶이를 쳐다보는 아이들의 입가에 침이 고인다. “맛있겠다!”, “맵지 않을까?” 너도 나도 한 마디씩 해댄다. 라면을 추가해 뽕글뽕글 한 번 더 끓이고 먹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사라져도 모를 정도로 집중한다.

- ① “꿈과 소망을 적었어요.”  
발효 향아리 만들기
- ② 장맛은 역시 향아리!
- ③ 우와! 맛있겠다. 떡볶이 만들기 체험



## 건강과 힐링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외국인도 즐기는 떡메치기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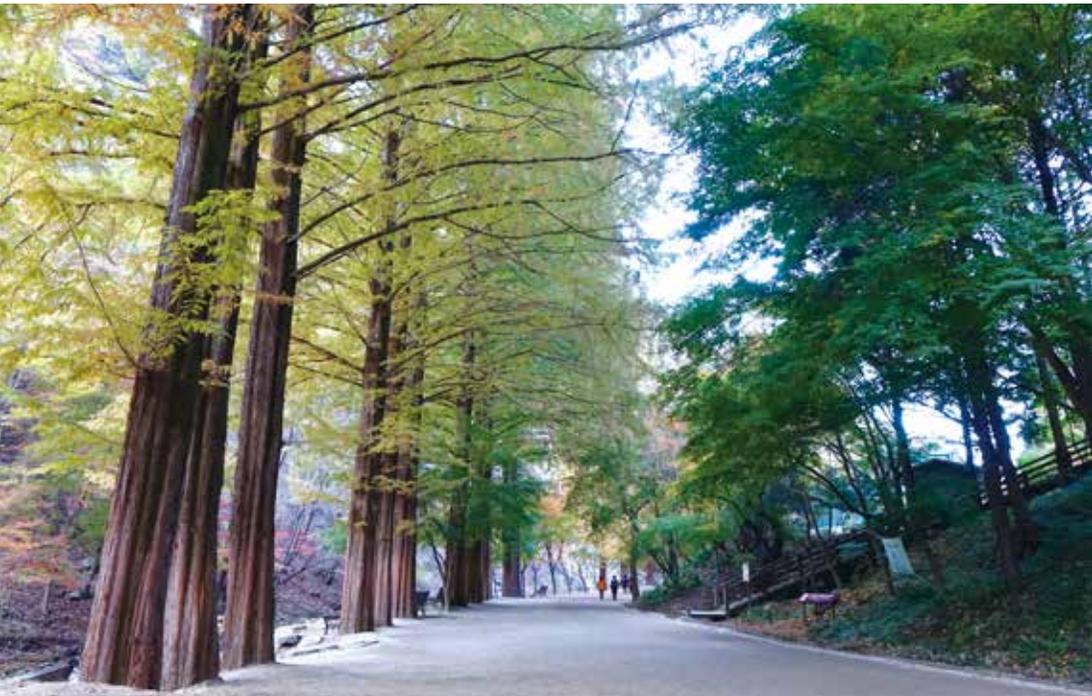
고추장의 원조를 찾아온 코이카 체험단

고추장익는마을에는 숙소로 단체용 큰 방 2개와 가족용 방 10개 등 모두 12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다.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나면 며칠 더 묵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난다. 식사는 체험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방문자센터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도 된다. 백반 혹은 산채비빔밥을 내는데, 각종 산나물과 버섯 등을 고추장으로 속삭 비벼 먹으면 웃음이 절로 입가에 난다. 산해진미가 따로 없다. 전통음식과 문화를 체험하고 아름다운 자연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 해가 갈수록 관람객이 증가하는데, 내년부터는 체험동과 숙박동을 늘려 더욱 많은 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순창읍에 있는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이 순창 고추장 원조로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아요. 실제 원조는 바로 우리 마을이죠. 순창 고추장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아무래도 우리 마을이 낫지 않을까요?”

마을지기 최형민 팀장의 말 속에 순창 고추장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듬뿍 묻어난다. 순창 고추장익는마을도 잘 가꿔져 감칠맛 나는 체험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인근 숲체험도 필수. 강천산 삼나무길



# 순창 고추장익는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178

THEME 03 ORIENT  
전북 | 전통여행

## 만일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103-134

673년 창건된 천년 고찰로 고려 말 무학대사가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위하여 1만 일 동안 기도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경내에 순창 고추장 시원지 전시관이 있다.

## 강천산군립공원

Tel. 063-650-1672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길 270

담양군과 경계에 있는 산으로 1981년 국내 최초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매표소에서 강천사까지 가는 길은 산책로가 유명하다. 병풍폭포 등 기암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삼나무길 등 아름다운 절경이 이어진다.

## 회문산 자연휴양림

Tel. 063-653-4779

전북 순창군 구림면 안심길 214

임실과 순창의 경계를 이루는 830m 높이로 예로부터 첩첩산중으로 알려져 있다. 옥정호에서 흘러내린 섬진강이 회문산을 두 팔로 감싸듯 휘감아 사방으로 물길기 흐르고 있어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뛰어나다.

## 장군목 유원지

Tel. 063-650-5721, 650-1628

전북 순창군 동계면 장군목길 706-4

웅결산과 무량산 사이 섬진강 상류에 있는 유원지로 주변의 산세가 장군 대좌형 명당이라 장군목이라고 한다. 수만 년 동안 물결이 다듬어 만든 바위들의 모습이 신비롭기만 하다. 순창10경의 하나이다.



마을  
체험하기

## 농사 체험

매실 따기, 감자 캐기와 고구마 캐기, 밤 줍기 등 수확의 소중한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봄철에는 시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최소 30인 이상 참여 시 체험 가능.



## 순창 고추장 만들기 체험

이 마을의 최고 인기 체험 프로그램이다. 메주가루와 고춧가루, 조청 등을 섞어 맛난 고추장을 만드는데, 숙성 기간이 필요하므로 바로 가져갈 수는 없다. 대신 체험 후 숙성된 고추장 100g을 예쁜 용기에 담아 준다.

## 죽석 떡볶이 체험

순창 고추장을 이용하면 조미료를 넣지 않아도 매콤하고 감칠맛이 나는 떡볶이를 만들 수 있다. 완성된 떡볶이는 바로 시식할 수 있다. 이밖에도 비빔밥과 인절미 등 다양한 전통음식을 체험할 수 있다.

## 발효 향아리 만들기 체험

향아리 모양의 액세서리를 만드는 체험이다. 곁에 장래 꿈이나 주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적어 오븐에 넣어 완성한다. 1인당 30분 3000원. 순창 고추장 만들기과 죽석 떡볶이, 그리고 발효 향아리 만들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체험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 인기이다.

179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순창 고추장마을에서 전통 고추장 만들기 &gt; 점심 &gt; 만일사 &gt; 회문산

순창 고추장 마을에서 미리 계획한 체험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 만일사로 오른다. 만일사까지는 자동차로 갈 수 있다. 만일사를 관람한 후 회문산으로 이동하면 된다.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전통 고추장 만들기 &gt; 비빔밥 및 죽석 떡볶이 만들기 &gt; 만일사 &gt; 순창 고추장마을(숙박)

## 둘째 날 : 순창 고추장마을 &gt; 체험학습 &gt; 회문산 &gt; 강천산

첫째 날은 순창 고추장마을에서 체험한 후 만일사를 둘러본다. 둘째 날에는 순창 고추장 마을에서 체험을 하고 회문산으로 이동, 강천산으로 옮겨 점심을 먹고 강천사로 오른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1. 서울 → 순창 / 고속버스 : 센트럴시티터미널 09:30, 10:30, 13:30, 14:45, 16:10
2. 전주 → 순창 / 시외버스 :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06:55~20:30, 약 30분마다 1대 운행
3. 순창 → 안정마을 / 순창버스정류장에서 농어촌 버스(순창-구림) 승차 → 산내마을 하차 → 도보로 5분 안정마을 도착, 1일 6회 운행된다.

## 숙박

- 마을 내에 국화동과 매화동(각각 8만 원)부터 신선동(30만 원)까지 12개의 숙박동이 갖춰져 있다. 예약은 063-653-7117
- 강천산 근처 강천산풍경펜션(063-652-2657)

## 먹거리

- 단체를 위한 대형 식당을 갖추고 있다. 비빔밥과 떡볶이 체험 후 시식 가능
- 강천산 입구에는 한정식과 매운탕을 내는 집이 많다. 강천각(063-652-9920)과 산호가든(063-652-5102), 강천골한정식(063-653-2900), 강천매운탕(063-652-5480) 등

## 통역가이드 정보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하나 미리 예약하면 군청의 지원을 받아 통역을 할 수 있다.



• 성당포구마을

전라북도

## 금강 물길을 달리는 두 바퀴 자전거 여행

익산 성당포구마을

익산 성당포구마을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생태마을이자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자전거를 타고 마을이 흰히 내려다보이는 포구 독길을 달리면 일상에서 맛보지 못한 진정한 힐링을 체험하게 된다. 보석처럼 빛나는 금강의 영롱함에 취할 때쯤 흥겨운 전통가락에 어깨가 들썩인다. 옛날 포구의 낭만 속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힘차게 달려보자.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성당로 762							
체험	금강변 자전거 타기 체험, 활쏘기(국궁) 체험, 좌도 농악체험, 찜질방 체험							
문의	익산성당포구마을 063-862-3918, <a href="http://blog.naver.com/sungdangpogu">http://blog.naver.com/sungdangpogu</a> / 익산역관광안내소 063-859-3825							

백제문화권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전라북도 익산의 가치가 재평가 받고 있다. 관광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보는 관광에서 체험관광으로, 나아가 교감하며 느끼는 관광으로 변하고 있어 성당포구마을이 최근 주목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당포구마을은 고려에서 조선 후기까지 4백 년 간 세곡을 모아두던 성당창이 있던 곳이다. 사시사철 조기, 갈치, 새우 등을 실은 배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정도로 번창했었다. 사람과 돈이 모이다보니 마을에는 술집만 30곳이 넘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시드는 법. 급격한 산업화로 뱃길이 끊기자 마을은 급격하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2009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고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4개 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 결과 전 부문 1등급을 받았다. 자연 속에서 체험을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성당포구마을을 찾아 볼 일이다.



황포이미지가 성당포구마을의 상징



## 강둑길을 따라 두 바퀴로 달리는 즐거움

성당포구마을에 들어서면 2013년 8월에 문을 연 성당포구 금강체험관이 기다린다. 지상 3층 규모에 70명이 앉을 수 있는 세미나실과 120명이 동시에 이용가능한 식당, 풋살장, 농구장 등이 갖춰져 있다. 독립펜션형태로 지어진 가족실(6인실)과 단체를 위한 객실도 있다. 휴가철에는 1천여 명이 숙박체험을 할 정도로 인기 만점이다. 특히 하절기에는 캠핑장을 이용하는 체험객들이 많다.

금강체험관 오른쪽 언덕을 오르면 금강의 지류인 산복천이 흐르는 독길이 나온다. 길 가장자리에 형형색색의 바람개비 수백 개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그 사이를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다보면 가슴 가득 자연을 품은 듯하다.

체험관 뒤편에서는 활쏘기 체험이 한창이다. 체험관 안에서는 덩덩쿵따쿵 좌도풍물체험에 아이들이 비지땀을 흘린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약기의 특징이 잘 살아나는 합주가 가능하다. 배우는 아이들보다 구경하는 마을주민들이 더 신나하는 것을 보니 그들의 소박한 마음이 전해진다.

- ① 사색에 잡기기 좋은 한적한 분위기
- ② 시골마을의 여유가 느껴지는 장독대
- ③ 금강변 가장자리의 바람개비길
- ④ 금강탐사를 위해 포구에 정박한 포트





## 금강 따라 포구의 서정이 넘치는 곳에서의 농촌여행



웅안생태습지공원

금강체험관 뒤편에 펼쳐진 드넓은 웅안생태공원은 사색의 공간이다. 봄에는 파릇파릇한 새순들이 돋아나 활기를 더하고 여름에는 개개굴개개리의 합창소리가 요란하다. 비를 맞아 촉촉하게 젖은 꽃잎들이 아름다운 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깊은 감사와 평안이 밀려온다. 생태공원을 찾기에 가장 좋은 때는 서정미가 돋보이는 가을이다. 길옆에 해맑게 웃고 있는 코스모스가 장관이다. 시간의 간격을 두고 피어나는 은빛 억새와 갈대는 하늘과 바람과 낭만을 노래한다.



성당포구 금강체험관

성당포구마을에서 3km 정도 떨어진 두동교회 역시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이다. 워낙 조용한 마을인데다 아기자기한 벽화까지 그려져 있어 소읍여행의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교회내부에 들어가면 곧게 뻗은 잘 생긴 대들보가 눈에 띈다. 교회를 건축하기 전, 큰 홍수가 났는데 그때 태안 안면도에서부터 떠내려 온 왕실소나무란다. 교회에서 20여분 거리에 마을주민들이 직접 조성한 편백나무 숲 또한 이 마을의 자랑거리다.

감성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성당포구



# 익산 성당포구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익산편백나무숲

<http://dd.invil.org>

063-862-8600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5

익산 두동마을 뒤편에 있는 편백나무숲은 딸감으로 나무를 베어 황폐해진 산에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어 조성한 숲이다. 건강과 웰빙을 위해 자연과 함께하는 숲으로 산책로를 따라 들어가면 나무침대와 벤치 등이 놓여 있다.



## 익산교도소세트장

<http://iksan.goib.net>

Tel. 063-859-3836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함남로 207

아름다운 사랑의 기적을 보여준 천만 관객이 선택한 영화, <7번방의 선물>이 촬영된 세트장이다.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교도소세트장은 촬영 당시의 모습이 남아 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교도소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두동교회

Tel. 063-862-0238

전라북도 익산시 성당면 두동길 17-1

600년의 역사를 가진 두동마을에는 세계에서 2개 밖에 없는 'ㄱ'자형 교회가 있다. 130년전 복음이 전파될 당시 엄격한 유교관습에 따라 남녀가 따로 앉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설계된 교회이다.

## 용안생태습지공원

Tel. 063-861-9908

전라북도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용안생태공원은 성당포구에서 다리를 건너면 바로 보인다. 금강을 따라 자전거도로와 전망데크가 잘 갖춰져 있고 가을이면 바람에 날리는 코스모스 꽃잎과 갈대와 역새의 군무가 무척 아름다운 곳이다.



마을  
체험하기

## 좌도 농악체험

징, 장구, 북, 팽과리로 구성된 우리나라 전통 사물 악기를 가지고 연주법을 배운다. 처음 보는 전통악기를 두드리느라 일순간 소란해진다. 간단한 가락을 연습한 후 같이 장단을 맞추면 그럴듯한 사물놀이공연이 된다.



## 금강변 자전거 타기 체험

아름다운 금강변을 따라 4대강 자전거 길이가 잘 닦여 있는데다 용안생태공원까지 연결되는 최고의 라이딩을 선사한다. 1인용부터 2인용, 어린이용까지 다양한 자전거가 구비되어 있다.



## 활쏘기(국궁) 체험

옛 선비들이 즐기던 국궁 체험은 난생 처음 하는 사람도 금방 배워서 도전해 볼 수 있다. 활쏘기에 대한 설명과 쓰는 방법을 자세히 배운 후 발사대에 선다.



## 찜질방 체험

성당포구마을에는 겨울철에 뜨끈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찜질방이 마련되어 있다. 마을에서 숙박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웰빙 공간이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성당포구마을 &gt; 점심 &gt; 용안생태공원 &gt; 성당교도소 세트장

금강을 따라 고즈넉한 자연풍광을 즐기며 라이딩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마을체험 이후 자전거를 타고 용안생태습지공원으로 나가면 좋다. 강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금강과 멋진 조화를 이룬다.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성당포구마을 &gt; 점심 &gt; 용안생태공원 &gt; 저녁

## 둘째 날 : 익산편백숲 &gt; 점심 &gt; 익산두동교회 &gt; 익산교도소세트장

## &gt; 나바위성당

마을여행이후 익산의 웅포면과 성당면에서 주변 여행을 즐기면 동선이 짧아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성당포구마을과 이웃한 두동마을에는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가꾼 편백숲과 세계에서 2개뿐인 'ㄱ'자형 교회가 있다. 일제강점기의 건물로 건립될 당시 다섯 살이었던 원로장로 할아버지가 교회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준다.

185

## TRAVEL TIP

## 대중교통

센터럴 시티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이용, 익산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 43번 버스로 성당정류장에 하차.

## 숙박

- 성당포구마을 : 성당포구마을내에 도농교류관에서 숙박이 가능. 단체룸과 가족룸 두 종류, 풋살장과 농구장, 바베큐장을 이용.
- 익산유스호스텔 : 063-850-2000 / www.iron.or.kr
- 미륵산자연학교 : 063-858-2580 / www.mireuksan.com
- 하늘썬펜션 : 063-836-1221 / www.하늘썬펜션.com

## 먹거리

- 시장비빔밥 : 063-858-6051, 전북 익산시 황등면 황등 7길 25 황등시장
- 문씨네 가마솥탕집 : 063-833-5992, 전북 익산시 하나로 10길 62-12
- 분향한정식 : 063-858-1588, 전북 익산시 무왕로 951-8
- 남매황제해물문어보쌈 : 063-835-4980, 전북 익산시 무왕로 11길 6-5

## 통역가이드 정보

포구마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없으므로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게 좋다.



● 개실마을

● 경상북도

## 고가에서 즐기는 각양각색 농촌체험

고령 개실마을

고가와 돌담이 어우러진 고령 개실마을은 조선 초 사림파의 거두인 김종직의 후손들이 350여 년을 이어 오며 가꾼 전통마을이다. 오랜 역사를 지닌 마을답게 전통예절이 남다른데, 최근에는 전통체험은 물론 농촌체험과 자연체험까지 할 수 있는 마을로 이름이 났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합가거리 243번지							
체험	옛 만들기 체험, 찹쌀 유과 만들기 체험, 예절교육 체험, 전통혼례 체험 등							
문의	054-956-4022, 010-3207-4022 www.gaesil.net							

개실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넓은 운동장이 먼저 반기고, 그 뒤편으로 고가와 황토빛 돌담이 이어지며 마을을 이루고 있다. 개실마을은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김종직의 5대손이 처음 들어와 은거한 후 대대로 살아온 일선 김씨 집성촌이다. 긴 역사를 지닌 마을답게 전통 문화가 고스란히 전해져 이를 체험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고풍스러운 기와집에서 하루를 묵으며 전통예절과 음식을 체험하고, 마을 밖에서는 농사일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물론 돌담길 따라 마을을 둘러보는 것은 필수. 특히 종가집인 점필재(김종직을 일컫는 별칭) 고택은 솟을대문과 사랑채, 안채, 사당을 갖춰 옛 양반가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좋은 곳이다. 사랑채에는 '문충세가(文忠世家)'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데, 문충은 김종직의 시호이다. 350년 전통의 문충세가 양반마을에는 과연 어떤 체험이 있을까?



모즐재



## 각양각색 톡톡 튀는 농촌체험

개실마을이 농촌체험 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2001년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펼친 이후부터이다. 옛과 유과 만들기, 대나무 및 한지 공예, 도자기 공예는 물론 전통놀이와 예절교육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중 유과는 개실마을을 널리 알린 특산품이기도 하다. 처음 마을 가꾸기를 할 때에는 '양반 체통'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었으나 유과가 이름나자 너도 나도 사업에 참여해 금세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 개실마을은 2011년 팜스테이 마을 및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식생활 우수체험 공간 및 전통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10선에 선정되는 등 최고의 농촌체험마을로 떠올랐다.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을 맞이 위하여 마을 지도자까지 양성해 두고 있다. 이밖에도 마을 논에서 미꾸라지 잡기, 하천에서 뗏목타기, 마을 뒷산 화개산 등반 등 계절에 따른 이색적인 자연체험도 할 수 있다.

- ① 외국인들을 위한 인사말패
- ② 김종직 후손들이 살아온 곳임을 알리는 비석들
- ③ 개실마을 증가인 점필재 종택
- ④ 떡만들기 체험
- ⑤ 뗏목타기 체험



## 독특한 경관의 지산동고분군과 고령 여행



점필재 종택에 걸려 있는 '문충세가' 편액



개실마을 특산물인 쌀엿

고령 개실마을 여행에서 꼭 둘러봐야 할 곳은 지산동고분군과 대가야 박물관이다.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 지배층 무덤으로 백제와 신라의 능과는 달리 산등성이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 독특하다. 대가야박물관은 대가야 역사를 살필 수 있는 곳으로 국내 최초로 발견된 순장 무덤을 재현한 왕릉전시관은 꼭 가봐야 할 곳이다.

이밖에도 대가야읍에 있는 가얏고마을과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반룡사, 개경포공원의 개포주막이 볼거리이다. 이중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는 대가야의 역사를 테마로 꾸민 새로운 개념의 관광지이다. 대가야의 문화를 첨단시설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 놓았다.



주변  
둘러보기

## 고령 개실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190

THEME 03 ORIENT  
경북 | 전통여행

### 지산동고분군

<http://utour.goryeong.go.kr>

Tel. 054-950-606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

지산동고분군은 산릉성이를 이용하여 고분을 조성한 것이 독특하다. 고분은 대중소 모두 합하면 200개가 넘는다.

### 가얏고마을

[www.gayatgo.net](http://www.gayatgo.net)

Tel. 054-956-1799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정정골길 55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한 마을로 해마다 가야금 경연대회 및 음악회, 가야금 연주 및 제작 시연 등이 펼쳐진다.



### 대가야박물관

[www.daegaya.net](http://www.daegaya.net)

Tel. 054-950-6071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

대가야와 고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 대가야 왕릉전시관과 대가야역사관, 우륵박물관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

###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www.daegayapark.net](http://www.daegayapark.net)

Tel. 054-950-7005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테마화하여 공원처럼 꾸몄다. 고대 가옥촌, 대가야 유물 체험관, 가마터 체험관 등이 주요 볼거리.



마을  
체험하기



옛 만들기 체험

쌀로 꼬들밥을 찌서 옛기름가루를 넣고 하루 정도 발효시켜 그 물을 8~9 시간 동안 조리면 조청 옛이 된다. 재료 준비 소요기간은 3일. 체험 신청은 체험 당일 최소 3일 전에는 완료해야 가능.



참쌀 유과 만들기 체험

참쌀을 5일 정도 발효시켜 가루를 만들고 막걸리로 반죽하여 말려서 기름에 튀기면 후, 조청을 발라서 옷을 입혀 준다. 매년 겨울철 체험 프로그램으로 30명 이상 단체 접수만 가능.



예절교육 체험

점필재 선생 배움의 서당인 도연재 마루에서 동네 훈장님으로부터 우리의 전통예절을 배운다.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전통 생활예절을 교육 교재로 제작하여 교육 시 제공.



전통혼례 체험

개실마을에서는 우리의 전통혼례를 되살리고자 화산재(재실)에 전통혼례장을 마련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혼례 재현하고 있으며, 실제 전통혼례 결혼식 장으로도 운영.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고령읍 > 개실마을 > 지산동고분군 > 대가야박물관 > 고령읍

개실마을에서 점심 식사를 한 후 지산동고분군으로 이동하여 대가야박물관까지 관람한다. 대가야박물관 입장권으로 왕릉전시관과 우륵박물관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지산동고분군은 멀리서 보는 것이 더욱 멋지다.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고령읍 > 개실마을 > 1박(한옥스테이)

둘째 날 : 지산동고분군 > 대가야박물관 >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 고령읍

개실마을에서 1박을 한 후 다음날 지산동고분군으로 이동한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는 오전 9시~오후6시(동절기 5시)까지 문을 연다.

TRAVEL TIP

대중교통

1. 대구 → 개실마을 : 대구서부정류장에서 합천 방면 시외버스 이용, 개실마을 하차(배차 30분 간격, 40분 소요).
2. 고령읍 → 개실마을 :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10분 소요).

숙박

- 개실마을 한옥스테이(덕동덕, 하동덕, 신안덕 등 20여 집)

먹거리

다식과 유과, 유밀과, 감정, 옛, 정과 등의 한과가 꽤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입안의 향기를 풀어놓는 당파, 미나리강희, 화전과 부각, 소머리나 소껍데기를 꼭 고아 초간장에 찍어 먹는 파편 등이 유명. 식사는 추어탕과 닭갈비가 일품. 단체 마을프로그램 체험 시 식사 예약 주문 (T.054-956-4022)

통역가이드 정보

단체(10인 이상)가 요청하였을 시 군청에서 통역사를 파견 안내한다.



● 달실마을

●  
경상북도

## 500년 전통을 간직한 권별 종가의 집성촌

### 봉화 달실마을

경상북도 봉화군의 달실마을은 조선 시대 풍수지리학자 이종환이 경주 양동마을, 안동 내앞마을, 풍산 하회마을과 더불어 삼남지방의 4대 길지로 꼽은 전통마을이다. 행정 지명은 유곡리이나 마을 지형이 '알을 품는 금빛 닭의 형상과 닮았다' 하여 달실마을로 더 알려졌고, 종가의 제례음식에서 시작된 한과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한과마을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총재길 44							
체험	제례 체험, 서당 체험, 고택 체험, 한과 만들기, 천연염색, 한지부채 만들기, 떡 만들기, 칠보공예 등							
문의	달실마을 054-674-0963 봉화군 문화관광과 054-679-6341							

조선 시대 이후 500년이 넘도록 조상을 섬기며 유교적 전통을 간직한 마을로 향한다. 목적지는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달실마을, 안동 권씨 총재 권벌 종가의 집성촌이다. 총재 권벌 선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관료였으며, 불의에 굴하지 않고 충절을 올곧게 지켜온 인물로 유명하다.

총재 선생은 1519년(중종 14년) 기묘사화의 희생양이 되어 파직당하고 어머니의 묘소가 있던 달실마을로 내려왔다. 이후 15년간 은거하며 충절과 의로움에 고민하고 학문과 풍류를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그의 흔적은 선비들이 즐겨 찾던 연못 위의 정자 청암정, 서재로 사용하던 총재, 조선 시대 사대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총재종택, 가문의 재실로 지어진 추원재, 권벌 종가에서 소장해오던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총재박물관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추원재



## 몸이 아닌 마음으로 접해야 하는 체험 프로그램

달실마을은 때가 묻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다소 불편하더라도, 혹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더 소중한 것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다. 전통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의 발길을 반기지도 않는다.

그런 만큼 달실마을에서는 왁자지껄 떠들며 즐길만한 놀이나 체험보다는 전통마을과 종가 그리고 제사 및 제사음식을 활용한 체험이 대부분이다. 서예와 예절 등 조선 시대의 유교문화를 배우는 서당 체험, 음식부터 시작하여 제례와 관련한 종합적인 과정을 익히는 제례 체험, 제례음식 중 오색한과를 직접만들어 보는 한과 만들기, 자연에서 얻은 산물로 옷감을 염색하는 천연염색 등 마음으로 접해야 하는 체험이 주를 이룬다.

- ① 삼계서원
- ② 권벌 선생이 서재로 이용한 충재
- ③ 석천계곡
- ④ 송이돌솥밥
- ⑤ 충재종택





가훈쓰기 체험

##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봉화군



석천계곡과 석천정사

마을을 벗어나도 안동권씨 가문의 흔적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태백산과 봉화산에서 내려온 물이 합쳐져 흐르는 석천계곡에는 총재 선생의 장남 청암 권동보가 지은 석천정사가 있고, 계곡 근처 바위에는 5대손 권두옹이 '신선이 사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새긴 '청하동천(靑霞洞天)'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계곡이 끝나는 곳에도 총재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삼계서원이 있다.



첨암정

혹시 달실마을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면 봉화군 주변을 돌아보자. 삼계서원 건너편에는 한국 전통의 낚시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봉화유기마을이 있고, 신분 차이를 극복한 조선 시대의 사랑 이야기 <춘향전>의 실제 주인공 생가도 멀지 않다. 지극히 한국적인 농가 풍경을 보고 싶다면 영화 <워낭소리> 촬영지를 추천한다.

# 봉화 달실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이몽룡 생가(계서당)**  
봉화군 물야면 계서당길 24

**워낭소리 촬영지**  
봉화군 상운면 하늘리

신분 사회를 뒤흔든 조선 시대의 사랑 이야기 <춘향전>. 계서당은 춘향전의 주인공 이몽룡 생가이다. 한적한 농촌 마을을 산책하며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저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팔순의 농부와 마흔 살 먹은 소의 삶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영화 <워낭소리>. 영화 촬영지인 상운면의 시골마을은 변화 없이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량산도립공원**  
<http://mt.bonghwa.go.kr>  
Tel. 054-679-6651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수려한 자연경관에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 청량산은 예로부터 '영남의 소금강'이라 불렸다. 금탑봉을 비롯한 12봉우리를 주축으로 동굴, 계곡, 폭포 등이 곳곳에서 등산객을 맞이하며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후토스 촬영장**  
봉화군 봉화읍 충재길 87-21

한국방송공사(KBS)가 영국의 <꼬피마 텔레토비>를 벤치마킹해 제작한 어린이 TV 프로그램 <후토스>. 방송에 등장했던 공간들이 달실마을 추원재 뒤편에 그대로 남아 어린이들을 반긴다.



마을  
체험하기



한과 만들기

달실마을의 또 다른 이름은 '한과마을'이다. 전량 주문생산으로 제작하는 달실한과는 명절 등 성수기에는 주문량을 맞추지 못해 주문 접수를 일찍 마감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당 체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에서나 보았을 것 같은 풍경을 달실마을에서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기본 바탕으로 두고 사자소학, 서예, 예절 등 유교문화까지 두루 배울 수 있는 기획의 장으로 활용.



제례 체험

부모에 대한 효도, 어른에 대한 공경, 조상을 향한 추모의 정신을 일깨우는 데 있어 제례는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있다. 달실마을의 제례 체험은 제례와 관련한 음식 만들기부터 시작해 종합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천연염색 체험

양파에서 나온 노란색, 감으로 만든 갈색, 호두와 밤껍질로 만든 고동색, 쪽에서 나온 쪽빛 등 달실마을의 천연염색은 땅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을 재료로 천연의 빛을 만들어 낸다.

재료 및 염색제품에 따라 비용 다름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워낭소리 촬영지 > 점심 > 달실마을 > 후토스 촬영장 > 석천계곡 > 이몽룡 생가(계서당)

자연과 전통의 보존에 더욱 큰 가치를 둔 봉화군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영화 <워낭소리> 촬영지부터 여정을 시작해보자. 이후 달실마을을 돌아본 후 후토스 촬영장과 석천계곡을 거쳐 이몽룡 생가에서 여정을 마치자.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이몽룡 생가(계서당) > 석천계곡 > 점심 > 달실마을 > 후토스촬영장 > 저녁

둘째 날 : 워낭소리 촬영지 > 점심 > 청량산박물관 > 청량산도립공원

이몽룡 생가, 달실마을, 워낭소리 촬영지 등을 돌아보면 전통을 보존하며 자연을 지켜온 봉화군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봉화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청량산도립공원에 꼭 들러보자.

TRAVEL TIP

대중교통

1.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이용, 봉화공용버스정류장에서 하차 (2시간 40분 소요).
2. 봉화읍에 도착해서 택시 이용(10분 소요)

숙박

주원재 일부를 현대식 편의시설을 갖춘 고택 체험 공간으로 개조하여 숙소로 제공, 개량한옥으로 지어진 전통문화체험당에 5개 객실이 있어 숙박이 가능.  
(문의 054-674-0963)

먹거리

- 솔봉이송이요리전문점 : 054-673-1090 / 봉화군 봉화읍 내성천길 76-1
- 은하숯불회관 : 054-673-1303 /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129
- 인하원송이식당 : 054-673-9881 / 봉화군 봉화읍 유록길 20
- 까치소리 : 054-673-9777 / 봉화군 영호면 광석길 38

통역가이드 정보

봉화군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없기에 필요 시 여행사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인량전통테마마을 ●

●  
경상북도

## 유교적 전통을 간직한 선비마을

### 영덕 인량전통테마마을

어느 길로 향하든 수백 년 된 한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마을이 있다. 조선 시대 양반가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며 농촌의 삶을 가꾸는 곳, 편리한 현대식 건축을 멀리하고 기꺼이 전통을 선택한 사람들이 사는 곳, 바로 영덕군 창수면의 인량전통테마마을이다. 인자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었다 하여 '인량리(仁良里)'라 부르는 이곳은 5대성(五大姓) 8종가(八宗家)가 대대로 터를 일구고 있는 전통마을이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랑길 178							
체험	수확 체험(복숭아, 사과, 고구마, 옥수수, 오디 등), 트랙터 타고 고택 탐방, 민속놀이 체험, 풍등 날리기, 대게호루라기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보리개떡 만들기, 여치집 만들기 등							
문의	인랑전통테마마을 054-734-0301 영덕군 문화관광과 054-730-6395							

경상북도 영덕은 예를 숭상하는 것이 안동 못지않다 하여 '작은 안동'이라 불리는 고장이다. 그러한 영덕의 여러 마을 중에서 인랑마을은 단연 돋보인다. 보통의 농촌마을이 1~2개 성씨가 모여 사는 것에 반해 인랑마을은 8개 성씨의 증가가 있다.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도 10채가 넘는다.

마을 입구에서 주변을 살펴보면 마을이 형성되기에 안성맞춤인 형세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북쪽으로 태백산맥의 줄기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남쪽으로 송천이 흐르는 들판이 있어 풍요로운 농촌의 전형을 보여준다.

수십 가옥 중에서 500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앞을 지키고 있는 충효당은 인랑마을의 백미로 꼽힌다. 채령이씨 입학조인 통정공 이에 선생(1480~1561)이 조선 성종 때 건립한 충효당 위에 오르면 자연경관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마을 전경이 눈에 들어온다.



감이 익어가는 전통 마을



## 한국문화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즐기는 전통체험마을

마을 주민 전체가 전통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하며 사는 마을. 그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인랑마을은 2004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었다. 이후 마을 주민들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폐교된 인랑초등학교를 나라골보리말체험학교로 리모델링하였다. 책에서 읽고 눈으로 보던 한국문화를 몸으로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게 한 것이다.

학생 수가 적어 폐교된 학교의 운동장에는 제기차기, 줄다리기, 윷놀이, 연날리기, 투호, 널뛰기 등 한국의 토속적인 놀이문화가 흥겹게 되살아난다. 전통체험을 위해 찾아온 아이들은 처음 접해보는 색다른 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트랙터 타고 고택을 답사하는 체험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미로처럼 이어진 길로 들어서면 서쪽의 충효당부터 동쪽의 삼벽당까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옥을 만나게 된다.

- ① 그네타기
- ② 인랑전통테마마을 벽화
- ③ 줄다리기 체험
- ④ 나라말 보리굴 체험학교





## 사시사철 체험거리가 풍성한 고장, 영덕



당나귀 먹이주기



애국지사 함양박공 사적비

인량마을에서 추억이란 창고에 행복을 듬뿍 담아가는 데에는 어른, 아이의 구분이 필요 없다. 봄이면 보리밭기, 당나귀마차 타기, 여름에는 보리 베기, 보리개떡 만들기, 복숭아 따기, 피라미 잡기, 가을에는 사과, 감, 고구마, 오디, 땅콩 수확하기 등을 즐길 수 있고, 겨울에도 연날리기와 썰매 타기로 이어져 동장군의 기세도 무색하게 만든다.

인량마을 여행을 좋은 이유는 또 있다. 농촌과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지만, 발길을 동쪽으로 돌려 자동차로 10분만 달리면 고래볼해수욕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동해를 지척에 둔 마을이기에 산과 바다를 두루 돌아보며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굴곡진 한국의 역사가 궁금한 사람은 신돌석 장군 유적지,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목은이색기념관, 더 많은 전통체험을 즐기고 싶은 사람은 장육사, 영덕대게마을, 차유마을, 흥겨운 축제에 관심 많은 사람은 대게축제(3~4월), 해맞이축제(12.31~1.1), 황금은어축제(7월 말~8월 초), 물가자미축제(5월) 등으로 향하면 된다.

전통가옥 이야기를 들으며 증가답사



주변 둘러보기

# 영덕 인량전통테마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신돌석 장군 유적지 및 생가

Tel. 054-730-6397

영덕군 축산면 신돌석장군길 224

조선 말기에 국운이 기운 나라를 구하려 나선 의병장인 신돌석 장군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신돌석 장군은 을사조약 다음 해인 1906년에 의병을 일으켜 영덕, 삼척, 양양, 강릉, 원주, 안동 등 경상북도 북동부와 강원도 일대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서 활동한 의병장이다.

## 고래불해수욕장

[www.goraebul.or.kr](http://www.goraebul.or.kr)

Tel. 054-730-7801~7803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394

만으로 형성된 명사 20리 해안을 따라 송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고래불'은 고려 시대부터 전해진 것으로 고래가 뛰어노는 모습이다.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주말마다 음악분수대가 운영되어 화려한 조명과 분수의 춤사위를 감상할 수 있다.

## 해맞이공원

Tel. 054-730-7101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산5-5

2002년 한일월드컵을 맞아 관광객에게 해맞이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곳. 동해에서 떠오르는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더욱이 동해에서도 가장 아름답다는 해안 드라이브 코스에 위치, 해맞이공원까지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즐거움의 연속이다.



## 강구항

Tel. 054-730-7201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영덕대계의 집산지로 널리 알려진 강구항 일대에는 2백여 대계 요리 식당이 있어 다양한 대계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특히, 영덕 대계축제가 개최되는 3~4월에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까지 풍성해진다.



마을  
체험하기



소원풍등 날리기

고즈넉한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 체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종이로 등을 만든다. 그리고 저마다 소원을 적어 풍등을 함께 하늘로 띄워 보낸다. 어둠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소원풍등은 농촌체험의 색다른 추억거리이다.



농작물 수확 체험

보리를 밟으며 봄을 맞이하는 인랑리에 무더운 여름과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면 농작물 수확을 체험하려는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트랙터 타고 종가 답사

8성세 12종택이 터를 잡고 대대로 후손들이 살고 있는 한국 고유의 마을 간직한 고택이 여럿이다. 트랙터를 타고 마을 곳곳에 숨어있는 고택을 찾아가는 길은 특별한 경험이다.



전통놀이 체험

폐교를 리모델링해 재탄생한 나라골 보리말 체험학교 앞마당에는 굴렁쇠 굴리기, 줄다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투호 등 도심에서 접하기 힘든 전통놀이가 연중 펼쳐진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인랑전통테마마을 > 점심 > 고래불해수욕장 > 신들석 장군 유적지

인랑마을은 선조의 전통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지만, 동해에서 불과 2km 떨어져 있어 바닷가까지 산책하듯 찾아가갈 수 있다. 가장 가까운 해변은 고래불해수욕장이다. 축산항과 신들석 장군 유적지도 지척이니 일정이 짧더라도 꼭 둘러보자.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칠보산자연휴양림 > 점심 > 인랑전통테마마을 > 고래불해수욕장 > 저녁

둘째 날 : 해맞이공원 >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풍력발전단지) > 점심 > 강구항 > 영덕어촌민속전시관

동해를 내려다보며 산림욕을 즐기기에 칠보산자연휴양림은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바다와 산의 기운을 흡수하고 인랑마을로 향하기를 권한다. 첫날 산과 농촌에서 활력을 충전하고 다음날 해맞이공원에서 장엄한 일출을 시작으로 바닷가의 풍경과 즐길 거리, 먹거리 등을 만끽해도 좋다.

TRAVEL TIP

대중교통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영덕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 농어촌버스를 이용해 영해버스터미널 환승, 인랑1리 정류장에 하차 (5시간 소요).

숙박

폐교를 리모델링해 운영 중인 체험학교가 가족부터 단체 체험객까지 다양한 크기의 숙소를 운영. 또한 인랑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민박도 여럿 (사전예약 문의 054-734-0301).

- 칠보산자연휴양림 : 054-732-1607 / www.huyang.go.kr
- 동해해상관광호텔 : 054-733-4466 / www.dhshotel.co.kr
- 삼사오션뷰호텔 : 054-732-0700 / www.oceanviewhotel.co.kr

먹거리

- 등대회식당 : 054-732-4023 /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길 50-2
- 강변가든식당 : 054-734-0124 / 영덕군 영해면 영덕로 1997
- 김정횃집 : 054-734-1768 / 영덕군 축산면 영덕대개로 1761
- e-바다대개 : 054-733-4675 / 영덕군 강구면 강구대개길 47

통역가이드 정보

영덕군청 문화관광과(054-730-6396)에 미리 통역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본어와 중국어가 가능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THEME 01  
**EXPERIENCE**

자연에서 추억을 깨는  
체험여행




---

THEME 02  
**NATURE**

유쾌 · 상쾌 · 통쾌의 조화로운  
자연여행




---

**Check Point**

마을별 체험은 대부분의 마을이 단체(30인 이상)가 신청시 가능하며,  
계절에 따라 체험일정과 체험 종류, 체험비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체험전 반드시 사전예약은 필수!

- 본 여행가이드북에 제시된 체험비용은 30인이상 기준입니다.



---

THEME 03  
**OR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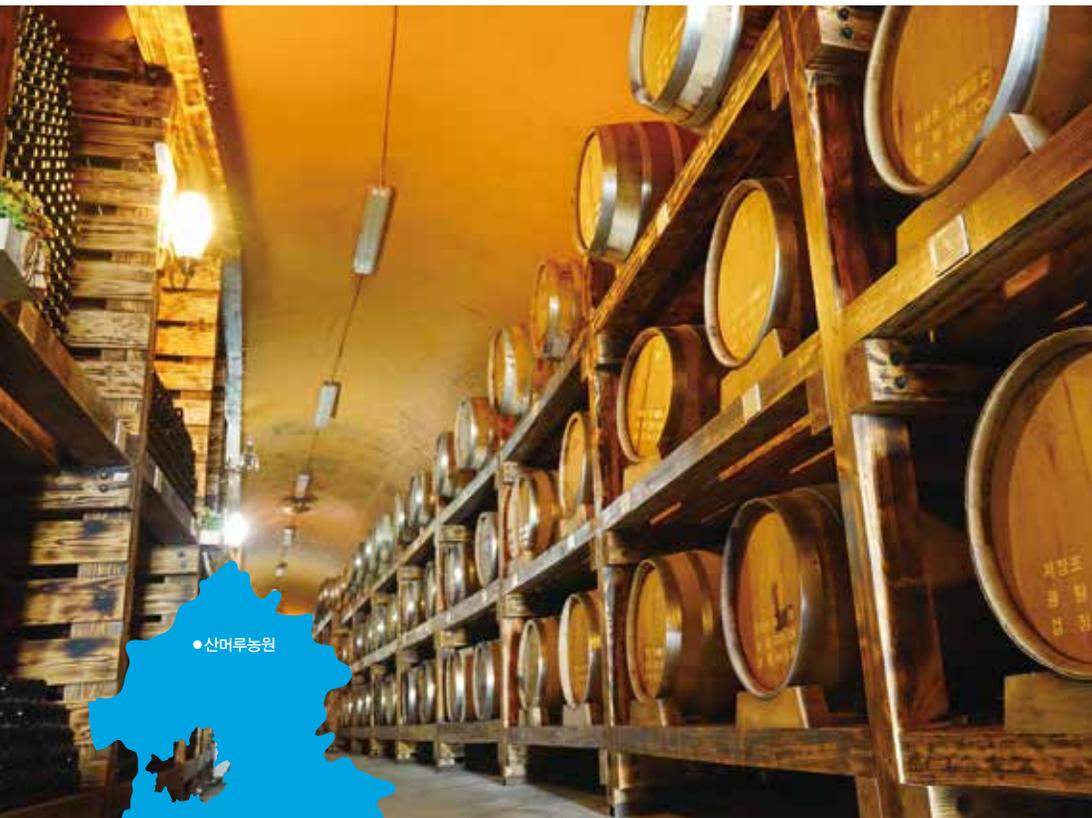
아이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전통여행



---

THEME 04  
**WELL-BEING**

최고의 먹거리를 만끽하는  
웰빙여행



● 산머루농원

●  
경기도

## 산머루 향에 취하며 보고 만들고 먹는 즐거운 체험여행

### 파주 산머루농원

와인을 만드는 재료에는 포도만 있을까? 36년 전, 지극히 사소한 궁금증에서 시작해 산머루 재배와 산머루 와인 생산에 평생을 바쳐 만들어진 곳이 있다. 경기도 5악 중 하나인 감악산 자락에서 산머루체험의 모든 것을 조성해 놓은 산머루농원이 그곳.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지하터널에 와인 숙성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윗배우니길 441-25							
체험	와이너리 투어, 산머루 초콜릿 만들기, 산머루 잼 만들기, 산머루 비누 만들기 등							
문의	산머루농원 031-958-4558, www.sewoosuk.com 파주시 문화관광과 031-940-4364							

북쪽을 향해 임진강 줄기가 이어지고 감악산이 병풍처럼 주변을 감싼 지역에 자리 잡은 산머루농원. 서울에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심의 고층빌딩이 사라지고 나서 한참을 더 달려야 모습을 드러내는 곳에 있다.

하지만 산머루농원에 도착해 지하터널에 와인 숙성시설을 조성한 와이너리로 한 발짝 들어서면 힘든 여정을 단번에 보답 받는 느낌이 든다. 73m 길이에 빼곡하게 들어선 오크통 모습과 몇 년간 숙성된 산머루향이 코를 통해 뇌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5년간 숙성된 와인을 맛보는 순간 향기로 시작된 여행에 대한 행복한 확신이 든다.



산머루농원의 상품을 살피는 관광객



## 향에 취하고 맛에 감동, 직접 만든 상품은 덤

산머루가 전한 향기와 맛으로 이색적인 체험여행을 상상하던 사람들의 만족감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았을까. 여기에 오크통에서 와인을 덜어 직접 병에 담는 경험도 재밌다.

이렇게 만든 와인은 여행의 선물이 되어 하나의 추억이 되고, 산머루를 사용해 직접 잼을 만들거나 초콜릿을 만드는 등 또 다른 체험으로 이어지면 여행의 만족감은 촉각과 시각까지 확장된다. 농원에서 간편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거쳤기에 체험에 소요되는 시간도 30분 내외로 길지 않다. 매년 9월 수확 시기에 방문하면 직접 머루를 따서 술을 담그는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혹시라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마을 주변을 산책하자. 산머루농원이 있는 객현리 일대에는 농원의 영향으로 산머루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아 걸음마다 산머루 덩굴이 인사를 건넬 것이니 말이다.

- ① 산머루농원의 다양한 제품들
- ② 벽화로 꾸며진 와이너리의 입구
- ③ 탐스러운 산머루





209

## 임진강 줄기 따라 이어지는 문화의 향기



황희 선생 동상

파주시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임진강 줄기를 따라 역사 속의 이야기가 넘친다. 특히, 한국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격전의 장소이기에 곳곳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산머루농원이 있는 객현리와 설마리 일대에도 유엔 연합군으로 참여한 영국군과 북한의 요청으로 참전한 중국군이 혈전을 벌인 지역이 있다. 당시 영국군은 장병 869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는 큰 희생을 치르며 고지를 사수했다. 당시의 아픔을 추모하기 위한 공원이 바로 '영국군 설마리전투 추모공원'이다.

한국전쟁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임진각, 남한의 최북단역인 도라산역, 북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 도라전망대, 한국전쟁 당시 휴전회담이 열렸던판문점, 1978년에 발견된 총 길이 1,635m의 제3땅굴 등도 파주에 있다. 비록 역사의 상처를 안고 흐르지만 임진강은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곳이다. 조선 시대 대표적인 청백리인 황희 정승도 관직을 버리고 반구정에서 세월을 벗 삼았고, 유명한 유학자인 울곡 이이 선생 역시 화석정에서 시를 지으며 경치를 감상했을 정도이다.

# 파주 산머루농원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210

## 영국군 설마리전투 추모공원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60여 년 전, 이곳에서 영국군이 중국군 3개 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산머루농원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약 10km)

## 임진각

<http://imjingak.co.kr>

Tel. 031-953-4744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의 비극을 대표하는 국민관광지. 자유의 다리, 망배단, 평화의 종, 증기기관차 등이 당시의 아픔을 전한다.

## 헤이리에슈마을

[www.heyri.net](http://www.heyri.net)

Tel. 031-946-8551~3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59-78

예술마을로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 1998년부터 국내미술가, 음악가, 작가, 건축가 등 380명이 조성한 복합 문화공간.

## 황희 정승 유적지

Tel. 031-954-2170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조선 시대의 기틀을 마련한 황희 정승이 관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낸 곳. 아담한 정자 반구정에서 임진강을 감상하자.



마을  
체험하기

## 와이너리 투어

정경계 그려진 벽화의 안내를 받아 지하로 내려가면 산머루 와이너리 투어가 시작된다.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가 두 개. 왼쪽은 와인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공 공장, 오른쪽이 터널을 뚫어 조성한 와인 숙성시설.



## 산머루 초콜릿 만들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초콜릿 만들기이다. 고사리손으로 직접 초콜릿을 녹이고 견과류와 색색의 토핑을 뿌려주는 체험시간은 행복한 재잘거림이 공간을 가득 채운다.



## 산머루 잼 만들기

잼을 만들려면 과육을 잘 정리해서 약한 불에 오래 졸여야 한다. 특히, 초반에 산머루를 다듬는 과정은 번거롭을 수 있지만 농장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간편하게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산머루 비누 만들기

비타민, 칼슘, 인 등의 영양이 풍부하고 열량은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산머루. 더욱이 항암작용과 노화 방지 효과가 있어 산머루로 비누를 만들면 그 영양이 피부로 가지 않을까.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 산머루농원 &gt; 점심 &gt; 화석정 &gt; 임진각(평화누리) &gt; 황희선생 유적지

아침 일찍 서둘러 오전에 산머루농원의 체험 일정을 마치고 임진각의 빼어난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화석정과 황희선생유적지 내에 있는 반구정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두 정자 사이에 한국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임진각이 있으니 꼭 둘러보시길.

## 첫째 날 : 산머루농원 &gt; 점심 &gt; 감악산 법륜사 &gt; 영국군군 설마리전투 추모공원 &gt; 저녁

## 둘째 날 : 헤이리에술마을 &gt; 점심 &gt; 황희선생유적지 &gt; 임진각(평화누리) &gt; 화석정 &gt; 두루외박물관

파주 감악산은 산세가 험해 경기도 5악 중 하나로 불리지만, 그만큼 빼어난 절경도 간직하고 있다. 산머루농원의 일정이 끝나면 법륜사와 운계폭포에서 감악산의 기운을 받기를 권한다. 이어 한국의 문화인 380여명이 조성한 헤이리에술마을을 등용 거쳐 한국의 민속생활유품을 전시하고 있는 두루외박물관에서 일정을 마감하자.

211

## TRAVEL TIP

## 대중교통

감악산 자락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기 어렵다. 서울에서 버스를 2~3번 갈아타고 적성면 버스공용터미널까지 가서 마을버스(091B)를 타고 20분 더 들어가야 한다.

## 숙박

산머루농원 캠핑장 : 오토캠핑장으로 캠핑장 이용객은 와이너리 투어를 무료로 참여. 단, 현재는 공사 중이며 2016년 3월에 재개장 예정.

- 힐즈호텔 : 031-945-9800 / www.hillshotel.co.kr
- 피카소호텔 : 031-947-5512 / www.picasohotel.co.kr
- 폴드스오브드림호텔 : 031-949-5120 / www.poldshotel.com

## 먹거리

산머루농원 내의 식당에서 제철 음식으로 차린 소박한 한식부페를 즐겨보자.

- 갈릴리농원 : 031-942-8400, 파주시 탄현면 방촌로 1196
- 코지하우스 : 031-948-3440,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12
- 두지리매운당 : 031-959-4508, 파주시 적성면 숲이홀로 2316번길 45

## 통역가이드 정보

파주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통역 서비스가 없기에 여행사를 통해 가이드의 안내를 받기를 권한다.



• 무월마을

전라남도

## 고향의 추억이 새록새록

### 담양 무월마을

누구나 향수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이나 먹을 감던 냇가, 메뚜기를 잡던 들판이 그림처럼 떠오르기도 한다. 이제 다시는 갈 수 없는 동화 속 같은 곳, 꿈에만 생각하던 고향 같은 곳이 있으니 전남 담양의 무월마을이다. 키 낮은 돌담과 탕자나무 울타리, 디딜방앗간과 샘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무월마을로 떠나자.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남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무월길40							
체험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버베기, 장아찌 담그기, 천연염색, 떡 만들기, 토우 체험, 한과 만들기, 대통밥 만들기, 한옥 숙박 등							
문의	061-381-1607 <a href="http://moowol.kr/01_04.html">http://moowol.kr/01_04.html</a>							

전남 담양의 무월마을은 달이 유난히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동쪽 망월봉에 달이 오르면 신선이 어루만지는 듯 매혹적이라서 마을 이름이 어루만질 무(撫) 자, 달 월(月) 자 무월이라고 한다. 마을 이름부터 시적이면서도 한 폭 그림을 연상케 하는데, 마을 곳곳에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남아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느티나무는 나이가 400살, 정자 좌측으로는 커다란 바위와 돌탑들이 서 있다. 바위는 마을의 유래가 된 목탑바위이다. 고려 말 한 스님이 이 지역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려 살펴보니 이 바위에서 나는 것이었다. 스님은 기묘한 일로 여기고 주변을 돌아보니, 앞은 넓은 들녘 한 가운데로 시냇물이 흐르고 뒤는 금산이 병풍처럼 서 있는 것이 사람이 살기 좋은 지형이라서 마을을 일구었다. 이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목탑바위라고 부르며 부처님처럼 신성시하였다.

한편 돌탑들은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빌며 하나하나 쌓은 것들이다. 오른쪽 것이 해신 소망탑, 왼쪽 것이 달신 소망탑으로 1년 열두 달, 24절기, 108번뇌 등 우리네 전통생활에서 자주 사용된 숫자들을 잘 조합시킨 탑이다. 이외에도 마을 앞 들녘에도 벼수와 선돌이 서 있는데, 마을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는 마을 수호신들이다.

무월마을을 상징하는 달모양 조형물



##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돌담길

마을 안으로 들어서면 돌담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탕자나무 울타리가 있고, 슬레이트지붕과 흙벽 등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금세라도 어머니가 돌담 너머로 얼굴을 내미시며 '그만 놀고 밥 먹어라'라고 말씀하 실 듯한 곳, 밭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지계를 메고 나타나실 것 같은 골목길...

그렇게 잊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돌담길을 따라 마을 위쪽으로 올라 가다 보면 중간쯤에는 방앗간과 샘이 반긴다. 방금 누가 방아를 짚어 간 듯 디딜방아 하나가 생생하게 놓여 있다. 샘 앞에는 물을 끄는 동 네 처녀들이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울 듯하다. 이들 방앗간과 샘은 조선시대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한다. 그래서일까, 자연스러우면 서도 정겨운 풍경이다.

마을 끝까지 올라가면 좌우로 아름다운 산책로가 이어진다. 대나무숲 길을 걸어도 좋고, 소나무숲으로 가도 좋다.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히고, 옆계 들어오는 햇빛은 보석처럼 빛난다. 이 길은 달맞이 산책로라고 하여 마을 돌레를 한 바퀴 도는데, 약 30분이 소 요된다. 마을 입구에서 볼 때 오른쪽 산책로 끝에는 달빛 전망대가 있 고, 왼쪽 산책로에는 녹차를 음미해 볼 수 있는 찻집이 있어 어느 쪽 으로 오르든지 다리심을 할 수 있다.

- ① 곳곳에 놓여있는 예술품
- ② 집집마다 걸려있는 독특한 문패
- ③ 마을을 따라 이어지는 돌담





## 다양한 체험이 준비된 1등급 '으뜸촌'



전통놀이 도동테 게임



고구마 캐기

무월마을은 2015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해 1등급 농촌휴양마을 '으뜸촌'으로 선정되었다. 전국 350여 개 농촌관광지 중 단 8곳만이 으뜸촌으로 선정되었는데, 경관과 서비스, 체험, 음식 및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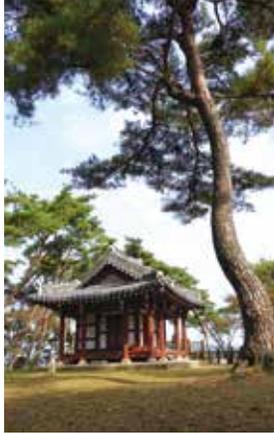
이중 특히 무월마을의 자랑은 다양하면서도 실속이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감자나 고구마 캐기, 옥수수 따기와 같은 제철 농사체험은 수확한 것을 직접 가져갈 수 있다. 한과나 대통밥 만들기는 자신이 만든 것을 직접 먹을 수 있으며, 이밖에도 천연염색이나 토우 만들기, 투호 및 고리 던지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이들 체험에 쓰이는 것들은 모두 마을 앞 들녘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것들이며, 체험 지도도 대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 마을의 진면목은 역시 숙박체험이 아닐까 한다. 마을 이름이 된 달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농사체험 벼베기



## 담양 무월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216

THEME 04 WELL-BEING  
음식여행 | 문화여행

### 죽녹원

<http://juknokwon.go.kr/>

Tel. 061-380-2680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2003년 5월 조성된 대나무숲 공원. 약 31만㎡의 울창한 대나무숲이 펼쳐져 있다. 죽림욕을 즐기며 산책하다 보면 도시에서 잊어지고 온 피로가 싹 풀린다. 후문 쪽에는 죽향문화체험마을(061-380-2680)이 연결되는데,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 섬진강 기차마을

[www.gstrain.co.kr](http://www.gstrain.co.kr)

Tel. 061-363-9900~1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일제강점기 때의 기차역을 고스란히 살린 곳으로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를 탈 수 있는 이색 관광지이다. 봄이면 장미축제, 가을이면 심청축제가 열리는 주 무대로 관광지 안에는 놀이동산과 전통문화체험관, 요술랜드 등 가족 단위 체험 및 관람 시설이 있다.

### 송강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1호,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은 담양에서 죽록정이라는 초막을 짓고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지었는데, 이를 기리기 위하여 1770년에 후손들이 지은 정자이다. 송강정 옆면에는 죽록정이라는 편액도 남아 있다.

### 면양정

전라남도 기념물 제6호,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가사 <면양정가>를 지은 조선 중기의 문신 송순이 벼슬을 버리고 후학들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낸 정자이다. 당시의 정자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현재의 정자는 후손들이 1654년에 중건한 것이다.



마을  
체험하기

## 대통밥 만들기

상시체험으로 최소 20인 이상 단체에 한한다. 마을에 자라는 왕대를 베어 사용하며 찹쌀과 멥쌀을 대통에 넣은 후 콩과 찻, 은행, 밤, 대추 등의 고명을 올려 한지로 덮은 후 찌낸다.



## 한과 만들기

계절에 상관없이 하는 상시체험으로 체험 후에는 직접 시식까지 할 수 있어 가족이 함께 체험하면 안성맞춤. 현미쌀 튀밥을 주재료로 하여 조청과 땅콩, 해바라기씨와 호박씨, 생강 등이 들어간다.



## 고구마 캐기

10월에 하는 계절체험으로 고구마 넝쿨을 걷은 후 호미로 훑을 파 고구마를 캐다. 마을 곳곳의 농가마다 고구마를 친한경으로 재배한다. 호미와 바구니는 마련되어 있다.



## 마을 여행

단체 신청의 경우 체험학습과 함께 마을 투어를 무료로 실시한다. 돌담을 따라서 마을 곳곳을 안내받으며 옛 전통마을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좋다. 40여 분 소요, 단체로 체험할 경우 마을 사무장이 직접 안내를 해 준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무월마을 &gt; 점심 &gt; 죽녹원 &gt; 관방제림 &gt; 메타세쿼이아길

오전에 무월마을을 둘러보고 무월마을문화관에서 하는 체험학습 중 한두 가지를 해본다. 한과 만들기나 메밀묵 만들기 혹은 대통밥 만들기를 하면 간단히 점심도 해결. 오후에는 죽녹원 등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둘러본다.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죽녹원 &gt; 관방제림 &gt; 메타세쿼이아길 &gt; 점심 &gt; 무월마을 &gt; 1박(한국)

## 둘째 날 : 무월마을 &gt; 섬진강 기차마을 &gt; 섬진강

죽녹원 등 담양읍 근처의 관광지를 섭렵한 후 점심을 먹고 무월마을로 들어가서 산책과 체험학습을 한 뒤 마을에서 1박을 한다. 이튿날 곡성으로 이동하여 섬진강 기차마을을 관람하면 일석이조! 무월마을에서 기차마을은 자동차로 20여 분 걸린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1.서울 → 담양 / 고속버스 : 센트럴시티터미널 08:10, 11:10, 14:10, 17:10  
2.담양 → 무월마을 / 담양공용버스터미널 앞에서 농어촌버스 3-1번 승차 → 성곡리 입구 하차 → 농어촌버스 7-1번 승차 → 무월마을 하차

## 숙박

- 무월마을 민박 : 3인 이하 기준 5~6만 원
- 한옥체험관 : 30인 이상 전체 사용 40만 원, 8인 이하일 경우 별도 사랑방 사용 10만 원
- 햇살 : 독채 15인까지 가능 20만 원, 가족실 10인까지 15만 원
- 저수지쉼터 : 독채 20인까지 30만 원, 가족실 12인까지 17만 원

## 먹거리

- 마을 내부에 식당은 없으나 단체의 경우 예약하면 가능.
- 대통밥 만들기 체험을 신청하면 식사 제공.
- 대수에 물 흐르는 밥집 : 061-383-8688(죽녹원 인근)
- 진우네 국수 : 061-381-5344(관방제림 인근)

## 통역가이드 정보

외국인 통역을 위한 인력은 두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가이드를 통하여 여행이 이루어진다.



● 사과와인

● 충청남도

## 명품 과실주로 꼽히는 예산 사과와인의 향기에 취하다

### 예산 사과와인

탁 트인 길을 달리다보면 무수하게 많은 사과밭이 차창을 스친다. 발그레한 사과가 수줍은 듯 나무 앞에 얼굴을 파묻고 있다. 사과나무의 행렬은 끝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사과 생산량이 많다보니 우리나라 유일의 사과 와인이라도 예산에 있다. 넓은 평야에 그윽하게 퍼지는 사과와인 향을 맡으러 예산으로 떠나본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대몽로 107-25							
체험	사과 수확 체험, 와인너리 투어, 애플파이 만들기, 사과와인 열차타기							
문의	예산사과와인 041-337-9584, www.chusawine.com 예산군 관광안내 041-339-8930							

예산은 예로부터 '우애 좋은 형제의 고장'으로 알려졌다. 흑백텔레비전이 보급되었던 시절 한 식품회사에서 라면광고에 '형님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카피를 만들어 유행시키기도 했는데 그 배경이 된 곳이 예산이다. 또한 적당한 일교차와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등 사과 재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과 와인을 생산하는 은성농장은 사과 재배부터 수확, 와인의 발효와 숙성, 그리고 병입까지 모든 과정이 농장에서 이뤄진다. 또한 와인 숙성실, 사과파이 체험장,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춰 체험형 농장으로 인기가 높다. 맛의 비결은 품질 좋은 100% 예산사과만을 고집한다는 것과 물과 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한 달간 저온발효한 뒤 1년간 숙성을 거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우리슬 품평회'에서 예산 사과와인은 과실주 부문 2011년 장려상, 2012년 대상, 2013년 최우수상, 2015년 대상을 수상했다.

## 마을 미리보기

직접 수확한 붉은빛의 햇사과



## 사과향이 그윽하게 퍼지는 곳에서 만끽하는 농촌여행

사과나무 아래에는 은박필름이 반짝반짝 빛을 반사한다. 위아래 골고루 햇볕을 받게 하기 위해 설치해놓은 일종의 반사판인 셈이다. 그래서일까, 붉은 사과가 보기 좋은 것은 물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까지 하다.

경쾌한 엔진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사과수확 체험에 나선 아이들이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사과 트랙터를 타고 농장에 입성한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사과를 따보려 하지만 제 키보다 높게 매달려 여간 애를 먹는 게 아니다. 가까스로 인솔자의 도움을 받아 큼직한 사과를 거머쥔 뒤 'V'자를 얼굴에 갖다 대고 활짝 웃는다.

사과파이체험장의 열기도 뜨겁다. 미리 준비해 놓은 반죽을 용기보다 크게 밀어서 사과절임을 넣고 덮으면 1차 완성. 반죽이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게 하는 달걀 풀을 골고루 발라주니 반질반질 윤기가 흐른다. 사과가 오븐에서 30~40분 정도 뜨거운 열 샤워를 하고나자 드디어 최종완성이다. 직접 만든 사과파이를 맛보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사과 꽃보다 예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다.

- ① 트랙터 타고 사과따러가는 체험객
- ② 사과와인 축제
- ③ 은성농장
- ④ 사과따기 체험





## 사과의 유혹에 빠져 시간가는 줄 모른채...



추사 기념관



사과파이 체험장

사과체험 이후에 신나는 물놀이가 기다리고 있다면...

상상만 해도 아이들은 즐겁다. 예산은 아산과 더불어 조선시대부터 온천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그 명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곳이 덕산 온천으로 유명한 리솜스파캐슬이다. 스파를 테마로 조성된 워터파크 중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에 들어가는 규모를 갖췄다. 메인 스파인 천천향은 의학, 미용, 레저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설계했다. 또한 포천중문의과대학교와 연계해 대체의학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자랑거리다. 어른들이 따뜻한 온천수에서 쉬는 동안 유아는 키즈풀에서, 아이들은 유수풀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예산은 조선을 대표하는 서예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향이다. 신암면에 가면 선생이 살았던 고택과 기념관이 잘 조성되어 있다. 조경이 잘되어 있어 소풍삼아 나들이를 나선 가족들의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리솜스파캐슬



주변  
둘러보기

## 예산 사과와인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덕산도립공원

Tel. 041-339-893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401

1973년에 설립된 도립공원으로 산악 내륙형 관광공원. 가야산 및 덕송산, 수암산에 있어 등산객이 많이 찾으며 산행 후 덕선온천관광지에서 피로를 풀자. 덕선온천은 조선 손조임금 때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역사가 깊다. 리 스포스파개슬은 국민보양온천으로 시설과 규모면에서 가장 으뜸으로 꼽힌다.

### 윤봉길기념관

[www.yunbonggil.or.kr](http://www.yunbonggil.or.kr)

Tel. 041-339-823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덕산온천로 183-5

덕산은 암울한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윤봉길의사의 고향이다. 그를 기리는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송고한 민족사랑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생가인 광현당, 농촌부흥운동을 한 부흥원 등을 같이 둘러볼 수 있다.

### 추사고택

[tour.yesan.go.kr](http://tour.yesan.go.kr)

Tel. 041-339-824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49

18세기 중반 건립된 조선후기 유명한 실학자이며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고택이다. 99칸 상류주택의 전형적인 형태이나 지금은 안채, 사랑채, 문간채와 사당채가 남아있다. 사랑채 뒷돌 앞에 있는 석주모양 해시계는 추사선생이 직접 제작한 것이다.



### 예당관광지

[tour.yesan.go.kr](http://tour.yesan.go.kr)

Tel. 041-339-828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길 42

예당저수지 일대 일주도로와 후사리 등지를 아우르는 관광벨트이다. 1962년 예산과 당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예당저수지는 전국최대의 인공 저수지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들어가는 명소이다. 1986년 조성되어 조각공원, 산책로, 야외공연장, 캠핑장 등이 있다.

마을  
체험하기

## 사과 수확 체험

나무에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를 직접 따보자. 조심조심 흠집이 나지 않게 사과를 위쪽으로 꺾어서 따야 꼭지까지 떨어 나온다. 사과 한 봉지씩 들고 나올 때 농부의 노고에 감사하며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 사과와인 열차타기

사과따기 체험을 하러 가는 길에 사과와인열차를 이용해보자. 토마스기차를 닮은 운전석은 아이들을 배려한 농장주의 센스. 사과체험장까지 가는 동안 사과밭 구경은 유쾌하다.



## 와이너리 투어

연성농장의 최고 히트작품인 추사와인을 맛 볼 수 있는 코스이다. 직접 재배한 사과를 이용하여 알코올을 첨가하지 않고 발효시킨 '추사'와인은 맛과 향, 색이 뛰어나다. 아이스와인처럼 아주 차갑게 즐겨야 좋다.



## 애플파이 만들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과파이 만들기이다. 직접 파이반죽을 밀어서 모양을 만들고 사과절임을 올려준다. 파이 뚜껑에 모양을 내어 덮고 오븐에서 30분을 구우면 베이커리에서 살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애플파이가 완성.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사과와인 &gt; 점심 &gt; 추사고택 &gt; 예당관광지

정오가 되기 전 사과와인 농장의 체험 일정을 마치고 인근 추사고택으로 향해보자. 추사 김정희 선생의 품격이 느껴지는 고택은 주변에 수목이 울창하여 사계절 다른 매력을 풍긴다.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사과와인 &gt; 점심 &gt; 추사고택 &gt; 저녁

## 둘째 날 : 덕산도립공원 &gt; 점심 &gt; 운봉길기념관 &gt; 예당관광지

예산의 주요 관광지는 크게 덕산온천관광벨트와 예당호관광벨트로 나뉜다. 사과농장 체험을 마친 후에 삼교읍으로 내려와 서쪽으로 향하면 덕산도립공원이다. 산행과 온천욕을 겸하여 휴양할 수 있는 곳이다. 동쪽에 위치한 예당저수지는 자연미와 인공미를 두루 갖춘 힐링 관광명소로 가볍게 드라이브 하거나 산책하기에 좋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고속버스로 예산종합터미널 하차, 459번 농어촌 버스로 환승, 한영철 외과 정류장 하차, 79번 일반버스로 환승, 대천리 정류장 하차. 은성농원까지 650m 도보로 이동.

## 숙박

- 리솜스파게슬덕산 : 041-330-8000, www.resom.co.kr
- 예당정원 : 041-668-2900, www.ydpark.com
- 휴펜션 : 041-338-2110, www.penhue.com
- 초콜릿펜션 : 010-3425-7781, www.chocopen.net

## 먹거리

- 사과와인 내 식당에서 재철 음식으로 차린 소박한 한식 상차림을 즐겨보자.
- 산마루기든 : 041-334-9235,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예당궁묘로 406
- 왕궁식갈비 : 041-331-1350,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8
- 한일식당 : 041-338-2654,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두리2길 60

## 통역가이드 정보

영어권은 통역이 가능하며 그 외 언어는 별도의 통역가와 동행해야 체험이 가능합니다.



신평양조장

충청남도

## 술 익는 마을에서 웰빙여행을

### 당진 신평양조장

서울에서 출발한 차량이 서해대교를 지나면 당진에 닿는다. 당진은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왜목마을로 유명한 곳이다. 동해에 비해 강렬하고 역동적이지는 않지만 감성적이고 고요한 일출을 맞이할 수 있다. 왜목마을과 가까운 신평면에 3대째 전통술을 빚고 있는 신평양조장이 있다. 전통에 젊은 감각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전통주 문화를 이끌고 있는 신평양조장을 찾아본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813							
체험	막걸리 소믈리에 클래스, 막걸리 각테일만들기, 증류주 만들기, 누룩전 만들기							
문의	신평양조장 041-362-6080, www.koreansul.co.kr 당진시 문화관광과 041-350-3600~02							

작은 면소재지인 신평면은 시간이 멈춘 곳처럼 한갓지다. 도로보다 조금 낮은 곳에 파란색 슬레이트 지붕 건물이 신평양조장이다. 1대 김순식 대표가 스물네 살 때인 1933년 처음 문을 열었다. 양조장 옆에 전통주 체험시설인 '백련양조문화원'이 자리한다. 창업 이래 3대째 전통술만을 고집해온 신평양조장의 살아있는 역사가 응골차게 모여 있다.

눈여겨 볼 것은 1938년에 발행된 《주조독본》, 김용세 2대 사장이 젊은 시절 양조기술을 공부했던 《주조강록》등 손때 묻은 서적들과 아버지 세대에서 사용했던 막걸리 통, 양조 도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술과 우리 술의 역사도 훑어 볼 수 있다. 3대 사장인 김동규 씨는 고급스러운 막걸리 문화에 관심이 많다. 그 결과 유리병에 담긴 막걸리를 출시하는 한편, 2011년 서울 강남에 고급 막걸리 바를 오픈했다.

## 마을 미리보기

3대째 사용하고 있는 술독



## 막걸리의 화려한 변신을 체험하라

2008년 청와대 만찬주, 2011년 일본 수출, 2013년 영국주류품평회(IWSC) '브론즈 메달',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이은 수상. 83년간 이어온 신평양조장 술맛의 결과물이다. 신평양조장에서는 술을 직접 만들고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은 시음·관람 프로그램과 양조체험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본격적인 술 빚기는 양조체험에서 이뤄진다. 내가 빚은 막걸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 신평양조장을 대표하는 백련막걸리는 당진에서 생산한 해나루쌀을 주원료로 백련 잎을 첨가해서 만든다. 차게 해서 마시면 깔끔한 맛이 일품이다. 평소 텁텁한 맛 때문에 막걸리를 즐기지 않던 여성들도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든다. 특히 유리병에 담긴 프리미엄 생막걸리는 깊은 맛과 은은한 탄산의 톡 쏘는 맛이 더해져 고급막걸리로 통한다. 막걸리칵테일 만들기는 화려한 색과 색다른 맛을 원하는 사람에게 인기다. 증류주(전통소주)내리기 체험은 소요시간이 긴 편이지만 직접 만든 소주를 병에 담아갈 수 있어 좋아한다. 누룩전 만들기 체험은 막걸리의 주원료인 누룩을 이용한다. 바삭하게 구워내어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린다.

- ① 백련양조문화원 내부
- ② 입맛을 돋우는 백련 맑은 술
- ③ 60~80년대에 사용하던 막걸리 말통
- ④ 누룩의 모양을 만드는 형틀





## 서해안의 멋진 풍광을 누리는 농촌여행



사색의 공간으로 꾸며진 솔미성지 솔숲



기지사줄다리를 재현해 놓은 모형

서울에서 출발했다면 서해대교는 당신의 관문이 셈이다. 7.3km에 이르는 대교를 달리다보면 강한 바람 탓에 운전대를 잡은 팔에 잔뜩 힘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당신 시평면에서 바라보는 서해대교의 일몰은 자연과 인간이 협력해서 만든 걸작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신여행을 시작할 때 혹은 마지막에 감상하고 이동하면 좋다. 서해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삽교호함상공원은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진한 커피 향에 빠져도 괜찮을 곳이다. 당신과 예산 점경지대에 있는 솔미성지는 천주교 신자들에게 잘 알려진 명소다. 십자가의 길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산책하기에도 그만이다. 전통놀이인 줄다리가 스포츠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줄다리는 스포츠로 공인되고 있으며 세계 대회까지 열리고 있다. 실제로 올림픽 초창기에는 줄다리가 정식종목이기도 했었다. 이와 같이 줄다리에 대한 모든 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문을 연 기지사줄다리기박물관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 당진 신평양조장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삼교호함상공원

[www.sgmp.co.kr](http://www.sgmp.co.kr)

Tel. 041-363-696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삼교천3길 79

서해바다에 정박한 대형상륙함과 구축함을 전시관으로 꾸민 곳이다. 내부에는 해군과 해병대의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한 자료들이 가득하다. 200m 전망데크로 연결된 삼교바다공원과 같이 둘러보면 좋다.



### 서해대교

[www.koreaocceanpark.co.kr](http://www.koreaocceanpark.co.kr)

Tel. 041-358-070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275

아산만의 드넓은 바다위로 당당하게 서 있는 서해대교는 당진여행의 최고 뷰포인트이다. 당진포구에 정박해 있는 어선과 어우러진 서해대교의 낭만적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 솔미성지

[www.solmoe.or.kr](http://www.solmoe.or.kr)

Tel. 041-362-5021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솔미로 132

솔미성지는 우리나라 최초 사제, 고(故)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이며 병오박해 때 순교한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다. 고즈넉한 소나무숲 사이의 산책길은 '십자가의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이 곳곳에 놓여있다.



### 기지사줄다리기박물관

<http://gijisjuldaligi.dangjin.go.kr>

Tel. 041-350-4929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뜰모시길 11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줄다리기 박물관이다. 지상 3층의 규모로 상설전시, 기획전시외에도 직접 줄다리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특히 볼만한 것은 야외에 전시해 놓은 실제크기의 거대한 줄이다.



마을  
체험하기

## 증류주 만들기

증류주는 양조주를 가열하여 기체로 변한 알코올을 냉각시켜 다시 액체로 만드는 술이다. 원래의 양조주보다 알코올 농도가 높은 무색투명한 술을 얻을 수 있다.



## 막걸리 소믈리에 클래스

백련주와 함께 다른 막걸리를 비교 시음하는 클래스이다. 블라인드 테스트로 백련주의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을 검증한다. 명예막걸리 소믈리에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준다.



## 막걸리 칵테일만들기

막걸리에 각종 칵테일 음료를 넣고 흔들어 주면 막걸리가 화려한 칵테일로 변신한다. 뽀얀 우윳빛 막걸리에 색이 더해지면 파스텔 톤으로 바뀌고 맛도 한층 세련되게 업그레이드된다.



## 누룩전 만들기

신평양조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전이다. 술을 빻는 쌀누룩에 견과류, 꿀을 넣고 반죽을 한 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먹음직하게 부쳐낸다.

추천  
여행코스

## 당일 코스

## 신평양조장 &gt; 점심 &gt; 삼교호함상공원 &gt; 서해대교 조망

양조장에서 그윽한 막걸리의 깊은 맛에 심취했다면 이번엔 눈이 호사를 누릴 차례다. 당진은 아산만을 끼고 있어 포구를 따라 시원한 전망을 품고 있다. 삼교호관 광지로 유명한 함상공원에서 멋진 서해대교를 감상해보자.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신평양조장 &gt; 점심 &gt; 삼교호함상공원 &gt; 저녁

## 둘째 날 : 솔뫼성지 &gt; 점심 &gt; 기지시 줄다리기박물관 &gt; 도비도 &gt; 왜목마을

만을 오가는 어선들이 정박하는 포구가 많고, 그곳에서 보는 서해대교의 전망은 그림처럼 황홀하다. 다음날은 솔뫼성지 숲길을 산책한 뒤 전국에 하나뿐인 줄다리기 박물관을 둘러보자. 시간이 더 허락된다면 다리로 연결된 도비도를 지나 왜목마을에서 낙조를 맞아도 좋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신평양조장은 신평면 중심지에 있어서 대중교통이 용이. 서울에서 출발한다면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당진행 시외버스 이용. 터미널에서 25-1번 버스를 타고 신평면사무소 정류장에 하차 (3분 정도 소요).

## 숙박

- 왜목펜션빌 : 041-353-0418 / www.yeomok.com
- 아잘리아그린 : 070-7703-5758  
http://cafe.naver.com/azaleagreen
- 바다랑해 : 041-353-2675 / www.badahae.com
- 블루비치펜텔 : 041-358-1222 / www.bluebeachpentel.com

## 먹거리

- 우렁이박사 : 041-362-9554,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7439
- 미당 : 041-362-1500,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합덕대덕로 502-22
- 간재미회국수 : 041-362-8615,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해안로 162
- 해동장 : 041-362-6230,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신평로 795

## 통역기대도 정보

영어권은 통역이 가능하며 그 외 언어는 별도의 통역자와 동행해야 체험이 가능하다.



보향다원

전라남도

## 차잎으로 만든 다양한 차 이름도 알고 차도 만들고

보성 보향다원

보성 보향다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한 식생활 우수체험공간으로 선정되었다. 5대째 녹차밭을 가꾸고 있는 전통있는 다원이다. 녹차, 발효차, 떡차 등 다양한 차를 직접 만들고 시음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 황금 성분이 함유된 금차 개발에도 성공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동안1길 144							
체험	녹차만들기, 발효차만들기, 떡차만들기, 천연염색, 녹차초코릿 만들기							
문의	061-852-0626, www.bohyang.com							

체험관 옆에 들어선 1농장과 2농장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면적에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차밭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

보향다원의 최영기 대표는 “녹차밭이니, 녹차잎이니 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찻잎을 가공해서 녹차를 만들 수도 있고, 홍차를 만들 수도 있고, 발효차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라고 말한다. 차밭의 찻잎은 사람손을 거쳐 어떻게 다듬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치를 가진 다양한 차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보향다원은 식생활 체험우수공간(농림축산식품부 선정)으로 다양한 차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녹차를 비롯해 발효차와 떡차를 만들어볼 수 있다. 보향다원은 5대째 내려오는 차밭을 운영하고 있다. 최영기 대표의 아들인 최준용씨가 2013년 귀농해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마을  
미리보기

찻잎으로 녹차 만들기



## 1,500년 역사를 가진 떡차

보향다원의 최영기대표는 1,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떡차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차체험관에서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도중에도 전통의 떡차가 거의 명맥이 끊어지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신라말 고운최치원 선생이 왕명을 받아서 기록한 하동 쌍계사의 진감선사 대공탑비에에도 떡차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쌍계사 일대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차를 재배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미 떡차도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구려고분에서 떡차가 출토되어 1,500여 년 전부터 우리조상들이 떡차를 먹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 ① 떡차만들기 체험을 통해 만든 떡차
- ② 찻잎 따는 최영기대표 부부



떡차란 떡처럼 틀에 박아내서 만든 덩어리차를 말한다. 차를 떡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엽전을 닮았다고 해서 전차라고도 부른다. 실제로 엽전처럼 떡차 여러 개를 줄에 꾸러미처럼 연결해서 말린다.





보향다원 다도 체험

233

## 황금성분이 함유된 유기농 금차

행다(차를 우리고 따르는 과정)중의 모습



보향다원은 한국 최초의 유기인증 발효차인 황금명차를 개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 최초 미국USDA-NOP, 일본JAS, 유럽EU의 유기 인증과 할랄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 최초로 금차를 개발했다. 금차는 금용액(Colloidal Gold)을 차나무에 관수하여 탄소동화작용을 거쳐 차잎에 금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금과 차의 효능이 결합된 세계 최초이며 유일무이한 귀한 차이다. 보향다원의 최영기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변 둘러보기

## 보성 보향다원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 대한다원

[www.daehantea.co.kr](http://www.daehantea.co.kr)

Tel. 061-853-2595

보성군 보성을 녹차로 763-67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CF 등의 단골 촬영지가 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다원에 들어서면 계단식 차밭이 인상적이다. 오선봉 자락에 길게 늘어선 차밭의 푸르른 곡선미가 동양적인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차밭으로 걸어가면 길목에 길게 이어진 삼나무 숲길도 인상적이다.

### 한국차박물관

[www.koreateamuseum.kr](http://www.koreateamuseum.kr)

Tel. 061-852-0918

보성군 보성을 녹차로 775

보성군이 운영하는 차를 주제로 한 전시·체험공간이다. 차 문화실은 전시·패널과 영상을 통해 보성차와 차문화를 만날 수 있다. 차 역사실에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국의 차문화와 유물을 볼 수 있다. 차 생활실은 중국·일본·유럽의 다실을 재현했다. 전망대는 차밭이 한눈에 들어온다.

### 강골마을

[gg.invil.org](http://gg.invil.org)

Tel. 061-853-2885

보성군 득량면 역전길 15-9

강골마을은 기암괴석의 봉우리 다섯개로 이루어진 오봉산과 선소해안 일대에 1억년의 신비를 간직한 세계 최대의 공룡알화석이 발견된 역사적인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는 해평석장승이 있으며 열화정이라는 정자의 풍취가 일품이다. 전통가옥인 이용옥가옥, 이석래가옥, 이금재가옥 등이 남아있다.

### 득량역 추억의 거리

[www.memory-road.co.kr](http://www.memory-road.co.kr)

보성군 득량면 역전길 28

득량역은 경전선의 간이역으로 예당역과 보성역 사이에 있다. 득량역 주변 일대가 추억의 거리로 조성되고 남도해양관광열차인 S트레인이 정차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1970년대 분위기의 추억의 거리를 만들었다.



마을  
체험하기

## 녹차 만들기 체험

차밭에서 찻잎따기를 한다. 찻잎을 불 위에 올려 놓고 튀은 후 손바닥으로 비빈다. 찻잎을 건조시키면 녹차가 완성. 뜨거운 물을 붓고 우려내면 맛있는 녹차를 맛볼 수 있다.



## 발효차 만들기

찻잎을 따서 찻잎을 시들게 만든다. 시든 잎을 손으로 비빈다. 찻잎을 발효시킨 후 말리면 발효차가 완성.



## 떡차 만들기 체험

차밭에서 찻잎을 따서 찻잎을 증기로 찐 후 불 위에서 쉼니다. 떡처럼 덩어리진 차를 틀에 넣고 누른다. 떡모양이 만들어진 차 가운데에 구멍을 뚫는다. 줄에 꿰어서 말리면 떡차가 완성.

## 천연염색

천연 염색이 되는 재료를 따서 말린 후 염료를 만든다. 염색할 천에다 물을 들인 후 빨래줄에 널어서 말리면 곱게 물이 든다. 자신만의 손수건이나 머플러를 가질 수 있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보향다원 &gt; 점심 &gt; 한국차박물관 &gt; 대한다원

보향다원에서 차만들기 체험을 한 후 점심을 먹는다. 한국차박물관과 대한다원을 둘러보며 보성녹차밭과 보성녹차에 대한 매력을 빠져보자.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한국차박물관 &gt; 점심 &gt; 보향다원 &gt; 제암산자연휴양림 &gt; 저녁

## 둘째 날 : 대한다원 &gt; 득량역 추억의 거리 &gt; 점심 &gt; 강골마을

## &gt; 울포 해수욕장탕

첫째날은 한국차박물관을 둘러본 후 점심을 먹는다. 보향다원에서 체험을 한 후 제암산자연휴양림에서 삼림욕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 둘째날은 대한다원을 둘러본 후 득량역 추억의 거리에서 1970년대의 향수에 젖어본다. 전통 고가가 모여있는 강골마을을 여행한 후 울포 해수욕장탕에서 목욕을 하면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신다.

235

## TRAVEL TIP

## 대중교통

서울강남고속터미널에서 보성행 고속버스가 하루 1차례 운행. 15:10 출발 5시간 소요. 토요일에는 08:10 한차례 더 운행. 강남고속터미널에서 5분마다 운행하는 광주행 탑승 후 다시 보성행으로 환승. 보성시외터미널에서 보향다원까지는 택시를 이용. 5분소요, 요금 3천원

## 숙박

보향다원에 펜션형 숙박시설 이용. 문의 : 061-852-0626

- 골망대펜션 061-852-1966
- 제암산자연휴양림 061-852-4434
- 녹차향기호텔 061-853-7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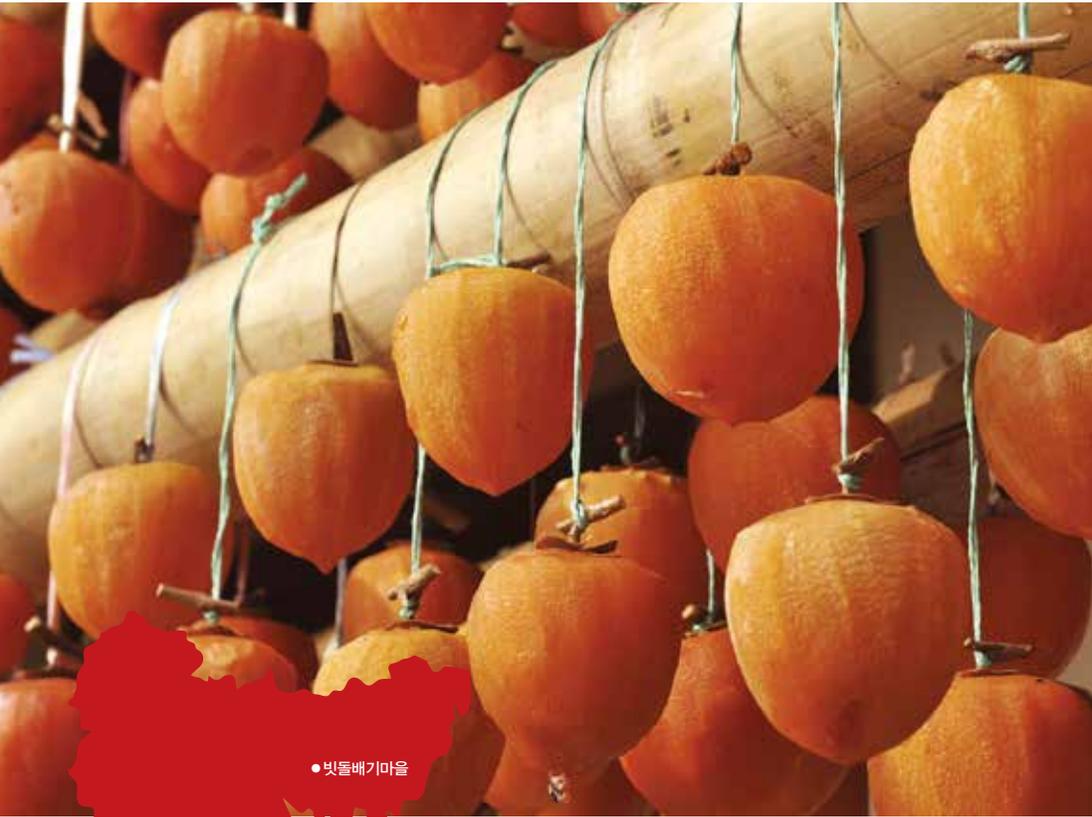
## 먹거리

보성향토시장에 녹차떡갈비와 연밥정식을 접하는 식당이 있다.

- 특미관 061-852-4545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53
- 다향떡갈비 061-853-9280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53
- 김미자연애찬 061-853-8595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53

## 통역가이드 정보

보향다원이나 보성군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가 없어 여행사 등을 통해 미리 통역을 구해야한다.



● 빗돌배기마을

● 경상남도

## 외국인이 농촌체험을 배우는 우프 호스트마을 식교육 전문 농장

창원 빗돌배기마을

창원빗돌배기마을은 외국인이 농촌체험을 배우기에 좋은 우프(wwoof) 호스트마을이다. 다양한 음식체험이 가능한 식교육 전문농장으로 과채류체험도 계절별로 다양하다.

우프(WWOOF)='유기농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란 뜻. 여행객들(우퍼)이 농가(호스트)에 들러 하루 네댓 시간 일해주는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프로그램. 호스트가 되려면 '우프코리아'(wwoofkorea.co.kr)로 문의.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진산대로 505번길 51-17							
체험	단감따기 체험, 단감파이 만들기 체험, 미니피자 만들기 활쏘기 체험 등							
문의	055-291-6639 www.sweetvillage.co.kr							

2007년에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된 창원빗돌배기마을은 단감농장을 중심으로 한 감특화마을이다. 빗돌배기마을에 자리한 다감농원은 1936년에 농장문을 열어 80년의 긴 역사를 가진 농원이다. 3대에 걸쳐 친환경농법으로 단감을 재배해 2007년에 농촌진흥청 탐푸르트 단감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농협 식교육 전문농장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음식체험이 가능하다. 농장에서 수확한 감으로 단감파이, 단감와인, 단감장아찌, 감식초, 비빔밥 등을 직접 만들어 맛볼 수 있다. 우프(woof) 호스트마을로 지정되어 농촌체험을 배우는 외국인 대학생과 인턴십 학생 등이 장기간 머물기도 한다.



현대모비스 황토방



## 다양한 과채류 수확체험의 이모저모

매년 10월 셋째주 주말에는 감문화축제가 열린다. 단감 외에도 다양한 과채류 수확체험이 가능한 곳이다. 딸기, 메론, 참외, 오이, 수박, 자두, 삼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어 연중 다양한 수확체험이 이어진다. 봄에는 딸기, 메론, 참외 수확체험을 해볼 수 있다. 손모내기 체험도 가능하다. 여름에는 방울토마토, 오이, 수박, 자두 수확체험이 진행된다. 미꾸라지 잡기체험, 부채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가을에는 단감수확체험이 인기가 높다. 조생종은 9월부터 수확체험이 시작되며, 10월에서 11월사이 본격적인 단감수확체험을 한다. 또한 고구마, 콩수확체험도 할 수 있으며 벼수확체험, 감말랭이 만들기 체험도 재미있다. 겨울에는 가마솥보쌈과 김장하기, 명품단감 포장하기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연중 체험행사로는 활쏘기, 투호놀이, 전기자 동차 마을투어 등을 해볼 수 있다.

- ① 장만들기 체험
- ② 미꾸라지잡기 체험
- ③ 단감 수확 체험
- ④ 두부만들기 체험





## 생태관광도시 창원



빛돌배기마을의 단감



창원 과학 체험관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자리한 창원은 생태관광지로 손색이 없는 곳이다. 주남저수지를 비롯해 죽동마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방리 엄나무군 등이 빛돌배기마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신라시대 고찰인 성주사와 남해바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창원해양공원도 한번쯤 가볼만하다. 저녁 시간에는 상남시장 대끼리 야시장에서 특색있는 먹거리를 맛보자. 창원과학체험관에서 즐기는 다양한 과학 체험도 재미있다.



## 창원 빗돌배기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240

THEME 04 WELL-BEING  
건강 | 웰빙여행

### 주남저수지

<http://junam.changwon.go.kr>

Tel. 055-225-2798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대신면 일원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 다양한 철새를 만날 수 있다. 저수지 주변으로 둘레길과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하기에도 좋다.

### 죽동마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죽동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죽동리 죽동마을에서 대방마을까지 이어지는 1.1km 길이의 도로변에 서있는 길게 뻗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인상적이다.

### 성주사

Tel. 055-262-0108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

성주사는 불모산에 들머선 사찰로 신라 흥덕왕(835년) 때 세워졌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재건했는데, 곰절이라고도 부른다.



### 창원해양공원

<http://marinepark.cwsisul.or.kr>

Tel. 055-712-0403

####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

진해구 명동에 자리한 해양공원(해전사체현관, 해양생물테마파크, 생태어류학습관)으로 퇴역함인 강원함이 바다에 떠있다.



## 마을 체험하기



### 단감따기 체험

빛돌배기마을 단감은 수확과 동시에 작거리로 다 팔릴 만큼 그 맛과 명성이 매우 뛰어나다. 체험객들은 과수원을 둘러보며 단감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직접 감을 따본다.



### 두부만들기 체험

영양 만점, 건강 만점인 유기농 두부 만들기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 단감파이 만들기 체험

우리나라 단감을 다양하게 알리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 우리밀로 만든 반죽과 잘 익은 단감을 줄여 만든 필링(소)을 이용해 만드는 단감파이는 오감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다.



### 활쏘기 체험

남녀노소 용이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 활과 원리가 같은 개량궁으로 체험지도사와 함께 안전하게 활쏘기가 진행된다. 집중력과 바른 자세, 절도를 함께 배울 수 있다.

##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

### 빛돌배기마을 > 점심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 주남저수지 > 신방리염나무군

빛돌배기마을에서 체험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 죽동마을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걸어보자. 주남저수지에서 다양한 철새를 구경하고, 천연기념물인 신방리염나무군을 함께 둘러보면 멋진 생태여행이 된다.

### 첫째 날 : 빛돌배기마을 > 점심 >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 주남저수지 > 저녁 > 상남시장 대끼리 야시장

### 둘째 날 : 창원성주사 > 점심 > 창원과학체험관 > 창원해양공원

저녁을 먹고 전통시장인 상남시장 대끼리 야시장에 가보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로 생긴 야 시장은 밤에도 활력이 넘친다. 상남시장은 매일 낮 3시부터 자정까지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대끼리'는 '아주 좋다'는 뜻의 경상도 사투리다. 둘째날은 신라고찰인 성주사를 둘러보고, 창원과학체험관에서 다양한 과학관련 체험을 해보자. 창원해양공원에서는 남해안의 바다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다.

241

## TRAVEL TIP

### 대중교통

1.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창원행버스 승차(06:10~00:30 / 30분~1시간 간격 운행) - 창원역 고속버스터미널 하차 - 마을버스 1, 2번 승차 - 해강아파트 앞 하차 도보로 10분
2. 서울역: 진주행 KTX 승차(05:15~22:10 / 1일 10회 운행) - 창원역 하차 - 마을버스 1, 2번 승차 - 해강아파트 앞 하차 도보로 10분

### 숙박

- 황토방과 체험관, 원두막, 방갈로에서 숙박 : 원두막(기본 2인/3만원), 방갈로(기본 4인/5만원), 황토방(6인이하/15만원)(동절기 18만원), 체험관(15인이하/18만원), 055-291-6639.
- 단다도예펜션 055-298-2369, www.dandapension.co.kr
- 퀴모텔 055-291-6561
- 파라다이스여관 055-251-3992

### 먹거리

- 빛돌배기마을 식당은 화~토요일까지 운영(예약시 식사 가능). 단감비빔밥 7천원, 웰빙정식 7천원, 수육정식 1만2천원, 야외바비큐 1만2천원, 가마솥백숙 1만5천원.
- 신라갈비 055-291-5636
  - 다인식육식당 055-298-7566
  - 주남오리갈 055-297-7776

### 통역기대도 정보

마을 내에서 영어 통역서비스가 제공됨.



해바리마을

경상남도

## 햇불로 낙지를 잡는 해바리체험과 유자 첫 생산지

남해 해바리마을

밤에 바다에 나가 햇불로 낙지를 잡는 전통어로방식인 해바리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유자의 본향인 남해에서 유자를 최초로 생산한 지역으로 유자따기체험, 유자비누만들기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족리 791							
체험	해바리체험, 유자따기, 유자비누만들기, 갯벌체험, 선상어부체험							
문의	010-4702-9990 / 010-3867-4884, <a href="http://haebari.go2vill.org">http://haebari.go2vill.org</a>							

남해는 남해도, 창선도 등 2개의 큰섬으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다양한 전통어로방식이 전해져온다. 해바리마을로 가는 길에 바다에 널린 죽방렴을 볼 수 있다. 인근 두모마을 등지에서 행해지는 개매기, 송정항 슬마을의 갯후리, 해라우지마을의 석방렴 등 전통어로방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많다.

해바리마을은 밤에 이루어지는 해바리체험으로 인해 인기가 높다. 야심한 밤에 햇불을 들고 바다에 나가서 낙지를 잡는다. 물때에 따라 시간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밤10시에서 새벽1시 사이의 심야 시간에 체험이 이루어진다. 봄과 가을 두 차례 체험이 가능하다. 4~6월 사이 봄철에 특히 낙지가 잘 잡힌다. 직접 잡은 낙지를 초장에 찍어먹는 맛이 일품이다.

마을  
미리보기

해바리체험으로 잡은 낙지



## 유자를 처음 생산하고 보급한 마을

남해 특산품으로 3자인 유자, 치자, 비자가 유명하다. 해바리마을에서는 유자와 비자나무를 만나볼 수 있다. 유자를 처음 생산해 보급한 마을이 해바리마을이라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마을 뒷산인 대방산 중턱에는 비자나무숲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 수령 50~60년 생 비자나무가 20m 이상의 높이로 우뚝 솟아서 자라고 있다. 산책로가 잘 가꾸어져 있어 삼림욕을 하며 산책하기에 좋다.

비자나무숲 주변에는 팡팡나무를 잘라서 예쁘게 가꾸어놓은 토피어리랜드도 인상적이다. 숲 아래쪽에는 유자농장과 참다래농장이 자리 잡고 있다. 비자나무숲 아래로 펼쳐진 해바리마을과 남해바다 전경이 시원스럽다.



- ① 유자잼 토스트
- ② 유자농장에 가득 달린 유자





선상어부체험을 하는 가족여행객

## 다양한 바다체험과 농촌 수확체험을 동시에



지족갯마을의 죽방렴



하트모양물에 유자비누만들기

해바리마을은 해바리체험을 비롯해 갯벌체험, 선상어부체험 등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 인기가 높다. 갯벌체험은 썰물 때 물이 빠지면 갯벌에서 낙지, 조개 등을 잡을 수 있다. 선상어부체험은 배를 타고 나가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해 고기를 잡는 체험이다. 직접 잡은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생선회로 맛볼 수 있다.

다양한 농산물 수확체험이 가능하다. 마을을 대표하는 유자따기체험, 참다래따기체험, 아로니아따기체험 등을 해볼 수 있다. 경운기 트레킹 및 숲체험도 인기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유자비누만들기에도 도전해보자. 유자는 비타민의 보고로 알려져 피부의 탄력을 더해준는데 좋다. 식물성원료로 직접 만든 비누를 이용하면 피부탄력도 좋아지고, 아토피 예방에도 좋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유자를 재배한 마을에서 직접 만든 유자로 만든 비누로 더 의미가 있다.

주변  
둘러보기

## 남해 해바리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246

THEME 04 WELL-BEING  
건강 | 웰리빙 | 힐링여행

### 양모리학교

[www.양모리.com](http://www.양모리.com)

Tel. 055-862-8933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775번길 256-17

남해 구두산 정상 부근에 자리한 양떼 목장이다. 목장 주변은 편백나무숲으로 둘러싸여있고, 목장 아래로 바다가 펼쳐져 있어 전망이 빼어나다. 양외에 양몰이 개 보더콜리와 당나귀, 염소, 돼지 등 다른 동물도 만나볼 수 있다.

### 지족갯마을

[jjok.invil.org](http://jjok.invil.org)

Tel. 055-867-1277

남해군 삼동면 삼리로24번길 39

전통어로방식인 죽방렴이 잘 남아있는 마을. 남해도와 창선도 사이 물살이 센 지역에 대나무로 발을 엮어서 죽방렴을 설치해 놓았다. 고기가 들어왔다 발에 갇히면 썰물 때 뜰채로 떠서 쉽게 고기를 건져올릴 수 있다.

### 다랭이마을

[darangyi.go2vil.org](http://darangyi.go2vil.org)

Tel. 010-4590-4642

남해군 남면 남면로679번길 21

남면 평산마을에서 다랭이마을을 지나 속호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남해의 드라이브 코스 중 으뜸으로 꼽힌다. 그중 다랑이논과 해안경관이 어우러진 다랭이마을이 가장 아름답다. 농경지가 적은 이곳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계단식인 다랑이논이다.

### 해오름예술촌

[www.sunupart.kr](http://www.sunupart.kr)

Tel. 055-867-0706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995

6년여 동안 폐교로 방치되었던 건물을 개조하여 꾸민 문화 예술 공간. 학교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유럽풍 산장처럼 외관을 새롭게 꾸몄다. 국내 외에서 수집한 약 5만여 점의 수집품이 전시. 농촌교육농장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칠보공예, 알공예 등 전통공예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마을  
체험하기

## 경운기 트레킹 및 숲체험

경운기를 타고 마을을 한바퀴 돌아본 후 편백나무숲 입구에서 내린다. 편백나무숲에서 삼림욕을 즐긴 후 걸어서 마을로 돌아온다. 숲주변에 토끼어리랜드도 조성되어 있다. 살아있는 광광나무를 다듬어 만든 토끼어리를 함께 감상해보자.



## 유자비누 만들기

유자가루와 식물성원료를 넣고 끓인다. 하트모양의 틀에 부어 2시간 정도 식히면 천연비누인 유자비누가 완성된다. 유자비누는 피부탄력이 좋아지고, 아토피 예방에도 좋다.



## 갯벌체험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면 장화를 신고 들어가 호미로 채취한다. 각종 조개와 낙지 등 싱싱한 해산물을 잡을 수 있다.



## 유자따기 체험

유자는 남해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전국에서 해바리마을이 최초로 재배했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의미가 크다. 장갑을 끼고 가위를 이용해 잘익은 유자 위쪽의 가지를 잘라낸다. 유자는 가시가 많아 가시에 찔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작업한다.

추천  
여행코스

당일 코스

## 해바리마을 &gt; 점심 &gt; 해오름예술촌 &gt; 지족갯마을

오전에 해바리마을에서 체험을 한 후 점심을 먹는다. 갯벌체험, 유자비누만들기를 해보면 좋다. 오후에는 해오름예술촌을 둘러본 후 지족갯마을로 이동한다. 지족갯마을에서 죽방렴을 둘러본 후 노을을 감상해보자.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양모리학교 &gt; 점심 &gt; 다랭이마을 &gt; 해바리마을 &gt; 저녁 &gt; 왜바리체험

## 둘째 날 : 독일마을 &gt; 해오름예술촌 &gt; 점심 &gt; 지족갯마을

양모리학교에서 양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점심을 먹고 다랭이마을로 이동한다. 해바리마을에서 경운기 트레킹 및 숲체험을 한후 저녁을 먹는다. 밤에는 왜바리체험을 하며 집은 낙지를 맛있게 먹는다. 이튿날은 독일마을과 해오름예술촌을 구경하고 점심을 먹는다. 지족갯마을에서 죽방렴을 둘러보고 노을까지 보고하면 멋진 여행이 된다.

## TRAVEL TIP

## 대중교통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삼천포행 버스 이용 삼천포터미널에 내린다. 05:30~19:30 1시간 간격 운행 4시간 소요. 삼천포시외터미널에서 25분 시내버스를 타고 해바리마을에 내린다. 하루 4회 운행, 30분 소요. 지족행 버스를 타고 지족 하차 후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남해시외터미널에서 지족 하차 후 택시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다.

## 숙박

● 등대게스트하우스 010-5475-2303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15

## 먹거리

지족갯마을이나 다랭이마을에 멸치쌈밥이나 장어구이를 접하는 식당이 많다. 양모리학교 입구에는 잔치국수가 푸짐하면서 저렴하다.

- 우리식당 055-867-0074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186번길 7
- 다랭이팜농부맛집 055-862-3398 남해군 남면 남면로679번길 27-3
- 달반늘 장어구이 055-867-2370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99
- 냇가집 잔치국수 055-862-7136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775번길 38

## 통역가이드 정보

해바리마을이나 남해군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가 없어 여행사 등을 통해 미리 통역을 구해야한다.



거창숲옛마을

경상남도

## 전통고택과 함께 하는 맛있는 체험

거창 숲옛마을

거창 숲옛마을은 덕유산 자락이 품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갈계리 임씨고가와 재실, 갈천서당 등 고택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적인 체험마을이다. 마을 뒤편에는 갈계숲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고즈넉한 정취를 돋보이게 한다.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b>경남</b>	경북	제주
체험여행		자연여행			전통여행		웰빙여행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38							
체험	옛만들기, 사과따기, 떡메치기, 두부만들기							
문의	055-942-2247, <a href="http://oldvil.go2vil.org">http://oldvil.go2vil.org</a>							

갈계리에 오래된 숲인 갈계숲이 있고, 은진 임 씨가 살기 시작한지 500년이 넘는 옛 마을이라 그 글자를 따서 숲옛마을이라 부른다.

남덕유산 동쪽에 들어선 마을로 맑은 송계계곡이 흐른다. 마을 입구인 북상초등학교 맞은편에 거창 갈계리 은진임씨정려각이 서있다. 정려는 충신, 열녀, 효자 등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는 것을 말한다. 마을을 대표하는 인물인 임훈과 임운 형제의 효행을 널리 알리고자 세운 2개의 정려 등 6위의 정려가 모여져 있다.

수심당, 선심당, 정심당으로 구성된 숲옛마을 주민센터가 체험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센터 역시 한옥으로 이어져 전통고갯마을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주민센터 뒤쪽에 실내체험장도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 옛만들기, 두부만들기, 떡메치기 같은 체험이 이루어진다.



계곡에 둘러싸인 자연섬 주변 조성된 갈계숲



## 그윽한 숲과 예스러운 숲옛마을

북상초등학교 아래로 내려서면 갈계숲이 들어서 있다. 덕유산에서 발원한 소정천이 두 갈래로 흐르면서 삼각주처럼 자연섬을 만들었다. 수령 2~3백년의 소나무를 비롯하여 느티나무, 물오리나무 등이 함께 군락을 이루고 있어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숲옛마을을 대표하는 인물인 임훈이 풍류를 즐겼던 숲으로 가선정, 도계정, 병암정 등 3개의 정자가 숲과 조화를 이루며 서있다. 가선정과 주변 숲은 이병헌, 전도연 주연의 영화 <협녀> 촬영지이기도 하다.

마을에 남아있는 갈계리 임씨 고가는 임훈이 살던 옛집으로 숲옛마을 고택 중에 보존가치가 가장 높은 곳이다. 솟을삼문을 한 대문채가 입구에 서있고, 사랑채, 안채가 각각 독립적인 일(-)자형 건물이다. 갈천서당은 임훈과 임운 형제가 후학을 기르기 위해 세운 곳이다. 임운이 살던 소간서루도 볼만하다.

- ① 수령 600년생 연수사 은행나무
- ② 거창 갈계리 은진임씨 정려각
- ③ 옛 멋을 그대로 간직한 임씨고가

250

THEME 04 WELL-BEING  
경남 | 함안·거창  
유서깊은 마을





## 전통음식을 만들어먹는 맛있는 체험



떡메치기 체험



사과따기 체험하는 여행객

숲옛마을은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마을답게 우리네 전통음식을 만들어먹는 체험이 추가 되고 있다. 옛만들기, 강정만들기, 두부만들기, 떡메치기 등 조상대대로 이어져온 전통음식을 만들어서 맛보는 체험이 많다.

옛만들기는 무려 8시간동안이나 달인 조청을 사용한다. 두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조청을 만들다보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엿을 다 만든 후에 하는 엿치기도 재미있다. 떡메치기는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찹쌀과 흑미를 혼합해 흑미찰떡을 만들어서 먹는 체험이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다보니 건강에 좋은 웰빙식품이 된다. 옛만들기, 두부만들기, 떡메치기를 하다보면 조상들의 음식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다양한 농산물 수확체험도 해볼 수 있다. 12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 딸기따기체험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여름에는 감자수확체험을 한다. 가을에는 사과, 배, 밤, 고구마 수확체험을 해볼 수 있다.

두부만들기 체험



## 거창 숲옛마을의 주변 볼거리는 어떤가요?



252

THEME 04 WELL-BEING  
건강 | 웰어 | 웰  
올리머를 | 나무

### 수승대

황산마을 앞 구연동에 자리하고 있다. 수승대는 삼국시대 때 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사신을 전별하던 곳으로 처음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근심하였다 해서 근심 수(愁), 보낼 송(送)자를 써서 수승대라 하였다. 이후 퇴계 이황 선생에 의해 수승대로 바뀌었다. 사계 절셀매장, 여름에는 국제연극제가 열린다.

### 금원산자연휴양림

위천면 상천리 금원산 자락의 휴양림으로 콘도식 숙소 복합산막을 비롯해, 일반산막, 숲속수련장, 연회실, 식당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숲속에서 편안하게 쉬어가기에 좋다. 자운폭포, 유안정2폭포, 유안정1폭포를 모두 만날 수 있어 매력적. 겨울에는 휴양림에서 얼음조각축제가 열린다.

### 당산리 당송

천연기념물 제 410호, 나이가 6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소나무로 높이가 18m, 나무 둘레가 4m에 이른다. 나무 꺾임은 거북등과 같이 갈라져 있으며, 밑동 부분에 도끼자국이 남아있어 안타깝다. 당송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소리를 내어 미리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처럼 신령스러워 영송이다.

### 거창 연수사

Tel. 010-8864-6260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38

감악산 자락의 해발 800m 고지대에 들어선 사찰. 신라 헌안왕(재위:857~861) 때 왕에 의해 지어졌다. 이름 모를 병에 시달렸던 헌안왕이 이 절 부근의 약수를 마시고 병을 고친 뒤에 감사의 뜻으로 지었다고 전한다. 경내에 특별한 유물은 없지만, 수령 600년 생 은행나무가 우뚝 솟아있어 사찰의 오랜 내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마을  
체험하기

## 사과따기 체험

늦가을에 체험해 볼 수 있는 수확체험이 사과따기체험. 잘익은 사과를 잡고 위로 들어올리면 꼭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1인당 5개의 사과를 따서 집에 가져갈 수 있다.



## 두부만들기 체험

물에 하루정도 불린 콩을 맷돌에 간다. 간 콩을 삶은 후 막대기를 이용해 물기를 짜낸다. 두부틀에 넣어서 식히면 맛있는 손두부가 완성된다.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도 같이 맛보거나 가져갈 수 있다.



## 엿만들기 체험

2명이 1조가 되어 조청을 양쪽에서 잡고 늘어뜨렸다 돌렸다가 반복한다. 층분히 늘어뜨려서 가늘어지면 건조실에서 8분정도 말린다. 잘 건조시킨 후 엿치기를 하면 먹기 좋은 엿이 완성.



## 떡매치기 체험

친환경으로 농사지는 찰쌀과 흑미를 혼합해 갈아서 쌀가루를 만든다. 쌀가루를 찌서 떡뭇치를 만든 후 떡메로 여러 번 힘껏 내려치다보면 맛있는 흑미찰떡이 완성.

여행  
추천코스

당일 코스

## 숲엿마을 &gt; 점심 &gt; 수승대 &gt; 금원산자연휴양림

오전에 숲엿마을에서 체험을 한후 점심을 먹는다. 떡매치기 체험을 한 후 점심과 함께 흑미찰떡을 먹게 좋다. 오후에는 수승대와 금원산자연휴양림을 돌아본다.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gt; 수승대 &gt; 점심 &gt; 당산리당송 &gt; 숲엿마을

## 둘째 날 &gt; 금원산자연휴양림 &gt; 점심 &gt; 연수사 &gt; 가조온천

첫째날은 수승대를 둘러본 후 점심을 먹는다. 당산리당송을 보고 숲엿마을에서 여러가지 체험을 한다. 둘째 날은 금원산자연휴양림을 둘러본 후 유안천1폭포까지 가 법계 산책에 나선다. 점심을 먹고 연수사 여행 후 가조온천에서 온천욕을 즐기며 여행의 피로를 푼다.

253

## TRAVEL TIP

## 대중교통

동서울터미널에서 거창행 고속버스 이용, 08:30~22:10 1일 8회 운행, 3시간 30분 소요. 거창시외터미널에서 북상행 공용버스 이용, 북상면사무소 앞 하차, 숲엿마을까지 도보 2분.

## 숙박

- 숲엿마을의 민박집 이용, 055-942-2247
- 금원산자연휴양림 : 055-940-3574
- 충신당 동계 정온고택 한옥민박 [www.jungon.co.kr](http://www.jungon.co.kr) 010-2518-4727
- 해뜨락펜션 055-943-0014

## 먹을거리

경남의 서북쪽에 자리한 거창은 할양과 함께 갈비찜이 유명. 거창갈비찜은 갈비에다 배와 마늘을 많이 넣고 참기름, 고춧가루 등의 양

념을 배합해 족석에서 양념한 고기로 조리를 하는 것이 특징. 거창읍의 영호강이 내려다보이는 강변도로에는 민물고기를 이용한 어항국수가 유명.

- 삼산이수 055-942-1844 거창군 거창읍 내학길 35-4
- 원동별미갈비찜 055-942-1850 거창군 거창읍 서변원동길 14
- 별미갈비찜 055-943-5921 거창군 거창읍 강양하길 5
- 구구식당 055-942-7496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64
- 워천구구식당 055-943-2399 거창군 워천면 원학길 351

## 통역기대 정보

숲엿마을이나 거창군에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가 없어 여행사 등을 통해 미리 통역을 구해야한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스마트하게 즐기자!  
농식품부가 추천하는 대한민국  
농촌체험휴양마을 테마여행



[www.welchon.com](http://www.welchon.com)



웰촌전화상담 1577-1417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